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제1493호

正道를 지키며 세상과 어우러져…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이투데이가 온라인 뉴스를 시작한 지 11년, 신문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곧게 뻗은 대나무와 굽이굽이 자란 소나무가 어우러져 하늘로 향하듯이 이투데이는 언론의 정도(正道)를 지키며, 변화하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젊은 언론으로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시장 신뢰와 따뜻한 언론'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4차 산업혁명' 인식의 틀을 깨자

단순히 ICT 신산업 육성이 아닌 전 산업 한데 어우러진 혁신 세상

정부, 규제 개혁·인프라 구축 필요

노동시장 변화 사회적 논의 나서야

'전 세계 139개국 중 25위'.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역량의 현주소다. 다보스포럼(WEF)은 올해 회의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적응도 순위를 말레이시아, 체코, 대만 등에도 뒤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로봇, 3D프린팅,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는 즐비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미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려면 4차 산업의 개념과 접근법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 논의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 프로젝트에 치우쳐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기술의 시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AI, IoT, 3D프린팅, 클라우딩 컴퓨터 등 ICT 분야의 특정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ICT 분야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확산해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신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제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그림자인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장(연구위원)은 "4차 산업 시대 스마트공장 등이 활성화되면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서 인력들이 합종연횡하는 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대표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면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있어 근로자 대표 모델을 적절히 설정하고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국가직무능력표준(NSC)에 기반한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 모두 노동, 교육, 법·제도 등 사회 전반의 유연성을 높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은 기술 중심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에 대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기업 정책의 진입·퇴출 장벽 제거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삼성전자 '리콜 악재' 반도체로 만회

3분기 영업이익 7조6000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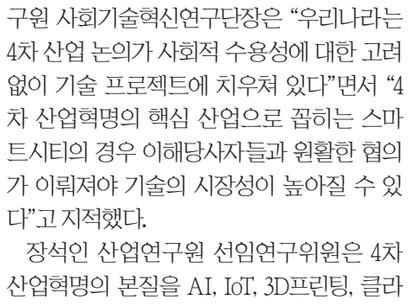
전분기보다 낮지만 전년동기 수준

'갤럭시S7' 호조로 9분기 만에 8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온 삼성전자가 3분기 암초에 부딪혔다. '갤럭시노트7' 글로벌 리콜 사태에 따라 8조 원대로 예상됐던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이 만회하며, 전년 동기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4일 전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7일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 매출은 51조415억 원, 영업이익 7조6441억 원이다. 8월 초 '갤럭시노트7'이 공개되며 호평이 이어지자, 한때 증권가에서는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8조2000억 원까지 내다봤지만, 예기치 못한 리콜 사태에 예상치는 하향 조정됐다.

삼성전자 IM(IT·모바일)사업부는 3분기 최소 1조 원의 리콜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서 전 분기 대비 35% 감소한 2조8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성을 지켜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이번에도 실적 방어의 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실적 (단위: 조원)



반도체 부문은 주력인 D램 가격이 3분기 들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기술력에서 경쟁업체들보다 절대우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3D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 분기(2조6400억 원)보다 5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주춤했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4분기에 8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현대카드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리볼빙 불완전판매 제재

현대카드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불완전 판매로 이달 중 기관경고 제재를 받는다. 문제가 된 리볼빙 카드는 이미 서비스가 중지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27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는 7월 제재심에서 논의했던 '기관경고, 담당자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가 이번에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 2회 연속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된다. 현대카드를 비롯해 신한·삼성카드는 고객정보를 모집인에게 유출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된다.

현대카드의 리볼빙 문제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불완전 영업 관행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카드에서 발생한 리볼빙 불완전 판매가 수만 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기사 11면 서지희 기자 jhsseo@

알립니다

'창간 6주년' 이투데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증권기사 로봇 'e2BOT' 론칭

M&A·테마주 기사 강화

농·어업산업 기획기사 강화

이투데이가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뉴스 수요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로봇저널리즘을 도입합니다.

미국의 로이터, 포브스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스포츠, 날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저널리즘은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보다 빠른 뉴스 공급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습니다.

이투데이는 올해 초 로봇저널리즘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 6개월여 만에 증권기사 로봇 'e2BOT'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2개월여간의 테스트 운영을 마무리하고 4일 공식 론칭하는 e2BOT은 하루 3차례 코스피, 코스닥 시황은 물론 상·하한가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 테마 리포트, 테마 동향 등 10여 가지의 기사를 주가 변동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작성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자본시장의 뉴스를 강화해 온 이투데이는 차별화한 뉴스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의 뉴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특히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떠도는 정보의 사실 확인과 함께 전문가의 분석을 담은 '테마주 파헤치기' 코너를 신설합니다.

또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스몰딜부터 대기업의 빅딜까지 M&A 기사를 전략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투데이는 M&A 취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M&A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산업의 기획기사도 강화합니다. 농·어촌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령화, 유통시장 왜곡 등으로 인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 산업기반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농·어업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를 주 1회 이상 연재할 계획입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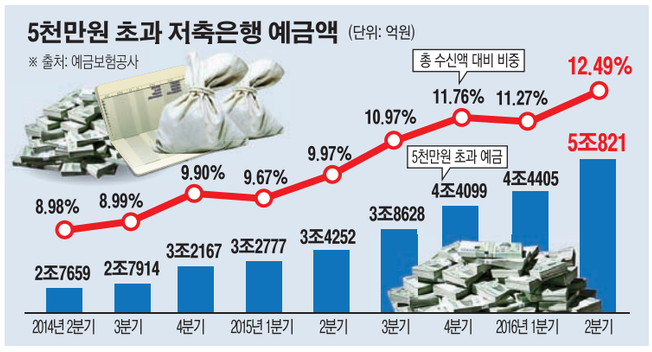
창간 6주년 특집 지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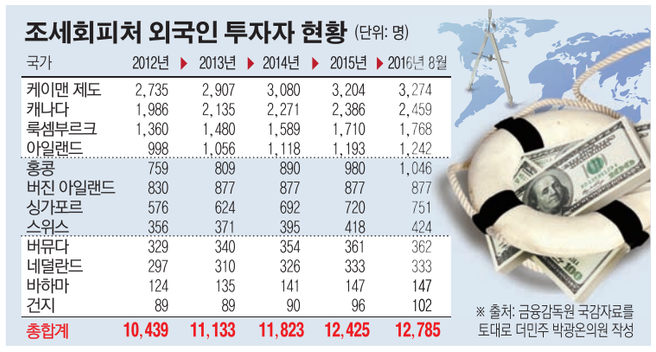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 ..... 4~7
전문가 진단, 한국경제 8대 이슈 ..... 18~19
코스닥 출범 20년 ..... 20~21
연기금 CIO에게 듣는다 ..... 22~23
청년 일자리, 中쇼가 만든다 ..... 24~25
세계는 정권교체 중 27
여성 골프, 굿 샷~ ..... 28~29





데이터 뉴스 DataNews





5000만원 넘는 저축銀 예금 5조… 2년새 2배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이 5조 원을 돌파했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총 5조821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4.45%(6416억 원) 늘어났다. 2014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83.7%(2조3162억 원)나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이 2년 전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구하지 못한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흘러 들어간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예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기관마다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이 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이자는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한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수도 4만1000명으로 2년 전(2만10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예금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0.69%에서 1.24%로 상승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外人투자자 30%가 조세회피처… 투자액 163조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10명 중 3명이 '조세회피처'의 국적이며, 이들의 투자 자금이 16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이다. 이 가운데 최소 29.9%(1만2785명)가 조세회피처의 국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000억 원, 채권 31조3000억 원 등 163조7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총 투자 잔액의 29.6%를 차지한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의 주식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28조1000억 원, 캐나다 14조3000억 원, 아일랜드 17조1000억 원, 네덜란드 15조7000억 원 등의 순이다. 개별 투자자로서 주식에 1조 원 넘게 투자한 큰손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캐나다·아일랜드(각 3명), 네덜란드·스위스(각 2명), 홍콩(1명) 순이다. 채권 투자 규모는 스위스 14조5000억 원, 룩셈부르크 10조1000억 원, 스위스 3조8000억 원, 홍콩·아일랜드 각 7000억 원 순이다.

곽도흔 기자 sogood@



재판매 3일 만에 4만5000대 '갤노트7' 다시 난다

글로벌 전량 리콜(제품 회수) 한 달여 만인 1일 '갤럭시노트7'이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판매 재개 후 첫 사흘 동안 갤럭시노트7은 4만5000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초반 고객몰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블랙컨슈머의 허위신고와 이달 중순 출시 예정인 '아이폰7' 등으로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학가 등 대규모 체험존 마케팅 재개
'새롭고 안전한 그린배터리' 안전성 강조

"발화 논란 있었지만… 현존 최고 성능"
'리콜 사태' 딛고 초반 고객몰이 성공적
블랙컨슈머 등 돌발 악재, 흥행 변수로
이달 중순 출시 아이폰7과 맞대결 관심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 마련된 '갤럭시노트7' 체험존에서 소비자들이 갤럭시노트7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재등판 첫 주말 붐비는 체험존… 갤노트7 능가 제품 없다= 영업종료를 1시간가량 앞둔 2일 저녁 7시 홍대입구 삼성디지털플라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마다 약속이나 한 듯 갤럭시노트7 진열대로 향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진열대는 갤럭시노트7을 체험하려는 고객들로 붐볐고 한 50대 남성은 갤럭시노트7 개통을 위해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매장에서 갤럭시노트7을 체험한 직장인 홍웅선(32세) 씨는 "발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 갤럭시노트7을 능가하는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갤럭시S7'의 카메라 기능도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갤럭시노트7 카메라가 어두운 곳에서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터리 발화 이슈에 따른 한 달여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갤럭시노트7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뜨거웠다. 신규 판매 첫날 2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갤럭시노트7은 토요일과 주말 2만5000대가량이 추가 개통됐다. 판매 재개 첫 3일 동안 매일 '대박폰' 기준인 '하루 판매 1만 대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뚜렷한 경쟁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갤럭시노트7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점들은 이달 1일부터 갤럭시노트7 진열대를 확대하고 '새로운 갤럭시노트7, 안전한 그린 배터리를 확인하세요'라는 안내문으로 안전성을 강조하며 판매 재개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9일 국내 교환 3일 만에 교체 고객 10만 명을 넘어서며 80%의 교체율을 기록 중이다. 개통 취소 비율은 약 4%(1만80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

◇블랙컨슈머 허위신고 등 돌발 악재 극복해야= 갤럭시노트7의 숙제는 지속적인 판매량 유지다. 글로벌 리콜과 제품 교환, 새 제품 판매 시작 등 배터리 이슈가 마무리됐음에도 갤럭시노트7 발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공식적인 검사를 통한 삼성전자의 해명에도 갤럭시노트7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크고 작은 의심 사례들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신뢰도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돌발 악재들을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갤럭시노트7 출시 후 제품 결함에 관한 허위신고가 59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는 삼성전자가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지난달 2일 직후 급격히 늘었다가 현재 소강 상태다. 지역별 허위신고는 미국 시장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 유럽 시장에서 6건씩 나왔다. 이는 허위신고 의심 사례가 아닌 고의로 꾸며지고 명백하게 허위로 검증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7이 출시되는 이달 중순 이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숙제다. 전작 대비 변화가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 아이폰7이지만, 충성 고객층이 두꺼운 만큼 아이폰7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발화 이슈로 인한 판매량 감소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삼성전자가 향후 터져나오는 갤럭시노트7 추가 발화 의심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또 터졌다?…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

'배터리 교체' 새 제품 또 발화 신고
"결함 아닌 외부충격" 안도의 한숨

새로운 배터리가 탑재된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은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또다시 판매중단 위기를 맞을 뻔한 삼성전자는 배터리 발화가 갤럭시노트7 자체 결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자의 갤럭시노트7에서 연기가 나면서 제품 일부가 녹아 내리는 피해를 겪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하얀 연기와 함께 제품이 녹아 내리는 과정과 방바닥이 불에 그을린 흔적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제품은 지난달 22일 택배를 통해 교환된 것으로, 밤새 충전기에 꽂아둔 뒤 아침에 충전기를 빼 뒀는데 1분여 뒤 연기가 났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문제 제품을 회수해 SGS 기흥시험소에서 분석한 결과 발화 원인은 배터리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 때문으로 밝혀졌다. SGS 기흥시험소는 삼성전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분석 결과를 통해 "외관 검사 결과 케이스 뒷면에 외력에 의한 충격 흔적들이 발견됐고, 엑스레이 분석 결과 외부 충격 흔적과 동일한 위치에 배터리 내부 전극 원형의 눌림 자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T 분석 결과 외부 충격 흔적과 동일한 위치에 배터리 내부 전극 손상이 발견됐고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배터리 결함으로 새로운 교환 제품이 또다시 폭발했다면, 삼성전자는 자칫 갤럭시노트7 판매를 전면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공신력 있는 SGS의 검사 결과 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삼성전자는 장애물 하나를 무사히 넘겼다. 삼성전자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위해 외부기관에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리콜 이후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교환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은 120만 대로, 지금까지 배터리 발화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gutjy@

식당·술집·꽃집·골프장 매출 곤두박질 '판례 쌓일 때까진…'

김영란법發 소비절벽 현실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식당, 술집, 꽃집, 골프장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소비는 열대야로 에어컨 판매 등이 늘면서 전월(-2.5%)의 부진을 씻고 2.0% 증가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초중고 및 대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광범위한데다 '받는 쪽'뿐만 아니라 '주는 쪽'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되면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몸을 사리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기업인들의 비즈니스의 무대인 호텔들도 매출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내 한 레스토랑은 법 시행 이전 대비 30%가량 매출이 줄었다. 서울 삼성동 인근 5성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과 광장동 워커힐호텔 등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3만 원 코스까지 내놨지만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사교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3만 원 이하 식사 등은 허용되지만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통상 10월은 골프장 잔디 컨디션이 좋아 성수기로 불린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주말을 맞은 경기 남부 주요 골프장은 가을 성수기임에도 대부분 예약률이 100%에 못 미쳤다. 골프장들은 예약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법 시행 이전 복도를 가득 메우던 화환 행렬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화훼업계는 울상이다. 업계 자체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총 1조2000억 원이었던 매출이 올해는 8000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여파로 지역 축제의 만찬도 사라졌다. 경북 봉화군은 3일까지 열린 '봉화송이축제'의 첫 행사로 계획했던 환영 리셉션을 20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송이축제 만찬에 송이와 소고기를 내놓으려니 3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문구가 걸려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처벌…국민 전체가 '몸 사리기'모드
호텔·골프장 예약률 급감…결혼식장선 화환행렬 없어져
"3만원 넘어서" 송이축제 만찬 취소…지역축제까지 여파

안동시도 지난달 30일 안동국제탈춤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내빈, 각급 기관장, 출향 인사 등 250명을 초청해 환영 리셉션을 열려다 취소했고, 울진군도 지난 1일 울진송이축제 개막식 때 기관단체장과 출향인 등 50여 명을 관내 식당에 초청하려던 환영 오찬을 취소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저녁 약속을 미루거나 가볍게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밤 늦게 손님을 태우던 택시와 대리기사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법 시행 엿새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엔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만 1000여 건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기 전에는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워 당분간 소비절벽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도흔 기자 sogood@

'법카' 밥값 결제 9% 뚝

개인카드는 3.4% 감소 그쳐
비싼 한정식 17.9%↓ 직격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식당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이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BC카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일인 28~29일과 시행 4주 전인 지난 8월 31일~9월 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 관련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카드는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주점업종에서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이용액이 각각 9.2% 줄었다.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1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음식점의 경우 사용액이 15.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 역시 줄었지만, 개인카드 이용 건수와 비교하면 감소율은 높지 않다.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4주 전과 비교해 1.7% 줄었고, 주점업종에서는 6.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카드는 요식업종에서 2.4%, 주점업종에서 6.4% 각각 줄었다.

결제 건당 이용액으로 살펴보면,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기존 5만5994원에서 5만1891원으로 7.3% 줄었다. 주점업종도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감소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익신고학원에서 김영란법 위반 포착에 사용되는 다양한 몰래카메라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 신고접수 7건

부정청탁 4건·금품수수 3건
하루 평균 170건 질문 '빗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째인 4일 현재 신고 건수는 소폭에 그친 반면,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는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일 현재 총 7건(부정청탁 4건, 금품수수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 이외에도 1018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경과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하루 평균 17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질의는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것이 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149건, 공문을 통한 질의가 112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화를 통해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최소 수천에서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제한된 인력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영란법 관련 업무 담당자가 주무부서인 청탁금지제도과는 9명이고, 조사전담 지원 인력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는 질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후 추가로 질의·응답 자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소나기 피하자" 재계 대처법은

식사·기념품 올스톱…홍보·마케팅부터 '군살빼기'

"홍보·대관부서 손발 묶여"…입지 축소 우려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죠. 허용하는 범위라도 당분간 무조건 올 스톱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을 맞았다. 국내 기업들은 수십 년간 지속한 대관·홍보 방식에 변화를 꾀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이 대관·홍보 부서의 손발을 묶는 법이 될 수 있다며, 부서의 입지가 좁아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공무원과 언론계 등과 접촉해야 하는 기업들은 기존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권익위와 대한상의 등에서 사례집 등을 통해 대표 위반 사례들이 제시돼 있으나, 법해석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등 해석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자동차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요 홍보수단인 신차 출시와 시승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8월 29일 열린 김영란법 세미나에서도 당장 이같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각종 행사에서 식사나 기념품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홍보 방식의 변화는 롤스로이스 행사에서 볼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브랜드 스튜디오 오픈 행사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돼 모든 순서가 약 1시간 안에 끝이 났다. 행사에 들어간 1인당 비용도 교통비와 케이터링 서비스를 더해 3만 원 미만으로 맞춰졌다.

마케팅이나 홍보 행사가 많은 전자나 유통업계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법 시행에 맞춰 홍보·마케팅을 축소하더라도 이후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ICT·제조업 융합’ 업종간 빅뱅…‘글로벌 생존게임’ 시작됐다

국가경제·기업 운명 결정지을 ‘키워드’

글로벌 산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섰다. 현재 산업구조는 18세 중반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을 뜻하는 1차 산업혁명과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화라는 3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미 주요 국가와 업종, 대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체질 개선이 한창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업종의 경계선이 없다는 점이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더 촉발시킬 것이란 시각이다.

증기기관→전기→컴퓨터→그 다음은
사물인터넷·인공지능·로봇이 핵심기술
제조업과 융합…국가 어젠다 선점 나서
獨 ‘인더스트리4.0’…美·日도 경쟁 가세
한국, 준비 수준 세계 25위 불과…
“정부·기업 체계적 전략 마련” 목소리

4차 산업혁명발(發) 산업구조의 대변혁은 이제 명제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제조업, 플랫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발현되고 있다. 138억 년 전 지금의 우주가 탄생한 ‘빅뱅 현상’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WEF에서는 4차 혁명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큰 범주로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로봇기술, 3D 프린팅 등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업종 간 융복합으로 결합되는 기술 혁신으로 정의했다.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글로벌 시장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생존경쟁 서막이 올랐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는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 자율형 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 적용되면서 고용 시장에도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사물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까지 더해져 스마트팜 형태로 가동되고, 의료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의 보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어젠다(의제)를 잡고 국가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독일이다. 수년 전부터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전략이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산업인터넷’, ‘로봇 신전략’ 을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벤치마킹하며 산업의 미래 설계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4차 산업으로 체질 전환을 위한 산업 인터넷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 전반부터 유지관리, 판매, 고객관리까지 모든 구간에 디지털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3월 11일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크루즈오토메이션’을 약 10억 달러(약 1조1040억 원)에 인수했다. 독일의 BMW도 인공지능 개발을 앞세우며 인공지능과 자동차의 융합을 본격 선언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역시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TRI(도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TRI는 2020년까지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해 무인차의 핵심인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에는 도쿄대 인공지능 벤처기업 ‘PFN(프리퍼드 네트웍스)’에 10억 엔(약 105억 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떤가. 충분한 준비에 나서고 있을까.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WEF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국 139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위와 12위를 기록하며,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체계적인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정도의 정보통신기술 능력이 부족한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산업계가 주목하는 핵심기술

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AI’ 첫 손가락

올해초 다보스포럼, 세계적 화두로
스스로 학습 ‘머신러닝’ 파급력 무궁무진
디지털기술 ‘IoT’·생물학선 ‘유전공학’



지난 3월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와 대국을 치르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이끌 혁신기술도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혁신기술들이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게 되면, 다양한 영역의 산업 자체도 발전·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나노기술’. 올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이 지목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다.

특히, AI는 지난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로 이미 전 세계적 관심을 받았다. 천하의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내리 3번의 대국을 내주는 결과를 보여주자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이 아닌 공포를 느꼈다. 인지, 학습, 추론, 직관 등 고차원적 사고력과 정보처리능력이 더 이상 인간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AI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일찍부터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시장조사업체 테크나비오는 AI 관련 매출액이 지난해 76억6880만 달러(약 8조4717억 원)에서 연평균 19.8%씩 성장, 2018년에는 130억930만 달러(약 14조37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이제서야 AI의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해외는 이미 개화되는 단계인 것이다.

AI과 함께 연결돼 있는 기술은 ‘머신러닝(기계학습)’이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이다. 딥러닝은 기계가 사전지식을 입력해 스스로 특성을 분류하는 기술로, 머신러닝의 한 방법론이다. 머신러닝은 우선 입력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질이 올라가는 만큼, 빅데이터와 융합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IoT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IoT는 주변의 모든 사물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기술로, 최근 1~2년 전부터 다양한 생활가전제품들에 적용되고 있다. 지리적·기술적 경계를 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현실과 온라인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녹아들 수 있다.

로봇공학 역시 AI와 연계되는 기술이다. 로봇공학은 향후 인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AI와 로봇공학의 접점은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소셜로봇에서 찾을 수 있다. 소셜로봇은 머신러닝 기술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이 가능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물리학적 기술로 로봇공학과 3D프린팅, 디지털 기술로 IoT와 빅데이터, 생물학적 기술로 유전공학이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유 기자 thec98@

공장 로봇끼리 작업 공유·분담…'다품종 소량생산'시대 열어







▲원광전자가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 이후 들어선 신규 장비(사진 위)와 기존 장비. 새 장비를 가동하면 한 번에 5개의 램프를 만들 수 있어 기존 시스템보다 다섯 배 효율이 높아졌다.

◀LS산전의 스마트공장에서 포장 로봇이 생산 완료된 제품을 품목별로 분류해 포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LS산전·원광전자

"공장이 똑똑해졌다"…제조업 패러다임의 대변혁

사물인터넷 통해 빅데이터 서로 공유
공정라인 제어…불량품까지 잡아내
LS산전·원광전자 IoT 적용 '지능화'
생산량 2.6배 늘고 불량률 86% 개선
제조업 비중 높은 한국, 파급력 크지만
"로봇이 인간 일자리 대체" 우려도

#LS그룹 계열의 LS산전은 2011년부터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설비를 구축했다. LS산전은 사물인터넷과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공장을 통해 다품종 대량 생산은 물론 맞춤형·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해졌다. 또 각 공정 라인에 설치된 통제 프로그램이 생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산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부품과 완제품의 수송도 무인운반차가 대신하고 있다.

#올해 1월 LED램프 제조기업인 원광전자는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원광전자의 스마트공장에는 로봇 자동화와 불량 감지 시스템이 적용됐고, 회당 제조 가능한 램프 1개 설비를 5개가 한 번에 주입되도록 개선시켰다.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원광전자의 시간당 생산량은 5700개에서 1만5000개로 약 2.6배 늘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는 불량률을 86% 개선시키고, 문제 발생 시 조치 시간도 90% 이상 줄였다.

이처럼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갖춘 스마트공장이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빅데이터로 상황을 분석해 생산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무인 스마트공장의 실현도 멀리 않은 미래에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이나 벤처, 중소기업들도 등도 소규모 자본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공정의 혁신을 뜻한다.

더욱이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이 줄 파급력은 상당하다. 전 세계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이 1970년대 25.7%에서 2014년 16.5%로 10%포인트 이상 감소할 때 한국은 17.5%에서 30.3%으로 오히려 10%포인트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를 결합하는 비즈니스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더해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소비 생태계를 구축했다. 사물인터넷기술의 확산으로 제품 상태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공장과 3D프린팅 기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 인간들이 자리잡고 있는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감이다.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향후 5년 내 7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새 일자리는 200만 개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산업 체질개선 '촉매제'로

자율주행車·비행기, 로봇수술…미래가 아니다

AI·드론 기술 접목…"조만간 상용화"

과거 공상과학영화에는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기계 장치나 그것을 활용한 신기한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그럴 때마다 영화의 장면은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먼 미래의 일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공상'이라는 글자를 빼고 과학영화로 불러야 하는 시점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망이 없던 것들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구글의 알파고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바둑에서 이세돌을 꺾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 등 ICT의 발달은 산업과 기술의 트렌드까지 변화시켰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자율형 자동차가 꼽힌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단순히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장애물과 신호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 한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경주에서 인간과 레이싱까지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의학에도 관여할 수 있다.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로봇 장비가 수술방법을 스스로 설정해 의사 없이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수술 학습이 반복될수록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쌓이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의료활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IBM은 가천 길병원과 손잡고 의사들이 근거에 입각한 암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의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등 3곳의 대학병원에 설치된 로봇 수술장비는 수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장비업체에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의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형 드론을 통한 항공기도 개발되고 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이륙과 비행, 착륙 등 전 과정이 무인으로 진행되는 항공기는 조만간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침범해 산업구조가 바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화 '채피'나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닮은 로봇이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인간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유물에 불과하며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생활속 파고든 '맞춤형 경제'

택시 잡고 장 보고…원할 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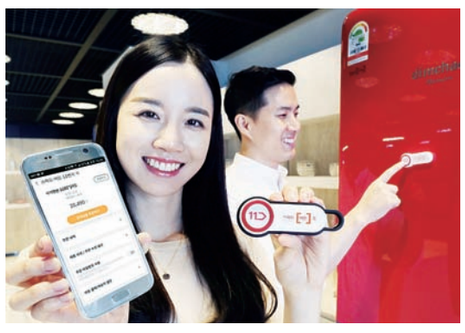
수요자 맞춤 온·오프 연결
소셜·이통사 서비스 박차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공급자 중심에서 일방적인 경제 구조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소통하는 양방형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맞춤형(온디맨드) 경제'라 불리는 이 방식을 통해 우리 생활이 급속도로 변화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항상 끼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는 필연적이다. 여기에 'O2O(Online to Offline)'가 붙으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 기존에 형성된 오프라인 시장에 온라인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시장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장을보고 택시를 잡고 청소도 해준다. 대표적인 국내 온디맨드 사업자는 카카오다. 카카오는 수수료가 없고, 탑승 위치나 목적지를 지도로 쉽게 지정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를 운영 중이다.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와 모바일 예약서비스인 '카카오헤어샵'도 연달아 출시하면서 온디맨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도 O2O을 앞세워 온디맨드 사업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인터넷쇼핑몰 11번가와 함께 집에 미리 설치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생필품을 주문·결제·배송해주는 간편 쇼핑 서비스 '스마트 버튼 꾹'을 출시했다. 이 버튼은 집안의 와이파이(WiFi) 망을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된다. 소비자가 집에서 쓰는 생필품 항목, 수량, 결제방법, 배송지 등을 앱에 초기 저장하면 다음 주문부터 앱을 실행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지난 7월 중국 관광객 및 직구족에 최적화된 모바일 쇼핑 서비스 '100C'를 출시했다. 100C는 엄선된 100가지 상품과 인기 상점 100여곳의 정보와 함께 '중국어 가능 상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준다.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중국에서는 쉽게 살수 없었던 한국 로컬 상점의 물건을 중국 직구족에게 판매하는 O2O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자율車·AI·VR 등 미래 책임질 新동력…10년간 2.2조 투입

"이대론 안된다"…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주력 제조업 잠재성장률 4.4% 그쳐
반도체·車 13대 수출품 점유율도 감소세
정부 1.6조 투입…민간서 6152억 투자
고부가 산업구조 재편…저성장 극복
데이터 융합 SW·생명의료 시스템 교육
고용부, 신기술·신산업 인재 양성 박차

"이대로는 안 된다. 현재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지난달 21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단이다.

혁신이 사라진 한국경제는 저출산·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성장동력을 잃고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3분기째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4.4%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13대 수출품목의 점유율도 5.3%로 2011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흐름인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이유다.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과 수출 경쟁력의 하락을 고부가 산업구조 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극복해보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정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저출산·고령화','사회적 자본'과 함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그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정밀 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저감·대응 기술, 바이오신약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615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 예산안'을 발표하며 AI,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329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253억 원보다 46.4%가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도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만큼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전통 제조업과 ICT·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500만 개 일자리 사라져… 고숙련 인력양성 박차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 등에 따르면 2020년까지 거의 모든 직업의 절반 정도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에 영향을 받아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산업과 고용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그에 걸맞은 채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도 변화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 고숙련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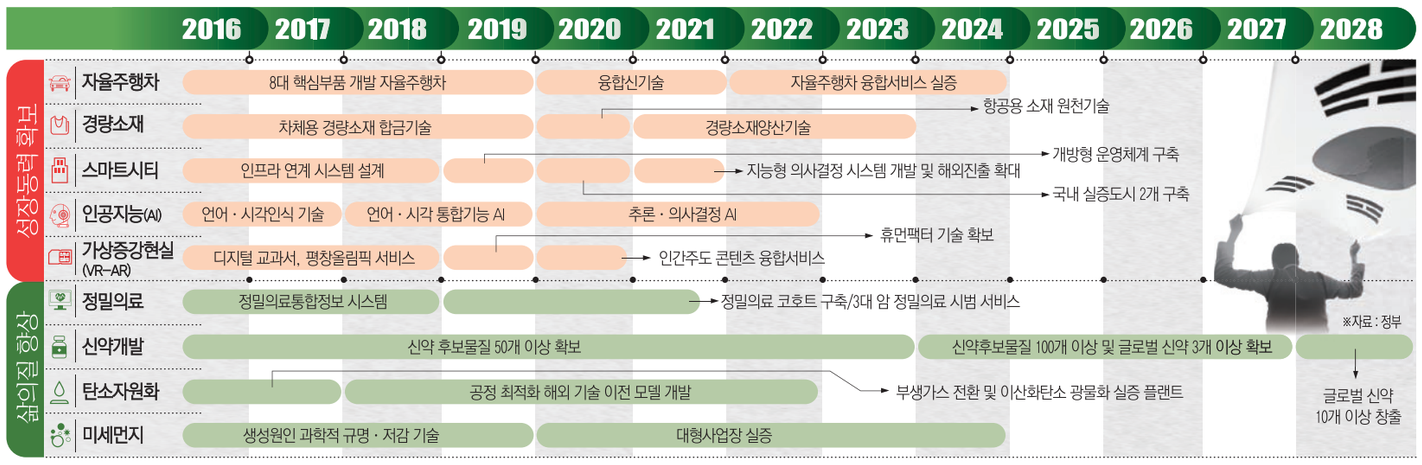
고용부는 데이터융합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생명의료시스템 등 4차 산업 대비 기술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업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현재 한국폴리텍대 융합기술교육원이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4차산업 기술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최근 민간의 신산업 투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신기술·신산업 교육'을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차산업에 필요한 선도 인력양성 신규사업과 제도 보완 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체계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로드맵





'산업혁신 지원정책' 머리 맞댄 정치권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인사포럼 정책토론회 '제4차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수학+정보' 교육도 융합…'알파고법' 만든다

핵심교과 연계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안
'규제프리존' 구축…해양·ICT산업 융합
노동 유연성 확보·산업혁신 큰그림 제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회에서도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달 17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안(알파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과학교육 진흥법이라는 법제명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과학'에서 '과학·수학·정보'로 넓혔다.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제공하는 핵심 교과 간의 연계·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알파고법 개정에 앞서 과학·수학·정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1967년에 만들어진 '과학교육 진흥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과 중학교 정보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강조해왔는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한국판 STEM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4차산업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전자정부 사업 등 관련 ICT 산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위축되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기술융합을 통한 산업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융합시장 형성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단기처방'이라고 언급하며, 근본 해결책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을 통해 '융합혁신 경제'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고 해양융합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해양산업과 ICT산업을 융합시킬 수 있는 융합마켓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O2O 기반의 평생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전략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전대미문의 기술혁명…강렬한 기회만큼 숙제도 버겁다”



“위기이자 기회”…글로벌 경제리더들도 주목

올해 초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Ma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올해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우리 실생활에 파고든 현실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WEF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생활과 업무 방식 등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혁명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4차 혁명은 각종 신기술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가상의 형태로 융합돼 모든 산업은 물론 경제와 질서와 규제,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바꾼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

차량 공유 ‘우버’·숙박 ‘에어비앤비’ 미래 아닌 실생활에 이미 파고들어

신기술 융합…경제질서·규제마저 바꿔

5년내 일자리 500만개 사라질 수도

결국 기술교육이 관건…도전 기회로

실제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이미 차량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놓으면서 완성차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도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 호텔 하나 없이 글로벌 호텔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3D 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 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자인 세바스찬 스런 부사장은 앞으로 기업은 물론 국가의 생존과 경제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4차 산업 혁명을 이해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런 부사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부분의 기존 산업들에 이런 혁명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이 급변하는 흐름에 맞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보스포럼 주최 측은 포럼 당시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전 세계에서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 창출되는 직업은 210만개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전체적으로 500만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허핑턴포스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던지기도 했다. 세계은행(WB)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과 융합이 세계 빈곤층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경제 리더들 역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바로 기술 교육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슈밥 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주는 기회가 강렬한 만큼 그것이 불러올 문제점 역시 벅차고 무겁다”면서 “4차 산업 혁명의 영향력과 효과에 적절하게 대비해 도전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승자독식” 세계 주요국 주도권 경쟁

美 ‘첨단제조’·日 ‘로봇 신전략’·獨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2025’ 천명…獨 벤치마킹 프로젝트는 달라도 목표는 “제조업 부흥”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일본은 ‘로봇 신전략’ 등으로 각각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육성에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하이테크 2020’ 계획 하에 ‘인더스트리 4.0’을 국가 프로젝트로 정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 독일을 벤치마킹해 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천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1년 6월 카네기멜론대 연설에서 IT와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 제조업 진흥을 위해 기업과 정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MP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5억 달러(약 5604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3년 9월에는 첨단제조업 부흥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AMP 2.0’을 시작했다. 기업 임원과 학계, 노동계 인사까지 총망라해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로봇 신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자국 로봇시장 규모를 2조4000억 엔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초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진흥을 위한 성장전략 사령탑이 될 ‘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해 아베 신조 총리 주재 하에 첫 회의를 열었다.

독일은 자국의 강점인 첨단 물류·생산설비에 사물인터넷(IoT)과 3D 프린터,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등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IT와 신소재, 항공우주 등 10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첨단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중국제조 2025’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같은해 9월 중국 정부는 23개 세부 프로젝트 등 청사진을 확립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지난달 2025년까지 약 40개 국가제조업혁신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퍼스트 무버’ 노리는 IT공룡

구글 vs 애플 ‘자율車’…MS, AI로 암 정복 나서

이종업종 투자·M&A…공동전선 구축 통신·가전·의식주 적용분야 기술개발 올인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제조업 시장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있고, 2010년 첫 무인자동차 주행에 성공한 바 있다. 포드와 볼보, 우버 등과 자율주행 연대를 결성한 구글은 2020년까지 무인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카에 맞서 애플도 2014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타이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최근 슈퍼카 업체인 맥라렌과 접촉하면서 애플카 또는 아이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플이 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경우 맥라렌의 축적된 자동차 기술력을 활용해 무인차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전 세계인에게 알려진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은 이미 의료와 금융, 유통 등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고객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향후 헬스케어와 무인차는 물론 통신과 가전, 의류와 요리 등 의식주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컴퓨터공학으로 암을 정복하는 데 나섰다. DNA를 이용한 분자컴퓨터가 암세포를 발견해 없앤다는 구상으로, 건강한 세포의 행동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를 죽은 세포와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향후 스마트기기로 인체를 모니터링해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치료한다는 목표다.

구글은 의료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나노기술을 이용해 의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애플도 전 세계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리서치킷을 선보였다. IBM 역시 왓슨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정보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파업·물류대란… 수출 비상구가 없다

8월 수출액 409억 달러… 20개월만에 반등하다 다시 하락세
車수출 24% 감소… '갤노트7 리콜' 영향 무선통신기기 28%↓
美금리인상·무역장벽 곳곳 지뢰밭…OPEC 감산 호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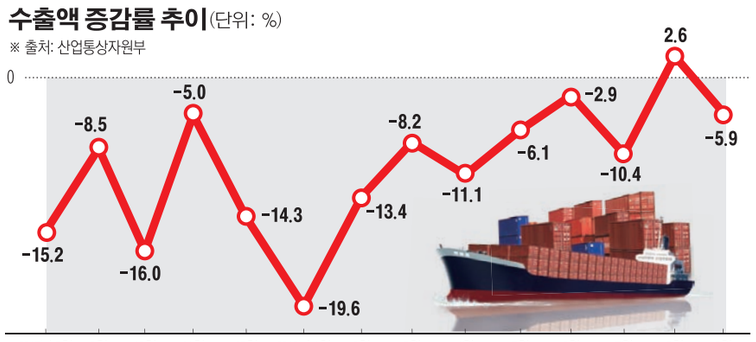
겨우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던 수출이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은 8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자동차 파업과 갤럭시노트7 리콜 쇼크에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4분기 수출에도 먹구름은 잔뜩 낀 상태다. 자동차 파업은 현재 진행형인 데다, 오는 12월 미국 금리인상, 세계 경기 부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까지 곳곳이 수출의 발목을 잡는 지뢰밭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별 수출액은 8월 들어 20개월 만에 2.6% 증가로 돌아섰지만 기나긴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도로 뒷걸음질했다.

수출 악화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직격탄이 됐다. 파업으로 인한 수출 감소폭은 2.6%포인트에 이르렀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벌인 자동차 수출은 작년보다 24%나 줄어 2009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갤럭시노트7 리콜로 타격을 입은 무선통신기기도 4년 2개월 만에 최대인 27.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 밖에 선박 인도 물량 감소, 조업일수 감소(0.5일), 한진해운 물류차질 등도 수출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만 3분기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줄어드는 데 그쳐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소 감소율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돼 10월 이후 수출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감산 합의가 유가 상승을 이끌어낼 경우 우리 수출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액 증감률 추이(단위: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자동차 파업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4분기 수출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10월 들어서도 현대차 노조 파업은 좀처럼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재가입을 거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검토 중이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자동차 파업뿐만 아니다. 철도노조에 이어 이번 주 화물연대가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 육로수송 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비상이 걸린 수출 기업은 수출 선적이 더욱 어려워져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경제 교역 저성장, 미국 금리인상, 무역장벽 등의 대외 불확실성도 수출입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변양균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최근 국제교역량 순환변동치의 하락세를 감안할 때 세계 교역량이 이른 시일 내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철도파업 2주… 운송 차질 이어져

열차 운행률 82%로 떨어져
수도권 전철은 10% 낮추기로
화물 확대 등 비상수송 돌입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여객과 화물 운송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 419명을 확보하고 복귀자 184명으로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류대란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2%로 급격히 떨어졌다. KTX는 100% 정상 운행했지만 수도권 전철의 경우 이날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 95.0%의 운행률을 보였다.

새마을·무궁화호는 63.6%, 화물열차는 43.2% 수준에 그쳤다. 파업 참가자는 7470명으로 40.8%의 참가율을 나타냈다.

코레일은 철도파업이 2주 차에 접어든 이날부터 KTX 정상운행을 유지하고 화물열차 운행을 확대하는 비상수송 계획을 시행한다. 각각 90%, 72.7%로 감축 예정이던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 대비 100% 정상 운행키로 했다.

반면 수도권 전철은 이미 투입된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에 따라 안전운행 조치 차원에서 운행률을 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92%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현행 60% 수준으로 운행한다.

30% 수준의 화물열차는 건설업계의 시멘트 수송 증가 요청과 수출입물량 등을 고려해 당초 75회에서 101회로 늘려 42%로 운행키로 했다.

특히 시멘트 수송열차를 현재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열차당 20량에서 30량으로 늘린다. 이로써 평시 수송량 대비 70% 수준(현재 41%)까지 끌어올려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컨테이너는 현재 22개에서 28개로 증회하고 화차편성도 열차당 파업 전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해 평시 수송량 대비 62% 수준(현재 54%)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사측은 중국의 국경절(10월 1~7일)에 따른 물량감소 현상으로 이번 주 수송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새누리 국감 복귀… 여야 핵심쟁점 맞대결 스타트

정무위 구조조정 질타
기재위 가계부채 추궁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접고 4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 각종 핵심쟁점을 놓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감에 여야 간의 본격적인 맞대결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슈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 등의 쟁점에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또 산은이 1조8951억 원의 순손실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에 직면한 이후 전액 반납키로 한 일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조양호 회장이 이날 오후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은 지난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1257조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8·25 대책'(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집값 상승 등의 추이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의가 엇갈렸다.

야당은 관련 상임위 국감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감에서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문제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8월 경상수지 흑자 55억 달러

54개월째 흑자행진 이어져

8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달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다만,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흑자행진은 54개월째로 연장되며 사상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55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전달(86억7000만달러)에 비해 57.3%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 107억 8000만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감소했다. 수출은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다. 선적운임 포함(FOB) 기준 수입은 3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2014년 9월 이후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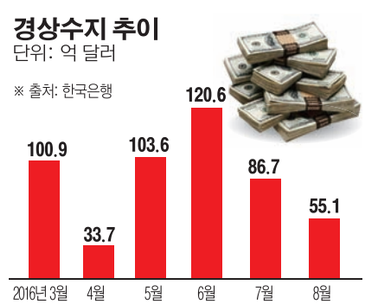
통관기준으로는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0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은 전년 동기 대비 93.8% 증가했고, 화공품과 철강제품도 각각 7.7%, 6.2%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과 디스플레이패널, 승용차는 각각 26.4%, 20.7%, 14.5%씩 줄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350억1000만 달러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원자재 수입이 5.2% 감소한 반면,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5.9%, 7.8% 증가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전월 15억3000만 달러에서 14억5000만 달러로 소폭 줄었다.

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수입의 경우 기계류, 정밀기기, 정보통신기기 쪽이 플러스를 보였다. 자본재 쪽 수입 증가가 국내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만큼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출처: 한국은행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국세청 거둬들인 27.4조 중 40%는 단순 체납정리분
관세청 확보한 3조3000억 30%는 관세 과다환급 액수

국세청과 관세청이 일반적인 세입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둔갑시켜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화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숫자를 끼워 맞춘 것인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최근 3년간(2013~2015년) 27조4493억 원의 세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5년간(2013~2107년) 양성화 목표액 18조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그러나 양성화 세입실적의 40%에 해당하는 10조8651억 원이 실제로는 단순 체납정리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2012년 양성화 세수 5조4762억 원까지 제외하면 현 정부에서 진행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11조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관세청의 사정도 비슷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양성화 실적은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단속활동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액(2조9120억 원)보다 3880억 원 많은 3조3000억 원을 확보,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중 30%가 넘는 1조2000억 원가량이 관세 과다환급을 적발해 걷은 세수로, 지하경제 양성화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를 과장해 발표하는 데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탓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김의중 기자 zerg@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1조 육박… '전문성 부족' 다시 도마위

최근 5년 수차례 소송 패소
"위법 혐의 적극적 대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다

4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7억 원이었던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액은 이듬해 28억9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사건 패소 등으로 240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가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져 254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고, 지난해 과징금 취소액은 3853억 원까지 치솟았다.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955억 원으로 1조 원 턱밑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3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과징금 취소액이 커진 데에는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080억 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다.

이외에도 올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취소 규모는 대형사건 패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과징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취소한 과징금은 이보다 다소 적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연결 그것은 해결

연결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믿는
SK텔레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동물은 물론
집안의 물건, 생활 속의 모든 미디어까지
더 가까이 연결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하고
일상의 수많은 문제는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통신을 넘어 생활, 미디어, IoT까지
더 크고 넓어진 SK텔레콤의 연결을 통해
삶의 기쁨도 놀라움도 늘어갈 것입니다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SK telecom

결국 마무리 수순…'롯데 수사' 모양만 빠진 檢

신동빈 영장 재청구 여부 이주 결정
비자금 혐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핵심은 못밝히고 4개월 '허송세월'
추가 증거자료 없인 재청구도 힘들듯



롯데그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신동빈(61·사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 등 1000억 원대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등 그룹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성과가 있었지만, 비자금 조성과 제2롯데월드 수사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번 주 내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국정감사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이나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등 수백억 원대 횡령은 물론,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은 혐의 사실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할 때까지만 해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제2롯데월드에 관해 조사한 적이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을 확인하면서 탄력을 받았던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 수사 역시 강현구(56)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 회장과의 연결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수사 초반 '비자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던 천억 원대 자금도 '실제 급여와 배당금'이라는 롯데 측 주장에 막혔고, 수백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는 실무를 맡았던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다.

현재로서는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롯데일가에 수백억 원대 급여를 부당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준 행위 등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깨트릴 증거를 보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6일간의 장고를 거듭했던 검찰로서는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하게 돼 부담도 큰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롯데 정책본부와 신 총괄회장 부자의 집무실은 물론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롯데홈쇼핑과 롯데피에스넷, 대흥기획 등 7곳을 수사선상에 올렸던 검찰은 불과 4일 뒤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롯데칠성음료 등 10여 곳을 추가로 뒤지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 등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3개 부서가 동원돼 전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지만,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일부 계열사의 혐의 사실만을 밝혀내는 데 그치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부자가 세금 더 안낸다 '서초세무소' 체납액 1위

서초 5326억…종로 4283억 뒤이어
10위권에 '강남'관할 절반이상 차지
부촌에 집중… '빈익빈 부익부' 심각

세금 체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촌(富村)으로 잘 알려진 서울 강남지역에 세금 체납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총 17조4136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서별로는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가 체납액 5326억 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는 체납액 4283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까지를 관할하는 역삼세무서(4247억 원)는 3위,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잡은 경기 용인세무서(4148억 원)는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신사동·압구정동·논현동·청담동에 걸친 강남세무서가 3965억 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세무서	2016년 1~6월 금액(억 원)	순위	세무서	2016년 1~6월 금액(억 원)	순위
서초	5,326	1위	남양주	3,404	9위
종로	4,283	2위	안산	3,202	10위
역삼	4,247	3위	평택	3,060	11위
용인	4,148	4위	화성	3,044	12위
강남	3,965	5위	시흥	2,963	13위
삼성	3,743	6위	부천	2,816	14위
반포	3,498	7위	수원	2,810	15위
남인천	3,495	8위			

이밖에도 삼성세무서(3743억 원·6위)와 반포세무서(3천498억원·7위) 등 체납발생 1~10위까지 서울 서초·강남구에 소재한 세무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상위 10개 세무서의 체납액을 합치면 3조 393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약 23%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전국 하위 10곳(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의 체납액은 총 1808억 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0% 내외다.

이 의원은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中 국경절…유커 구름떼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3일 인천국제공항 도착장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일까지 165만여명의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부하직원에 갑질…경찰 간부 3명 '좌천성' 인사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총경급 간부 1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최근 '갑질'로 물의를 빚은 간부 3명에 대해 대기 발령을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천범녕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장은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장으로 전보됐고, 현춘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은 같은 청 경무과에 대기발령됐다. 이원희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서울청 경무과로 대기발령됐다. 이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아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청 3기동단장 자리에는 엄성규 충북 음성서장이, 서울 방배서장에는 고진태 서울청 정보화장비과장이 각각 전보됐다.

이는 지난 8월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사회 곳곳의 '갑질'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 후 경찰 조직 내부부터 문제를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도박자금 친구돈 1억 빌려 꿀꺽 중소기업 대표 사기혐의로 실형

마카오에서 도박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홍콩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 VIP방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함께 여행 간 A씨에게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돈을 모두 잃자 A씨에게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보여주며 "인터넷뱅킹에 문제가 생겼으니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애초에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일시적인 장애 상황만 지나가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렸다"고 지적했다. 도박 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속해 박 씨가 빚을 갚지 않았다고도 봤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보이스피싱 피해액 연간 1000억 통장 빌려줬다 걸려도 징역 5년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 피해액이 연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검찰이 단순 가담자까지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을, 범행 주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상대 주요 재산·강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인용한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723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070억여 원에 달했다. 범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검거된 인원은 1만6180명에 달한다. 검찰은 수익을 분배하고 통장을 구하는 범행 주도자는 물론 콜센터 관리나 단순 현금인출, 통장양도 등의 단순 가담 행위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 주도자는 징역 10년을, 가담자에 대해서는 징역 5~7년을 기본으로 처벌 수위를 올려 구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

"대우건설 연내매각 없다"

연말 실적 확인후 매각작업해야 유리
이동걸 산은 회장 "내년초 공고낼 것"
주가상승엔 한계… 산은 손실 불가피

KDB산업은행이 내년 1월 대우건설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작업을 개시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대우건설 매각은 연내에 시작하기 어렵다"며 "내년 초에 공고를 내고 매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매각이 내년 초 예정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KDB밸류제6호 사모투자펀드(PEF)의 만기가 2017년 10월 도래하기 때문이다. 대형 매물의 경우 기업실사, 잠재 인수자 파악 등 매각 작업이 6~8개월 전부터 본격화되므로 절차상 내년에 매각 공고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올해 연말 대우건설 실적을 확인한 뒤 매각 작업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우건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산은이 매각을 서두를 경우 12월에 시작할 수 있지만 연말 실적이 나오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에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지난 2010년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단독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산은은 현재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KDB밸류제6호 PEF를 통해 구주 인수(주당 1만5000원) 및 유상증자 참여(주당 1만8000원) 등 총 3조2000억 원을 투입했다.

매각 공고까지 주가가 상승해도 한계가 있어 산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의 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해 6000원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동걸 회장은 "매각에 나서지 않고 내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면 주가가 더 하락해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 타이밍이 이르다는 말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산은이 비금융 자회사를 오래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은의 비금융 자회사 조기 매각 원칙을 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매각원칙도 매각가치 극대화에서 시장가치 매각으로 변경됐다.

현재 중동 아부다비 국부펀드, 중국 대기업그룹 2~3곳 등 해외에서도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연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기준에 해외 네트워크를 비중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

'불완전판매'의 불완전한 검사… '정태영 면책' 논란

금감원 "문제입증 근거부족" 징계 미뤄
현대카드 봐주기 의혹… 보상대책 촉구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가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 경고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대카드의 최고경영자인 정태영 부회장〈사진〉에 대한 면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에서 정 부회장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우선 책임을 서류상으로 입증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려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서류의 최종 결재자가 정 부회장이어야 했는데, 담당 임원이었다는 것이다.

수만 건으로 추정되는 리볼빙 불완전판매 사례를 일일이 검사할 수 없어 샘플링의 방법을 선택한 것도 CEO를 직접 제재하지 못한 이유가 됐다. 샘플링 작업으로 불완전판매를 모두 설명의무 위반으로 단정지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정 부회장을 중징계할 경우 자칫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수만 건의 불완전판매에도 포괄적인 책임을 가진 CEO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 징계 조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도 얘기가 분분하다"며 "정 부회장 입장에선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대차그룹 내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영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대카드 사장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이 현대카드 검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현대카드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희·박규준 기자 jhsseo@



KB국민銀, 지역아동센터 건립금 2억5000만원 기부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실에서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기부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 예정지인 고려인 마을은 약 1만 명의 외국인 주민과 2000여 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신조야 고려인마을 센터장, KB국민은행 박재균 광주·전남지역영업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대법원은 "안줘도 된다" vs 금감원은 "안주면 제재"

보험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난감하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놓고 미지급 보험사들의 금융감독원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KDB·현대라이프 등 6개사다. 이들 보험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민사상 지급 의무는 벗어났지만 금감원의 행정제재 압박 때문에 지급 여부를 눈치보고 있다.



민사상 지급의무 없지만 좌불안석
"대형사 결정 따르겠다" 눈치싸움

미지급사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 83억 원, KDB생명 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 65억 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한 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다. 이 와중에 미지급사였던 동부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27일,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소멸시효 경과된 자살보험금(12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서도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한 계약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미지급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위반을 적용,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들 보험사의 행태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만큼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마냥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만을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대로 지급을 안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금감원이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스탠스를 고려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해진다"며 "계속 금감원과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미지급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나온 만큼 원칙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것은 맞는데, 금감원과의 관계도 있고 이미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한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사로선 대형사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4대지주, 3분기 실적전망 '맑음'

순익 컨센서스 1조7396억 4.5% 증가

국내 주요 금융사의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계속된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비이자 부문의 고른 성장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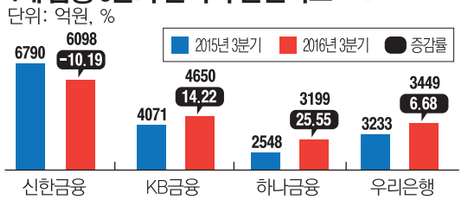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주주 귀속) 컨센서스는 1조73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6642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금융사의 호실적은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3분기 은행 평균 대출성장률은 1.5%로 2분기 1.6%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사별로는 신한금융을 제외한 3사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4대 금융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출처: 에프앤가이드
단위: 억원, %



KB금융의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4650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KB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캐피털 등 주요 계열사가 골고루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6월 하나은행의 옛 외환은행 전산시스템 통합 작업 이후 본격적인 '원 뱅크'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31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548억 원 대비 25.5% 증가했다. 하나금융의 증가폭은 4대 금융사 중 가장 크다.

우리은행은 지난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3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작년 3분기 3233억 원 대비 6.6% 증가한 3449억 원이다. 장효진 기자 js62@



도요타 뛰는데… 노조에 발목 잡힌 현대차

현대차 노조 "기본급 180만 원 올려라" 올 24차례 파업에 수출 회복세 찬물
도요타는 글로벌 경기 감안 '18만 원 인상' 노사 합의… 지속성장 토대 마련

강성노조에 비상등을 켠 현대자동차와 65년째 무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도요타의 '노조 리스크'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으로만 180만 원의 인금인상을 요구하며 24차례나 파업을 했지만, 도요타는 1만 8000엔(약 18만 원) 인상이라는 소폭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6조3579억 원)의 40%에 달하는 연간 2조5000억 원을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 규모를 지난해 8만5000원보다 약 두 배 늘려 달라는 얘기다.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기본급만 연간 182만 원이 오른다. 현대차 전체 조합원 숫자가 4만8585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리면 연간 900억 원 가까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성과급과 격려금만으로 평균 1000만 원이 상승되면서 전체 임금 인상 규모는 인당 약 1800만 원에 달한다. 각종 수당도 오르게 되면 현재 9700만 원인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총액 기준 1억 원을 돌파한다. 노조는 여기에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4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 1위를 기록한 도요타는 올해 월 기본급 1500엔(약 1만6000원) 인상에 그쳤다. 도요타는 올 1분기 연결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2%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000억 엔(약 29조5000억 원)을 기록, 당초 큰 폭의 임금인상이 예고됐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폭적인 인건비 인상을 자제했다.

도요타는 지난 1950년대 경영위기 때는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이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데 성공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받는 구조"라며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 국내 공장의 HPV(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투입된 근로시간)는 26.8시간으로, 미국 앨라배마공장 14.7시간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도요타 역시 19.5시간으로 현대차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4일 울산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교섭 시점과 파업 수위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결정하게 된다.

안철우 기자 acw@

서울 시내 면세점 신청 업체

※자료 : 각사



시내면세점 5파전 '강남 격돌'

부활 노리는 신동빈·최신원 '정지선·정몽규' '이부진·정유경' 친척 재벌 간 자존심 경쟁 주목

오늘 마감하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전이 5파전으로 압축됐다. 5곳 가운데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을 제외하고 포화생태인 강북을 피해 모두 강남권을 후보지로 선정하며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기업 몫의 티켓 3장을 거머쥐기 위해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신세계면세점 등 5곳이 뛰어들었다.

지난해 기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에 탈락하며 쓴잔을 마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이번 입찰을 대하는 각오가 절박하다. 신 회장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비자금 수사로 인해 소환 조사를 앞둔 최악의 시점에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특허 획득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롯데는 글로벌 1위 면세점 도약을 위한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강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강남관광벨트 조성' 계획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롯데 측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면세점은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관광객 유치 능력, 면세점 인프라 등을 강조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획득에 나선 SK네트웍스는 도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이라는 차별화에 나선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최근 워커힐 투자계획을 논의하는 이사회 자리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한류 관광쇼핑 모델을 만들어 반드시 특허를 획득하겠다"고 말했다.

재벌들의 자존심 전쟁도 3차 면세점 대전의 관전 포인트다. 5촌 관계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이종사촌 간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고배를 마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후보지로 내세웠다. DC신라면세점의 후보지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와 거리가 불과 500m에 불과해 정몽규 회장과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사장도 반포 센트럴시티를 후보지로 내세워 근접거리에서 경쟁을 벌인다. 이선애 기자 lsa@

"한 달에 6000원대" 알뜰폰 '착한 요금제'

CJ헬로 '월 6490원' 등 가격파괴

이동통신업계에 요금제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1만 원대 요금제에 이어 최저 6000원대까지 낮춘 요금제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1만 원대 요금제보다 더 싼 요금제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CJ헬로비전이다. CJ헬로비전은 다음 달 중에 통화 50분, 데이터 500MB를 주는 '조건 없는 유심(USIM·가입자 인증칩) LTE A'를 출시할 계획이다. 월 기본료는 불과 6490원으로, 이통사의 비슷한 요금제보다 60% 저렴하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중고 단말기를 소지한 가입자들이 초등학생 자녀뿐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가격이 싼 유심요금제를 가입시켜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올해 들어 CJ헬로비전에 가입하는 알뜰폰 고객 4명 중 1명은 유심요금제를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을 위탁판매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1만 원 이하의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LTE요금제 상품을 18개에서 24개로 크게 늘리고 요금제도 대폭 인하한 알뜰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위판 판매 중인 알뜰폰 사업자는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 이지모바일, 위너스텔, 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서경방송, 제주방송, 와이엘랜드 등 총 10개 업체다. 기존에는 데이터 700MB를 제공하는 상품은 기본료가 1만1860원이었으나 새로 출시하는 상품은 9900원으로 2000원가량 저렴하다.

이러한 가격파괴 효과에 힘입어 올 2분기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의 월 납부 요금은 966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3만6163원에 비해 73.3% 저렴한 것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

LCC 뛰어든 대구공항… 출혈경쟁 불가피

〈에어대구〉

청주·양양 등 지방공항 진출 잇따르며 과열경쟁 우려

청주, 양양 등 지방공항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대구공항도 가세했다. 최근 1~2개월 사이 국토교통부에 신규 항공사 설립 문의가 이들 공항을 포함해 5군데 이상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LCC 시장은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LCC 출범을 위한 법인 '에어대구'를 6월 10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금은 10억 원이며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목적은 △국내외항공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은 물론, 항공관련 의료업도 포함돼 있어 항공업 진출에 성공하면 향후 의료사업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주공항, 양양공항 등도 각각 지난 4월, 5월 LCC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청주공항은 5월 청주 흥덕구 오송읍에 'K에어항공'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설립 최종 자본금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양공항 역시 지난 4월 서울시 강서구에 자본금 3억 원으로 '플라이양양'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다만 플라이양양은 5월 9일부로 기존 사업 목적 중 △여행업 △항공권 판매 및 호텔 알선 대행업 등은 삭제하고 경영컨설팅업, 광고업 등만 남겨둬 LCC 시장 진출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처럼 국내 지방공항들이 LCC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향후 국토교통부가 이들 공항의 항공업 진출을 원활히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기존 6개 LCC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7번째 이상의 LCC가 설립될 경우 과열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첫 취항이 목표였던 에어서울의 국토부 승인은 계획보다 7개월이나 늦어졌으며 지난 1월 첫 취항을 계획했던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유스카이항공은 아예 국토부의 운항증명(AOC) 심사가 중단되면서 7월 더프라임 등에 매각됐다. 또 2005~2008년에도 10개가 넘는 LCC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5곳 이상이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SKT, 2030 위한 '밴드 YT 요금제'



SK텔레콤은 20·30대를 겨냥해 특정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밴드 YT 요금제'를 오는 5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밴드 YT 요금제는 월 3만8000원부터 7만1000원까지 총 5종의 세부 요금상품으로, 고객이 데이터 이용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이통3사 'USIM 뻥튀기 장사' 논란

구매원가 2배 가격 책정 4년간 7500억 매출 올려

이동통신 3사가 유심(USIM·가입자인증칩)의 판매가격을 구매원가 대비 최소 두 배 이상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USIM 개발부터 판매까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 가격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4년간 7500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 3899억 원, KT 2050억 원, LG유플러스 1609억 원 순이다.

현재 이통 3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USIM 1개당 매입원가는 4000원 이하로 전해졌다. 이를 이통 3사는 소비자들에게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내 USIM 가격은 높은 편이다. 스페인 모비스타(Movistar)와 영국 EE는 USIM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오렌지(Orange)는 4863원, 호주 텔스트라(Telstra)는 1681원 등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이통사의 USIM 가격 뻥튀기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8일 과천청사에서 미래부가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USI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인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통 3사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USIM 구매원가와 별개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USIM 개발에 투자비를 일부 지원하고 유통과 관리비용까지 고려하면 판매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미르·K스포츠 재단' 구설수 오른 전경련 허창수 회장 후임 인선도 '캄캄'… 어쩌나

위상 추락하며 후보자 물색 어려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관련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울러 내년 2월 허창수 회장의 임기 만료를 놓고 후임 회장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르·K스포츠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했으며 지난 7월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재단 해체 결정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K스포츠 이사진은 현재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전경련이 일방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야권에서는 전경련의 이러한 결정이 증거를 인멸하고 의혹을 감추려는 꼼수라고 성토하고 있다.

전경련이 연일 구설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전경련의 해체 압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뒤를 이을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허 회장은 3번이나 회장을 역임한 데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라 새로운 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는데 과연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이러한 문제들을 감수하고 바통을 넘겨받으려 할지 걱정된다"면서 "10대 기업 총수 중 일부는 검찰 수사, 집행유예, 본업에서의 문제 등 후보도 마땅치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중진그룹에서 물색할 수도 있겠지만, 무게감이 실리기 위해서는 그룹 규모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법원 "STX조선 패키지 매각 검토 중"

STX프랑스·고성조선해양 하나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 STX프랑스와 함께 하나로 묶여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외국계 호텔체인을 운영하는 업체가 매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안을 검토 중이다. 매수 희망 업체는 STX프랑스의 크루즈선 기술을 한국에 가져와 고성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3개사를 1개의 패키지로 매각하거나 동시에 각각 매각하는 방법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STX조선에 고성조선해양의 주식을 묶어 함께 판매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이지만, 따로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STX프랑스는 STX조선의 손자회사인 STX유럽이 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STX조선과 STX프랑스에 대해 분리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맛, 건강 다 가졌다

전지현의 이기적인 햄

CJ CHEILJEDANG

HEALTHY HAM & SAUSAGE
Since HEALTHY 2010
The 더건강한
FRESH & DELICIOUS

햄 & 소시지

HAM & SAUSAGE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것만!





5無첨가 : 합성아질산나트륨, 합성착향료, 합성보존료,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전분 무첨가

인터뷰 드론시장 도전장 내민 임현 유비파이 대표

"내년 중반이면 AI드론 하늘 날 것"

엔씨소프트로부터 48억 투자 유치
지난달 국내 첫 드론 레이싱 선발전
게임요소 등 조화…이달 공개 계획
국내외 무인화 사업 이끌어 나갈 것

사무실을 꽉 채운 드론 부품들과 시제품들, 그리고 시험 비행을 위해 천장 곳곳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들까지. 지난달 26일 방문한 드론 스타트업 유비파이의 서울 봉천동 사무실은 그야말로 '드론 연구소'를 방불케 했다.

이곳에서 만난 임현 유비파이 대표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박사 출신의 젊은 사업가다. 그는 실내외 자율 비행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드론을 연구했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들을 주축으로 2014년 유비파이를 설립했다.

"로봇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현실화하고 싶었다"는 임 대표는 창업 3년차인 올해 첫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이르면 이달 초, 늦어도 내달 초까지 레이싱 드론을 출시해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특정 드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해 반응을 보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SW) 패치로 완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싱 드론 출시는 유비파이가 올초부터 드론 SW를 개발하면서 함께 발전한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임 대표는 "AI 드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의 하드웨어 기술이 아깝다고 생각돼 제품화하기로 했다"며 "빠르고 급격한 기동이 필수인 레이싱 드론은 극한의 상황을 견뎌야 하는 만큼, 향후 AI 드론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비파이는 지난달 초 엔씨소프트, NC다이노스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 드론 레이싱 국가대표 선발전인 '2016 코리아 드론 내셔널즈'를 열고, 드론 레이싱 문화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월 유비파이에 48억 원을 투자하며 연을 맺은 파트너다. 임 대표는 "레이싱 드론은 게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디어, 드론 레이싱 기술, 게임 요소 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상업화를 할 수 있을지도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레이싱 드론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임 대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AI 드론'이다. 그가 목표한 공략의 시점은 내년 중순이다. 임 대표는 "아직까지는 일단 날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드론들이 많은데, 우리는 명령만 하면 알아서 움직이는 드론을 선보일 것"이라며 "내년 중순까지 AI 드론을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부터는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무인화 사업을 이끌고, 이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유비파이가 맡는 것이 궁극적인 나의 꿈이자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파이는 엔씨소프트 외에도 지난달 케이큐브벤처스로부터 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와 창업진흥원 '고급기술인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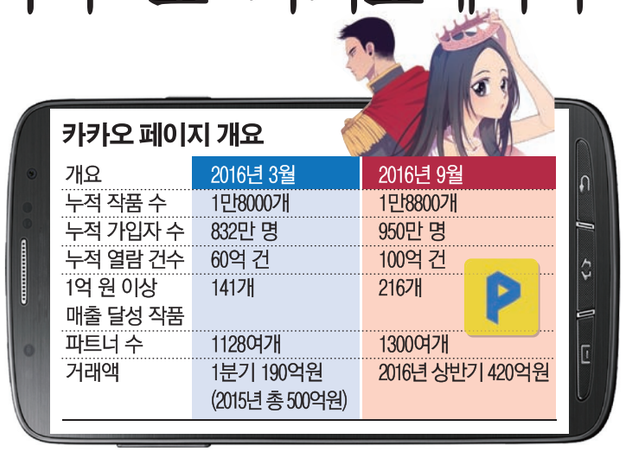
김정유 기자 thec98@



임현 유비파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첫 성과인 레이싱 드론을 출시하고, 내년 중순께에는 인공지능(AI) 드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봉천동 사무실에서 회사가 만든 레이싱 드론 시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모바일 특화하니…오~ 카카오페이지



웹소설·웹툰·출판만화 등 콘텐츠 인기 쑥…실적도 쑥
누적 가입자 1000만명 육박…올 거래액 1000억 눈앞

카카오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연 거래액 1000억 원이라는 깜짝 성과를 앞두고 있다. 가입자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시장 장악도 가속화되고 있다.

4일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지의 누적 가입자 수는 950만 명을 기록 중이다. 최근 반년 만에 118만 명이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가입자 1000만 명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누적 작품 수는 소설 1만 개, 만화 5500개, 일반도서 3300개 등 총 1만8800여 개로, 1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작품 만 6개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지는 올 1분기 190억 원, 2분기 330억 원으로 실적이 수직 상승하며, 올 상반기 총 420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액 5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카카오페이지의 성장은 웹소설과 웹툰, 출판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한 것이 적중했다는 평가다. 카카오페이지는 모바일에 특화된 유저 인터페이스는 물론 모바일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게 콘텐츠를 분절해 서비스한다. 작품 구독 후 일정 시간 후 다음 회차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유료화 모델도 카카오페이지의 특징이다

특히 새로운 흥행 공식으로 자리매김 한 '노블코믹스' 장르도 놀라운 성과를 견인했다. 노블코믹스는 검증된 소설 IP(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소설 원작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스토리 작가와 웹툰 작가가 분리돼 작품을 제작하는 것.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달빛 조각사'다. 웹소설은 434만 명, 웹툰은 108만 명이 각각 구독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지역에서의 흥행도 인기 상승에 기여 중이다. 국내에서 웹툰 100만 명, 웹소설 92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는 7월부터 텐센트의 포털 사이트 'QQ닷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이 작품은 일 유료차트 1위에 올랐으며 서비스 40일 만에 1억 뷰를 달성, 텐센트 만화 플랫폼 역사상 최단 기간 1억 뷰를 돌파했다. 특히 지난 달 20일에는 북미 웹툰·웹소설 플랫폼 '타파스'를 서비스하는 타파스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V20' 출시 이어 '갤노트7' 개통 재개…'아이폰7'·'루나2'도

스마트폰 기대작 봇물…바빠진 이통사

'갤럭시노트7' 개통 업무 재개에 이어 '아이폰7' 등 올 하반기 기대작들의 출시가 10월 본격화된다. 국내 이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말 LG전자의 V20 출시에 이어, 이달 1일부터 갤럭시노트7 신규 판매에 돌입했다. 여기에 애플 '아이폰7'과 TG앤컴퍼니 '루나2'(가칭)가 출격을 앞두고 있어,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 출시 초반인 만큼 번호이동 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다. V20이 출시됐던 지난달 29일 전체 번호이동은 1만5990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에 미치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V20 출시가 이통사 가입자 변동에 약간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은 큰 변화 기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갤럭시노트7 예약 판매가 재개된 지난달 28일에도 전체 번호이동은 1만4946건에 머물렀다. KT 가입자가 125명, LG유플러스 가입자가 107명 각각 순감했고, SK텔레콤 가입자가 232명 순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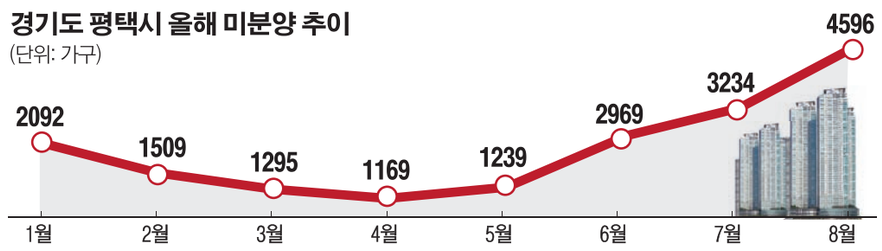
업계에선 갤럭시노트7 일반 판매가 재개됐고, 오는 21일께 아이폰7 국내 출시와 루나2 출시가 맞물리면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 현황

	SK telecom	kt	LG U+	총 번호이동(건)
9월 28일	232 순증	125 순감	107 순감	1만 4946
9월 29일	28 순감	36 순증	8 순감	1만 5990

※출처: 각 사

이통사들은 현재 공시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통해 갤럭시노트7을 통한 가입자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이통사별 최대 지원금은 LG유플러스 26만4000원, SK텔레콤 24만8000원, KT 24만7000원이다. 갤럭시노트7 예약 고객은 15일까지 개통하면 스마트밴드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몰 마일리지 쿠폰, 액정수리비용 50% 지원 등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구매자는 이달 31일까지 개통 시 기어핏2를 제외한 혜택을 받는다. 카드결합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도 나선다. 이통사들과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면 단말 가격을 36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미분양’ 먹구름 낀 평택

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에 공급 넘쳐
지난달 미분양 4596가구…경기 최다
연내에만 2840가구 추가 공급 예정
‘수서발 SRT 개통’ 호재 작용할 수도

경기도 평택시의 미분양 가구수가 악화되고 있다. 공급과잉에 빈집이 늘면서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이 용인에서 평택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평택시의 미분양 가구수는 전월보다 1462가구가 늘어난 총 4596가구를 기록했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가구에서 가장 많은 물량으로 무려 26%를 차지한다. 18%를 차지했던 전월보다 7%포인트가량 비중이 확대됐다.

평택이 용인을 제치고 가장 많은 미분양 가구수를 기록하게 된 건 지난 7월 동문건설이 분양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의 미분양 물량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동문건설은 7월 평택 신촌지구 A1블록에 852가구, A2블록에 1030가구, A4 블록에 921가구 등 총 2803가구의 대규모 단지를 공급했다. 이 중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은 지난달 기준 1907가구에 달한다. 평택시가 기존의 미분양 가구에서 한 달 새 500여 가구를 털어냈지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미분양이 더 발생한 것이다.

평택시의 이 같은 미분양 적체의 원인은 공급과잉이다. 지난해 1만2137가구가 풀렸던 평택에서는 올 들어서도 이달까지 1만1991가구가 새로 공급됐다. 올해 이 지역의 총 분양물량은 1만5000가구에 육박한다. 특히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각각 2800~4000가구가 쏟아졌고 시장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물량 적체가 심화됐다.

실제로 평택의 미분양 가구는 올해 상반기 초반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2092개의 미분양 가구로 시작한 평택은 △2월 1509가구 △3월 1295가구 △4월 1169가구로 점차 줄었지만, 5월 1239가구로 반등하기 시작해 △6월 2969가구 △7월 3234가구 △8월 4596가구로 점증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 호재가 예정되면서 신규공급에 과잉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다양하지만 조성 수준이 눈에 띄게 진행된 곳이 많지 않고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기에 아직 심리적 거리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평택에는 연내에만 2840가구가 더 공급된다. 변수가 없는 한 미분양 적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에 미분양이 증가했지만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연말 개통된다는 점과 앞으로 신규공급이 쉽지 않은 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미분양 관리지역’ 24곳… 2만4864가구 막차 탄다

심사강화… 당분간 신규공급 어려울 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예정된 분양물량 2만5000여가구가 막차를 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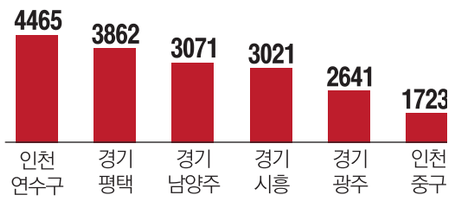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9일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선정하고, 10월부터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수도권 8곳, 지방 16곳이다. 세부적으로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이다.

정부는 미분양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심사는 오는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신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받게 된다. 특히 심사 후 양호 보통 미흡 등 3등급 중 미흡 등급을 받았을 경우 본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실상 공급억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신규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중 분양물량 예정 물량 상위 6개 지역 (단위: 가구, 2016년 10월~12월)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30개 단지에서 2만4864가구가 분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역별로는 경기도권이 1만2595가구에 달하며 인천지역에서 6188가구가 공급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준비 중인 곳은 인천 연수구로 4465가구가 올해 말까지 공급된다. 이어 경기 평택시에서 3862가구, 경기 남양주 3071가구, 경기 시흥시 3021가구, 경기 광주시 2641가구, 인천 중구 1723가구 등이다. 다만 이들 지역이 공급제재를 받는 것은 피해갔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꼽힌 만큼 분양흥행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이어졌다.

정경진 기자 jungkj@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0/4 (화)	계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 삼화팰리스 (~10/6)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신한헤센 (~10/6)
10/5 (수)	접수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 한강 아이파크 1순위**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호반베르디움(Ab-18 B/L) 1순위**
	발표	경북	김천시	신음동	김천신음지구삼도뷰엔빌W1단지
10/6 (목)	접수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1순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 한강 아이파크 2순위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호반베르디움(Ab-18 B/L) 2순위
10/7 (금)	오픈	서울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경기	광주시	태전동	힐스테이트태전2차(10단지)
		경기	안산시	사동	그랑시티자이1차(90-2 B/L)
		경기	용인시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경기	의왕시	학의동	의왕백운밸리효성해링턴플레이스(B)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10월 첫째 주 전국 26개 사업장에서 총 2만2348가구가 분양된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마포구 ‘마포 한강 아이파크’ 385가구(일반분양 202가구),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4932가구(일반분양 2010가구),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 뜰’ 759가구 등 1만7090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경북 구미시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 1260가구 등 총 525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15곳에서 개관된다.

주목! 이곳

안산 ‘그랑시티자이’

4283가구·최고 49층… 안산 랜드마크 아파트

아파트 3728가구·오피스텔 555실
단지 내 초·중·고교 ‘원스톱 교육환경’
신안산선 내년 착공 서울 접근성 개선

광화문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여 달리자 ‘그랑시티자이’가 들어설 안산시 사동 부지가 펼쳐진다. 지금은 황량한 모습이지만 몇 년 후면 안산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GS건설은 오는 10월 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7번지 일대에 들어설 ‘그랑시티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주거·상업·문화가 결합된 7628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도시로 들어서는 데다 안산 최고층, 최대 규모 등 상징성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그랑시티자이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번 1단계 사업은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6개동, 총 4283가구 규모로 이 중 아파트는 3728가구, 오피스텔은 555실로 구성돼 있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276가구 △72㎡ 170가구 △84㎡ 2809가구 △101㎡ 360가구를 비롯해 △68~95㎡의 T-HOUSE 100가구와 △125~140㎡의 PH-HOUSE 13가구 등 특색 있는 설계가 적용됐다. 아파트의 경우 최근 주택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27㎡ 100실 △54㎡(주거용) 455실로 구성돼 있다.


안산 ‘그랑시티자이’ 조감도.

특히 원스톱 교육환경은 그랑시티자이만의 장점이다. 단지 내 초대형 규모의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내 초·중·고교(90블록 2단계 부지 내 설립 계획)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안산 명문고로 꼽히는 자립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을뿐더러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도 가까이 있는 등 우수한 원스톱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안산의 굵직한 호재 중심에 있다는 점도 프리미엄 기대를 높이는 이유다. 우선 안산시의 교통혁신으로 불리는 신안산선 한양대역(계획, 가칭)이 단지 인근에 계획되어 있다. 신안산선(2017년 착공예정)은 안산~여의도를 잇는 복선전철로 2023년 개통(예정)되면 여의도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기존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할 경우 서울 남부권인 사당역까지 약 50분대로 걸리던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히 서울 서남부권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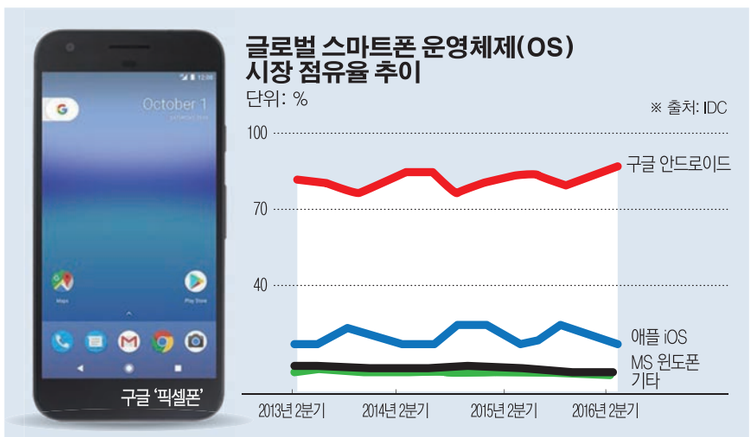
한편 그랑시티자이의 모델하우스는 사동 90블록 내 복합용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7번지)에 있으며, 정식 오픈에 앞서 분양홍보관을 마련해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홍보관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 1번 출구 방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2번지 남양빌딩 1층)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0년 2월 예정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OS 잡은 구글, 안드로이드폰 평정 나선다

애플·삼성과 경쟁 고가 스마트폰
5인치·5.5인치 '픽셀폰' 2종 발표
4GB·지문인식 센서 등 탑재
649달러로 아이폰7과 가격 비슷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시장 평정에 나선다.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확고히 장악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에도 뛰어들고 있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벤트를 열어 5인치와 5.5인치 '픽셀(Pixel)' 스마트폰 2종을 공개한다고 3일 CNN머니가 보도했다.

픽셀폰에 대해 구글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4일 기기 관련 발표를 한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 픽셀폰이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경쟁할 고가 스마트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IT전문매체 벤처비트닷컴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픽셀폰은 아이폰과 흡사하다.

CNN머니는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픽셀폰 생산을 전담하며 OS는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인 '누가(Nougat)'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픽셀 중 사이즈가 큰 모델은 픽셀XL로 명칭이 정해졌다. 사양과 관련해서는 4기가바이트(GB)의 램(RAM)과 12메가픽셀(MP)의 후면 카메라, 지문인식 센서 등이 탑재되고 방수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미국 IT전문매체들은 픽셀 가격은 649달러(약 72만 원)로 책정되고 5.5인치의 픽셀XL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4.7인치 아이폰7 32GB모델(649달러)과 맞먹는 가격이다. 메모리 용량은 32GB와 128GB이며 충전과 데이터 전송 용도로 USB C 포트를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픽셀폰 사용자들은 구글포토의 무료 저장공간과 메신저 '알로', 동영상 통화 앱 '듀오'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미 새 운영체제(OS)를 선보일 때마다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폰을 '넥서스'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넥서스폰은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은 아니어서 픽셀폰이 진정한 구글의 대표 안드로이드폰이 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장악했던 고급 안드로이드폰 시장에서도 일대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현재 삼성은 갤럭시노트 7 리콜 사태로 주춤한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달 중순 미국에서 4일 이벤트를 알리는 TV광고를 하고 관련 웹사이트(madeby.google.com)를 개설하는 등 픽셀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한편 4일 이벤트에서는 픽셀폰 외 콘텐츠 스트리밍 기기 크롬캐스트,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에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보인 구글홈의 새 버전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아마존 에코가 자체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Alexa)'로 인기를 끄는 것처럼 구글홈도 음성인식 기능을 갖춰 스마트 조명을 포함해 와이파이로 연결된 가정 내 각종 기기들을 조절할 수 있으며 캘린더와 음악, 알람 등을 쓸 수 있다.

구글홈 새 버전은 크기는 작아지고 색상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CNN머니는 내다봤다. 구글의 새 가상현실(VR) 플랫폼 '데이드림'을 장착한 기기가 이번 행사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글은 5월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日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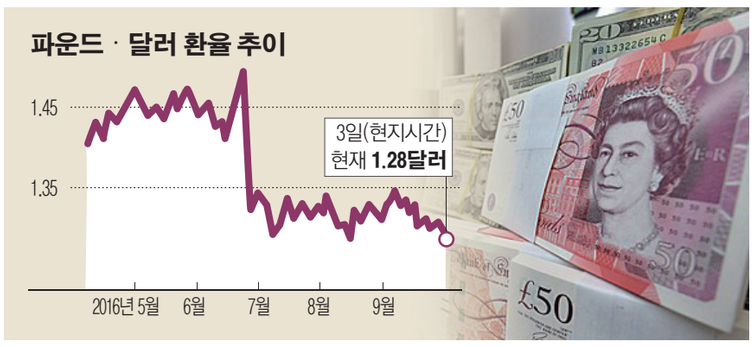


일본 주요 신문들은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식을 4일 일제히 1면에 대서특필했다. 일본은 올해까지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스미 교수는 오토 파지(자가포식)라는 생물현상을 규명해 파킨슨병 같은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英 '브렉시트' 시기 윤곽… 파운드 가치 곤두박질

〈내년 3월까지 EU와 협상 개시〉

단일시장 퇴출되면 무역 영향
파운드 가치 1.28달러대로
31년 만에 최저치 경신할 듯
경상수지·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시장선 "파운드화 더 추락할 것"



영국 파운드화의 날개 없는 추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보수당 대회에서 내년 3월까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파운드화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3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1.28달러대 초반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인 7월 초 기록한 3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네덜란드 금융 대기업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운드는 영국의 경상수지적자와 스코틀랜드의 독립 문제, 파운드의 기축 통화 지위 등 3가지 관점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파운드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영국이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 단일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작용한 탓이다.

현재 브렉시트 협상의 쟁점은 영국의 이민 제한 방법과 단일 시장 참여 지속 여부인데, 내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대선과 총선이 잇따라 치러질 예정이어서 협상이 정체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거세다.

또 중요한 건 영국이 어떤 탈퇴를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영국 내에서는 EU와의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엄격한 이민 제한과 국경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역내 무관세의 단일 시장 참여 지속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테리사 메이 총리는 BBC방송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이민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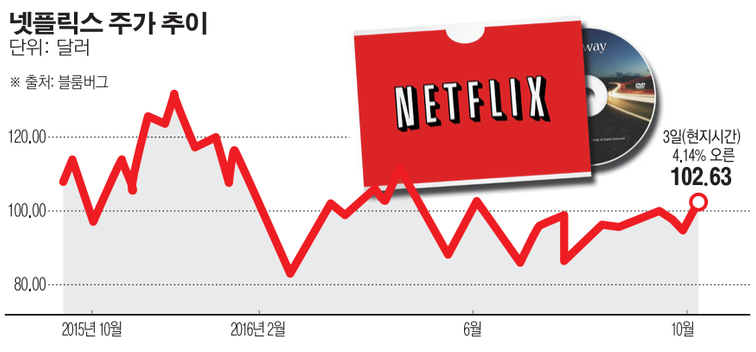
그러나 EU 측도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단일 시장에 남고 싶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좋은 것만 취하려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포를 놨다. 영국에만 혜택을 주면 '이동의 자유'라는 유럽 통합 이념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양보의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다.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 대립은 심각하다. 강경파의 선봉 격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EU 탈퇴담당 장관은 "단일 시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민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며 단일 시장에서의 퇴출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리암 폭스 국제무역 장관도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EU의 단일 시장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필립 해먼드 재무 장관은 "가능한 한 단일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넷플릭스 때아닌 매각설에 주가 껑충

애플·디즈니 우선협상자로 거론
장중 4.9%↑… 102.63달러 마감
업계 "매각 의향 없다" 선그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넷플릭스 주가가 때아닌 매각설에 급등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날 4.14% 뛴 102.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한때 4.9% 오르면서 5월 3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회사 매각설이 있었다. 최근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17일 실적 발표 전 매각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미 월가에서는 애플과 월트디즈니가 넷플릭스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며 우선협상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디즈니의 넷플릭스 인수 루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디즈니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등 일부 마블 유명 슈퍼히어로 시리즈물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마블 스튜디오의 최초 흑인 슈퍼히어로 시리즈 '루크 케이지(Luke Cage)'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디즈니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업체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전망도 넷플릭스 인수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디즈니의 주가는 최고 부진을 변치 못하고 있다. 올 들어 디즈니 주가는 12% 가까이 빠졌다. 이는 같은 기간 4.8% 오른 다우지수와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회사의 영화 사업부는 할리우드 업계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는 있지만 신통치 않은 TV 네트워크 사업부가 디즈니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디즈니가 ESPN 등 케이블 채널 사업 강화를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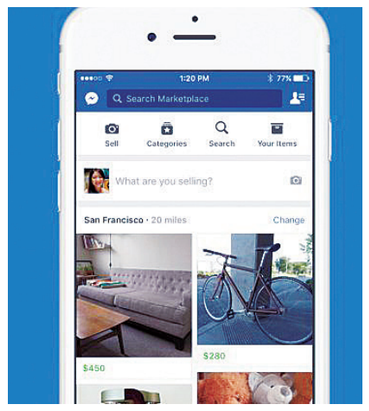
하지만, 미디어 업계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넷플릭스가 최근 유료 가입자 성장세가 주춤하다고 해서 회사를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넷플릭스는 아마존 등 경쟁업체의 공세로 신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니 위블 드렉셀해밀턴 애널리스트는 "이날 단순한 매각설이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지 넷플릭스는 한 번도 매각 의향을 보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페북, 벼룩시장 '마켓플레이스' 오픈

SNS 넘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美·英·加·뉴질랜드 4개국 서비스
이용 요금 없이 모바일서만 가능



페이스북이 3일(현지시간)부터 이용자들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SNS를 넘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이날 공식 블로그에 SNS 벼룩시장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미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해당 서비스가 우선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하단 중앙의 기존 메신저 아이콘이 당분간 마켓플레이스 아이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가 관심을 둘 만한 아이템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게 된다. 물건을 팔고 싶으면 이곳에 물품 사진과 가격을 올려놓으면 된다. 메신저를 통해 흥정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페이스북 친구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마켓플레이스 이용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 이용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며 이용자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그간 페이스북 가입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판매 물건을 사고팔아 왔다.

페이스북 측은 매월 4억5000만 명의 가입자가 매매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실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러한 매매 절차에 형식을 갖추고 매매 활동을 서비스의 하나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CNN머니는 페이스북이 미국 유명 중고 거래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와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eBay)와의 경쟁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간 직접 물품 사고팔기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점차 전자상거래 분야에 깊숙이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도요타, 3만엔대 가정용 로봇시장 진출

손바닥 크기 '키로보 미니' 공개
5세 수준 인공지능·안면인식도


도요타가 개발한 가정용 로봇 '키로보 미니(Kirobo Mini)'. 도요타 웹사이트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자동차가 가정용 로봇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도요타는 가격이 3만9800엔(약 43만 원)인 미니로봇 '키로보 미니(Kirobo Mini)'를 공개했으며 내년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10cm 높이의 작은 로봇인 키로보 미니는 5세 수준의 인공지능(AI)으로 문장을 학습할 수 있으며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안면도 인식할 수 있다.

도요타가 이처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 건 일본 자동차시장이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인 운전자의 증가, 젊은 세대의 차량 보유에 대한 흥미 퇴색 등으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설명했다.

키로보 프로젝트 책임자인 가타오카 후미노리는 "이 제품은 사람들이 도요타를 좋아하거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우리의 커넥티드 차량에 익숙해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소니에서 분사한 PC업체 바이오(Vaio)와 손을 잡았다. 바이오는 도요타가 처음으로 양산할 로봇인 키로보 미니의 생산을 전담한다. 이미 바이오의 나가노 현 공장은 이전에 소니가 개발한 로봇 개 '아이보(Aibo)'도 생산한 이력이 있다.

손바닥 크기의 키로보 미니는 사용자가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 차량 안에 놓으면 운전자가 급제동을 할 때 소리를 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 기념주화

88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대비 **1/17 수준의 적은 발행량**

순도 99.9% 순금 및 순은 사용

해외 반응 - "가장 한국적이며 **올림픽다운 기념주화**"

최대 발행량의 **30% 해외 배정량 주문완료**

PyeongChang 2018™

| 기념주화 시세변동 비교표 |

상 품	발 행 가	현 시 세	증 감 율
1993 대전엑스포 6종 세트	950,000원	3,190,000원	약 3.4배 증가 ↑
2002 한일월드컵 6종 세트	1,300,000원	3,190,000원	약 2.5배 증가 ↑
2002 부산아시안게임 6종 세트	1,440,000원	4,950,000원	약 3.4배 증가 ↑







은화 8종 세트

판매가격 : **49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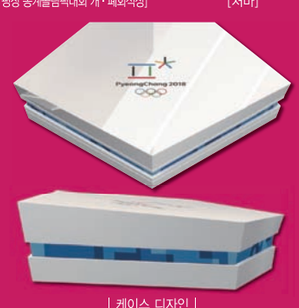
금 · 은 · 황동화 10종 세트

판매가격 : **2,038,000**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처마]



| 케이스 디자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의 5각형 모양과 한옥의 처마를 형상화하여 한국의 미(美)를 표현하였습니다.



금 · 은 · 황동화 전화종 11종 세트

판매가격: **4,998,000**원



황동화 1,000원화

판매가격 : **22,000**원



은화 5,000원화

판매가격 : 각 **62,000**원



금화 20,000원화

판매가격 : **1,520,000**원



금화 30,000원화

판매가격: **2,960,000**원





금화 30,000원화 (고로쇠 썰매)
대한민국/30,000원/2016년/金 99.9%/31.10g/35mm/프루프
최대발행량: 4,500장



금화 20,000원화 (알펜시아 스타디움)
대한민국/20,000원/2016년/金 99.9%/15.55g/28mm/프루프
최대발행량: 15,000장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은화 I) 스피드 스케이팅 (은화 II)



봅슬레이 (은화III) 알파인 스키 (은화IV)



컬링 (은화V) 아이스하키 (은화VI)



루지 (은화VII) 바이애슬론 (은화VIII)

은화 5,000원화
공통(8): 대한민국/5,000원/2016년/銀 99.9%/15.55g/33mm/프루프
최대발행량: 200,000장(8종합계)



황동화 1,000원화 (올림픽 대표 7개 종목)
대한민국/1,000원/2016년/구리 65%, 아연 35%/26.00g/40mm/프루프
최대발행량: 71,000장

공통뒷면 / 실물크기



| 구입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10월 7일(금)까지** 선착순 예약접수
- 신청장소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국 지점 및 풍산화동양행
- 신청방법 : 예약접수처에 비치된 구입신청서를 기재하신 후 대금을 납부하시면 주화교환증을 드립니다.

VISA 긴 시간 올림픽을 후원해 온 Visa, 올림픽에서 쓰이는 단 하나의 카드입니다.

| 주화 교환 방법 |

- 교환기간 : 2016. 12. 5.(월) ~ 12. 9.(금)
- 교환방법 : 구입 신청하신 장소에서 주화교환증과 기념주화를 교환해 드립니다.

| 선착순 예약접수 |

10월 7일(금) 까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발행 _ 한국은행 제조 _ 한국조폐공사

| 문의 및 판매대행사 |
풍산화동양행 Tel. 02)3471-4586/7 www.hwadong.com

| 예약접수처 |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우 체 국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국 지점 -

- 풍산화동양행

OFFICIAL PyeongChang 2018 Product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공식 앰블럼과 마스코트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은 모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있습니다.

위기탈출 해법은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청년 실업률 등 주요 지표는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파산과 신용등급 강등 등 산업의 근간인 기업경제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은 정체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쁜 지표를 외면하고 좋은 지표만을 활용, 기대 섞인 전망만 내놓고 있어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무엇보다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때다.

이투데이는 창립 10주년, 오프라인 창간 6주년을 맞아 △기업 구조조정 △산업구조 개편 △고용 △수출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 등 주요 8대 분야 이슈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의 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철강·석유화학 선제 구조조정 시장 중심·한국판 뉴딜 모색을"

1 기업 구조조정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다음 순서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돼야 한다"고 꼽았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논리다.

오 연구위원은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기술 분야는 중국이나 후발국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범용기술은 바짝 추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워낙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기술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는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 부실이 커지면 두 가지에서 징후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런 지표를 갖고 임계치가 넘어서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전문성이 부족하든지, 주채권은행이 안일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관계 기관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 안 하려고 미룬다든지 하는 문제들 때문에 곪을 대로 곪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진해운만 해도 2011년 글로벌 경제가 변화하고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경쟁력 없는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웠더라면 지금처럼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제시하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끌고 나갈 때 성공적으로 노동계의 저항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정부 '신산업 주도' 생각 바꿔야 민간 지원 틀 만드는 것이 중요"

2 산업구조 재편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하이테크 분야의 육성'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에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국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중국 쪽에 많이 따라잡혔다"면서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는 범용차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기술력이 높은 하이테크 부분을 성장시키고 로우테크 부분을 버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냉정하게 벤츠와 현대차를 비교했을 때 기술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한진해운을 볼 때 "한진해운을 살린다면 결국에는 '대마불사'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큰 기업은 못 죽이고 계속 국책은행을 통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해운을 살리고 조선업을 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조 연구원은 또 "정부가 어떤 산업을 과거처럼 키우고 육성정책을 펴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3D프린팅이나 로봇산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시각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이들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나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걸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장에 나와서 상품화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신기술을 개발해도 어떻게 제품화할지 모르는 만큼 기업과 연결해주는 산학협력의 틀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중 기자 zerg@

"저가 납품경쟁에 인건비 바닥 中企 경쟁력 키워야 실업해결"

3 고용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금 산업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리가 필요하다. 강소기업이 기술력을 축적해야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청년실업과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이처럼 조언했다. 숲에도 작은 나무들만 빽빽하면 큰 나무가 못 자라듯 자율시장 경쟁체제에서 기업 간 거리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착취적인 원·하청 관계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변하지 않는데, 대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게 과제다. 하나의 대기업에 중소기업 수천 개가 붙는데, 2~3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이 가만히 있어도 서로 더 싸게 납품하겠다고 몰린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인건비 경쟁을 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을 둘러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다.

이런 구조로는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열등경쟁이 계속된다. 어린아이 키우듯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어 수월성 경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 원장은 이렇게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 남아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저마진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탄탄한 강소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는 실업자가 돼 재취업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은 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수요가 생기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현행 제조업 원·하청 생산방식은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구조다. 당장은 어려워도 중소기업을 키우고 도태된 곳은 세재 혜택 등 세컨드찬스를 주는 기업부활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 명품화' 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키워야"

4 수출

김극수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방향성에 대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이렇게 조언했다. 이제는 수출 주력 상품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과거처럼 양적인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양적성장보다는 부가가치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 부가가치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OECD의 무역 부가가치 통계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미국 85%, 독일 74.5%, 일본 85.3%, 중국 67.3%인 반면에 우리는 58.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건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를 높이려면 수출 자체의 명품화가 필요하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어느 분야든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추구해야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술력과 경험, 디자인, 연구개발(R&D) 등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세계 시장에서 13개 주력 품목은 여전히 핵심이고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 수출을 늘리려면 이 부분을 잘하는 게 첫 번째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돼 시장 확대가 쉽지만은 않다"며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5대 유망 소비재가 중요하다.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류, 위생용품 등의 소비재는 중화학 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와 문화콘텐츠 산업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기존 제조업에 스마트를 입히고 애프터서비스와 솔루션이 같이 가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향후 5년 출산 늘릴 골든타임 좀더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5 저출산·고령화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향후 5년이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실질성장률이 2056~2060년에 1.0%대로 떨어지게 된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재정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나라 곳간을 잠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백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인 현재 시점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합계출산율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가계 살림에서 일상적인 지출과 긴급한 지출이 있을 때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긴급한 지출을 하거나,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 일단 긴급한 곳에 투입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출을 늘려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됐을 때의 사회적인 비용보다 적을 것입니다."

백 교수는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15년 현재 25~34세 가임여성 인구가 반 토막 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세대(2045년)라며, 올해 출산율이 한 세대 후인 2046년 전후의 출생아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임여성 수가 320만 명대로 유지되는 향후 10년간의 적극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택난, 취업난, 입시 경쟁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 대해 백 교수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인구 감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불행하게도 인구 감소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에서 멈추지 않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며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인 문제여서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부동산 구조상 전세난 못막아 월세 정착 위해 제도화 나서야"

6 부동산

이상영 명지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구조에서는 전세난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구조가 바뀌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나타난 장기적 현상"이라며 "전세가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 변화를 인정하고 연착륙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연착륙은 전세가 오른 부분 중에 자금력 있는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월세 부담이 가지 않게 월세 전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장기적 처방보다 구조 변화에 대응해 월세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정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장기적으로 택지공급을 반으로 줄이는 것인데,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주택시장이 오히려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택지 공급을 줄이는 것은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다"면서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관심이 높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형 임대 주택이라는 게 없었다"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임대사업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돼 제도권에 진입할 것이다. 지금은 개인 간 거래로 해서 미등록 상태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하경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러 그렇게 부양한다는 관점보다는 이미 시장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는 것"이라며 "다만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규제해야 하고, 일부 지역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가계부채 관리가능 수준 넘어 가처분 소득 늘려야 경기 살아"

7 가계부채

김상조 한성대 교수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154%이던 것이 최근 170%로 치솟았다. 빚이 가처분소득보다 1.7배 많다는 뜻이다. 금리 인상 시 생계형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가계부채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절반 미만이겠으나, 10% 확률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발생한다"며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놓는 데 대한 일침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률에 무게 중심을 둬 단기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며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등에는 상대적으로 안일한 정책 기조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당장 경제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게 되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가 당장 위기 상황을 초래하진 않지만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내수 침체로 경제 전체의 순환과 성장을 짓누르고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1300조 원을 넘으면서 총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김 교수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를 줄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이상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시장·기업 리스크 관리해야"

8 금융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국내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가장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전이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 몇 개월 안에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오버슈팅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정부가 안정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를 막는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한데, 각종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에 대출해줘도 위험하고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줘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개혁 방향과 관련해 "핀테크 등 정책은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미래 금융의 한 형태이고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5년 안에 금융산업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관행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확신 없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다만 향후 IT(전자기술)가 결합된 미래성장 산업인 만큼, 미리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방향성을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1588-0037

KDIC 신뢰로 쌓아온 역사 혁신을 만드는 미래 예금보험공사 20주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금융개혁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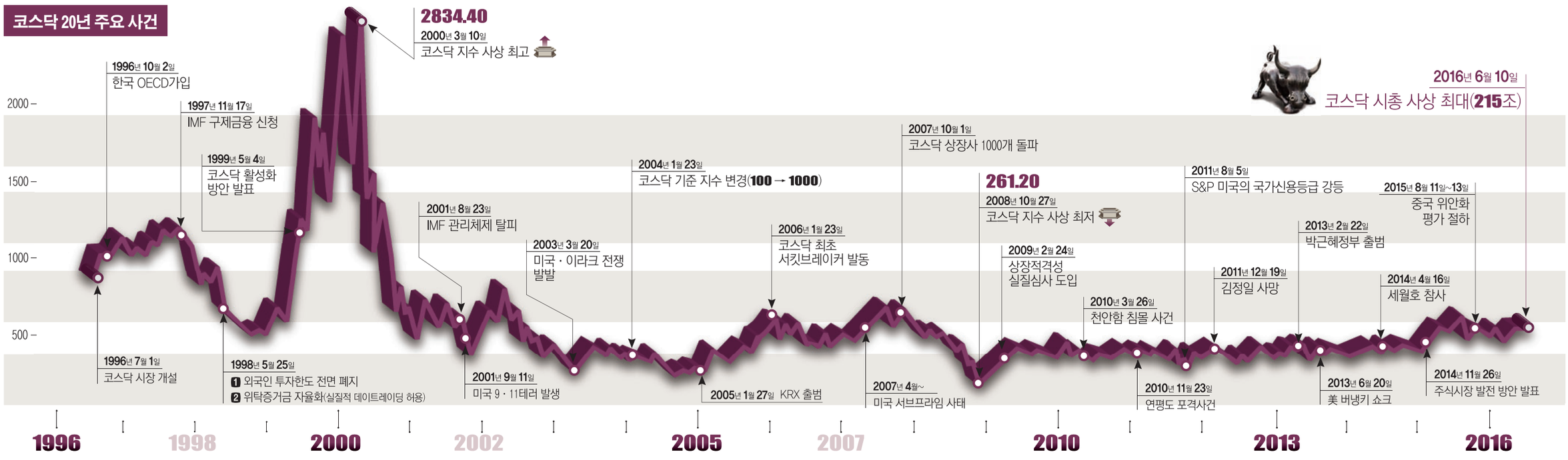
당신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지킵니다

꿈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예금!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켜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있어 언제나 안심입니다.

'16.6.23일부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이제는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호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하신 후 가입하세요.

예금자보호,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보호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2.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
3. 보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종금사!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닷컴’에 흥했다 ‘비리’에 추락… 체질개선으로 다시 난다

1996년 시총 7조, 지난해 206조로
중기·벤처 자금조달 창구 자리매김

벤처 붐 타고 2000년 지수 ‘2843’
골드뱅크 4525%·새롬기술 150배↑
버블 꺼지고… 2008년 261까지 뚝

심사 강화… 상장사 ‘옥석고르기’
미래 성장형 산업 발굴·육성 기여
경제 흐름따라 상위 기업도 바뀌어

코스닥 시장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을 벤치마킹해 1996년 출범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세계 주요 신(新)시장 중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성장했다.

◇**코스닥 양질의 성장** = 코스닥 시장은 ‘한국판 나스닥’으로 성장했다. 지난 1996년 상장기업 343사, 시가총액 7조 원으로 개설된 코스닥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올해 상반기 기준 상장기업수는 1168사, 시가총액은 206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시총 규모 역시 30배가량 큰 폭으로 커졌다. 글로벌 신시장 중 시총 기준 나스닥과 중국 차이넥스트(Chi-Next)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설 이후 자금조달 규모가 47조9000억 원에 달하며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지원과 인큐베이터 역할이라는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8년 4437억 원이었던 자금조달 규모는 약 6.7배 늘어나 지난해 3조 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 상승률 역시 25.7%에 달하며 글로벌 신시장 중 중국 차이넥스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시장의 성장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도 크게 늘었다. 글로벌 IPO 시장 침체에도 코스닥시장은 작년 122사의 IPO를 이뤄내며 해외 주요 신시장 중 나스닥(275사)에 이어 2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기관과 외국인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기관 1711억 원, 외국인 19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 67% 증가했다.

◇**‘닷컴버블’에 고공행진… 상장사 횡령에 붕괴** = 코스닥 시장은 IT벤처붐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1999년 들어 코스닥 시장은 인터넷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IT·벤처기업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활황 장세를 맞았다. ‘닷컴버블’에 코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10일 2834.40으로 사상 최대 지수를 기록했다.

당시 IT기업인 골드뱅크는 1998년 코스닥에 입성한 뒤 7개월 만에 주가가 800원에서 3만7000원까지 오르며 무려 4525% 급등했다. 인터넷 무료전화 사업자인 새롬기술 역시 1999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6개월 만에 주가가 150배 오르고 시총이 한때 5조 원을 넘는 등 고성장을 했다.

닷컴버블에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으나 이내 버블이 꺼지며 코스닥 시장은 불황을 맞게 된다.

이에 더해 코스닥 시장은 2001년 코스닥 상장사 일부 경영진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악재가 겹치며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는다. 코스닥 지수는 2001년 말 722.10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08년 10월 27일에는 사상 최저치인 261.2까지 떨어졌다.

◇**코스닥, 체질 개선 나서** =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건전성 개선과 상장법인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시장에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 공시위반, 횡령·배임 등에 대산 감시를 늘렸다. 이에 관리종목·공시위반·횡령배임이 2011년 203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무려 52.7%나 감소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대신 심사를 강화해 신규 상장을 늘린 점도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상장사는 427개사인데 반해 상장폐지사는 261개사로 상장사의 4분의 1이 물갈이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극적 시장관리로 벤처버블 시기에 비해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재무실적도 대폭 개선됐다. 작년 기준 상장법인의 평균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규모는 2005년 대비 각각 54%, 428%, 116%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이 같은 신뢰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 결과 다시금 활황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2014년 코스닥지수는 550선을 돌파하기 시작해 지난해 2월 600선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에 700선을 돌파했다. 같은 해 7월 20일에 코스닥지수는 782.64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 경제 패러다임 변화 선도** = 코스닥 시장은 미래 성장형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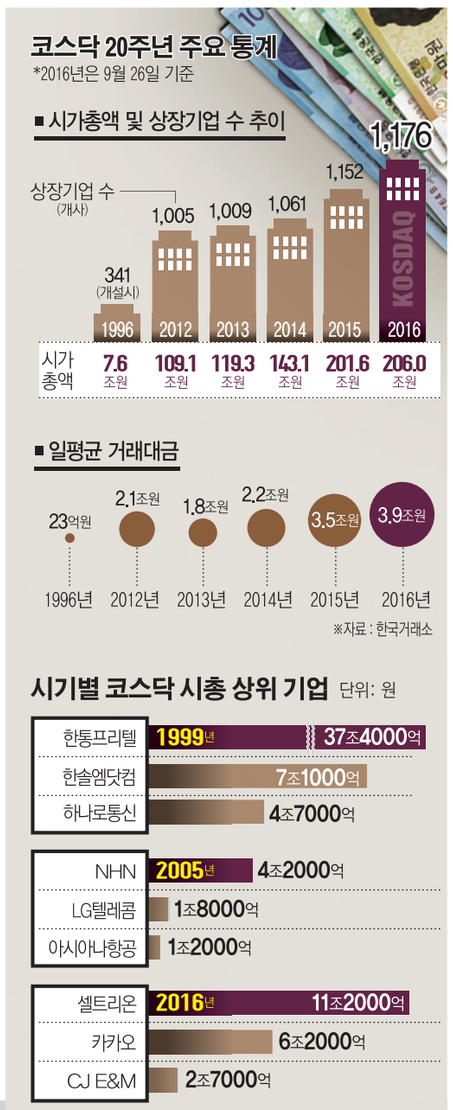
시총 상위 기업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에서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시총 상위 기업에는 △한통프리텔(시총 37조4000억 원) △한솔엠닷컴(7조1000억 원) △하나로통신(4조7000억 원) 등이 있었으나 2005년에는 △NHN(4조2000억 원) △LG텔레콤(1조8000억 원) △아시아나항공(1조2000억 원)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황우석 줄기세포’ 이슈로 인해 바이오주들이 버블닷컴 당시 관련 주식들처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일례로 조아제약은 주가가 저점 대비 4144%나 폭등하기도 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셀트리온(11조 원) △카카오(6조2000억 원) △CJ E&M(2조7000억 원) 등이 시총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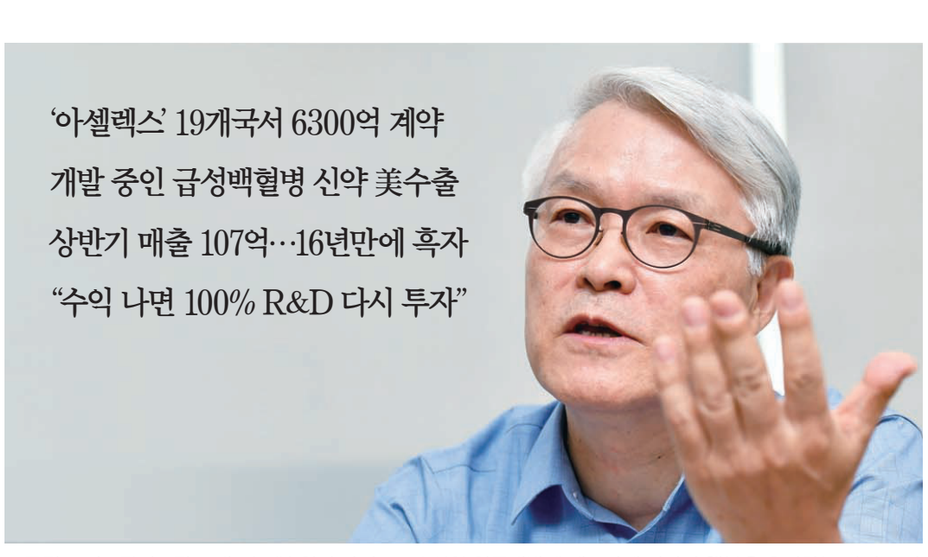
코스닥 시장은 모험자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덩치는 작아도 내실있는 기업의 도약을 위해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창업지원센터를 출범해 크라우드펀딩에서 사적시장,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상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기술특례 상장기업 1호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회장**

오직 ‘연구개발’ 정진, 올해 9800억 기술수출… “바이오 벤처기업 성공모델 되겠다”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는 “수익이 나면 100%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바이오 기술을 만들어 내겠다”며 당찬 포부를 나타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구상에 없는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만 몰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신약 허가를 받았고, 올 초 19개국 공급 계약 후 현재까지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회장은 22일 경기 판교 본사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의 해외 기술수출 계약은 수년간 신약 R&D(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조유전체학 기반 신약 개발업체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지난 1월 소염진통제 아셀렉스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터키를 포함한 중동, 북아프리카 권역의 19개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총 63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동아에스티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아셀렉스는 지난해 전 세계 3조 원의 매출을 올린 쎄레브렉스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판매액을 올렸다. 특히 200mg를 사용하는 쎄레브렉스에 비해 2mg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나타내 관심을 끈다.

6월에는 미국 바이오벤처사인 앱토즈 바이오사이언스에 전임상 개발 중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후보물질(CG026806)에 대해 3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임상도 안 마친 물질의 수출 계약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급성백혈병 신약 후보물질의 계약 규모는 3억300만 달러로 지난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라며 “벤처기업도 빅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아직 성공 모델은 아니다. 성공 모델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내년에도 최대 2건 이상의 기술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라이선스 아웃 후보 물질은 암세포 특이 분자 표적 항암제(CG200745)와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CG400549)다.

분자 표적 항암제는 2개의 질환 표적을 동시에 저해하는 유일한 치료제로 내년 하반기나 2018년 초 임상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멸 항생제는 현재 임상 2a상이 완료됐다. 약효 증명을 세계 최초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알츠하이머 후보물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암, 비만, 파킨슨병, 대머리 등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 많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알츠하이머 후보물질은 개발 단계부터 라이선스하겠다는 다국적 회사가 세 곳이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조 회장은 “구조 규명을 통한 신약 발굴 과제는 아주 많다. 전 세계 6조 원 규모의 빈혈 치료제도 선점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빈혈 치료는 주사를 통해서만 치료되는데 입으로 먹는 약을 개발하면 가격도 싸고 환자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노력은 정부를 움직였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에 선정됐다. 신약 제품 개발에 1년간 7억500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는다. 현재 진행 중인 3가지 임상 개발도 100%는 아니지만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전 세계 제약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약 1104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신약R&D 투자 지원은 향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엔(UN)본부가 21일(현지시간)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서 항생제 문제의 국제 공조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1년에 슈퍼 박테리아로 2만3000명이 죽는다고 한다.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암으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은 수치다”며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게 바이오 기술이다. 이는 인류가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으로 시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107억 원, 영업이익 1억5925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0년 7월 회사 설립 이후 16년 만에 첫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16년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 기조로 돌아선 조 회장은 여전히 “수익이 나면 100% 신약R&D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내년부터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한 해 전체 운영비가 120억 원인데 그중 순연구 개발비가 70억원 내외이다. 혁신가치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회사의 신조다. 수익이 나면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나머지는 신약R&D에 재투자할 것이다. 성공하면 고성장 기업가치가 증명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YG·SM이 아이돌 키우듯 '조석' 같은 웹툰작가 양성할 것"

젊음의 거리인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 미스터블루라는 간판이 눈에 띈다. 이곳 3층에는 20여 명의 젊은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미스터블루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블루캠퍼스의 모습이다. 네이버 웹툰이 '베스트 도전'이라는 코너를 통해 스타를 양성하는 것처럼 내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갖추자는 것이다.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최근 '블루 캠퍼스'라는 시나리오·웹툰 작가 사내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응모 단계에서만 150명 이상이 참여해 웹툰의 높은 관심을 다시 실감했다죠." 조승진〈사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의 얘기다.



웹툰 플랫폼 전문기업 미스터블루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블루캠퍼스'에 소속된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디지털 작업을 통해 만화를 그리고 있다.

'웹툰기업 첫 코스닥 상장' 미스터블루 조승진 대표

사내 작가 육성하는 '블루캠퍼스'
무협작가 야설록이 시나리오 자문
만화포털 14년째…작년 코스닥 입성
회원 충성도 높아… 장기고객 56%
중국 만화 앱 등에 45개 작품 공급
"최근 주가 부진…좋은 결과 있을것"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는 "YG와 SM엔터테인먼트 등이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자 연습생을 키우듯이 블루캠퍼스를 통해 조석 등과 같은 유명 작가를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미스터블루 7층 집무실에서 만난 조 대표는 "지금까지 3차례 웹툰 공모전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작가들이 데뷔했습니다"라며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면서 '아예 회사 내부에서 직접 육성을 하는 것은 어떨까'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블루캠퍼스 소속 20여 명의 시나리오와 그림 작가 지망생들은 매달 전문 웹툰작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3개월 정도 평가가 이어진 후 최종적으로 정식 작가 타이틀을 받게 된다. 무협작가로 유명한 야설록이 시나리오 자문·검수를 맡아 작품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G와 SM엔터테인먼트 등이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자 연습생을 키우잖아요.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블루캠퍼스를 통해 조석 등과 같은 유명 작가를 만들어 내는 게 목표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올해 20번째 생일을 맞은 가운데, 미스터블루는 의미가 큰 기업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제조업과 IT, 바이오 등 일부 사업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K한류 열풍을 타고 연예와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종목 상장도 늘었지만, 웹툰 관련 기업 상장은 미스터블루가 최초다.

"웹툰 기업으로 최초 상장이었지만,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웹툰 산업의 성장성을 투자자들이 높게 봐 주신 덕분이죠. 첫 상장사인 만큼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다른 업체들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연세대학교 요업공학과를 나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을 거친 공학도다. 그는 컴퓨터 이용 공학과 지원설계 업무를 하던 중 온라인 만화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평소 만화에 관심이 많아 업계 종사자 및 기성 작가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이 보편화되면 온라인 만화 사업이 성장할 것이란 확신을 얻었죠. 만화방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2002년 11월 탄생한 미스터블루는 2003년 1월 상호명과 동일한 만화 포털사이트인 '미스터블루'를 정식 오픈해 올해로 14년째 운영 중이다. 출판만화를 가공한 디지털만화콘텐츠 서비스와 온라인 만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만화출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팩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회원 충성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회원의 72% 이상은 경제력을 가진 30~40대며 매출 기여도가 높은 3년 이상 장기 고객도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층 고객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스터블루의 구매 금액별 남녀 비율에서 여성이 59%에 달한다. 지난 2월에는 일본의 SB크리에이티브사가 유통하는 일본 순정 라이트노벨 100작품을 국내에서 4년간 온라인으로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웹툰을 새롭게 선보인 이후 회원 가입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그동안 매달 1만5000명 정도의 신규가입자가 있었는데, 웹툰을 시작한 이후에는 지난 6월까지 월 10만 명 정도로 신규 가입자가 폭증했다. 현재도 매달 6~7만 명 정도가 미스터블루의 새로운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조 대표는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은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웹툰 한류'가 부는 까닭이다.

지난달 초 미스터블루는 중국의 인기 만화 앱 '대각충'과 중국의 3대 커뮤니티서비스 '바이두티에바'에 자사의 웹툰 콘텐츠 45개 작품을 공급하고 유료판매에 대한 수익을 공동 배분키로 했다.

이로써 미스터블루는 지난 3월 심천518 애니메이션에 3편의 웹툰 공급과 파생 관련 협업에 이어 중국 내 콘텐츠 유료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중국의 콘텐츠 사업은 모바일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고 성장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K웹툰의 저력을 확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나리오와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중국진출 사례로 남겠습니다."

신규 게임사업 역시 하반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다. 미스터블루는 지난 4월 엔비어스 소유의 온라인게임 '에오스'를 인수하고 개발인력을 흡수해 게임사업에 진출했다. 게임 콘텐츠와 이용자 환경(UI) 등에 대한 개편 업무에 착수했고, 이번 달 오픈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게임 산업에 눈을 돌린 이유는 만화와의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기 때문.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수 겹치고, 만화 IP를 통한 게임 개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게임 개발사가 만화 IP를 라이선싱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우리는 만화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게임 역량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조승진 대표는 최근 부진한 주가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그는 "주가 부양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회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콘텐츠 비즈니스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눈덩이처럼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송영록 기자 syr@

인재경영 꽃피운 다양한 복지제도… 계약직 없는 中企로 유명

코스닥 기업 '연우' 직원이 대기업 부럽지 않은 이유

'취업하고 싶은 기업 주식회사 연우.' 인천 서구에 자리 잡은 코스닥 상장기업 연우의 본관 입구 한쪽 벽면에 적힌 문구다. 연우는 화장품 등 기능성 용기 제조·제품개발 전문기업이라는 명성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수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입성한 연우는 올해 6월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코스닥대상' 시상에서 13개 기업 가운데 코스닥협회장상 최우수 일자리창출기업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수상(2011년),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포상(2013년)) 등 수많은 일자리 관련 인증과 표창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연우의 화장품 용기 생산라인.

화장품 등 기능성 용기 제조 명성
고용 관련 인증·표창 잇따라 받아
기능직, 정규직 전환… 능률 올라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대표는 직원들과 하이파이브 인사
2분기 영업익 102억 실적도 최고

실제 연우는 계약직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유명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문 기능직(생산직) 평가를 통해 2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했다. 이는 연우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 '대기업 안 부러운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계약직 폐지 배경에는 고용 안정 보장을 통한 근무 만족도를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었다.

김정우 연우 관리팀 인사파트 과장은 "계약직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일의 몰입도가 떨어진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는 일이 같다면, 처우도 같아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계약직제 폐지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직제 폐지는 회사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왔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높아졌고,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됐다. 더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직률도 감소했다.

연우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히는 이유는 계약직제 폐지 때문만은 아니다.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연우만의 기업문화와 복지제도도 직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여성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김미화 후가공팀 반장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연우의 장점으로 잘 갖춰진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를 꼽는다. 김 반장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등 최장 1년 3개월의 출산·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내도 능력이 충분하면 승진에서 받는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국내영업팀 대리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시설과 먹거리 등 믿을 수 있게 잘 운영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많다"며 "회사 5분 거리에 있는 사내 어린이집에 0세부터 5세까지 맡길 수 있어 어린이집을 따로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우의 긍정적인 회사 분위기는 기중현 대표의 아침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기중현 대표는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하다. 출장을 제외하고선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는 기 대표의 모토 아래 하이파이브가 시작됐다고 한다.

김미화 반장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대표님이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좋은 기(氣)를 주신다"며 "하이파이브를 하다 보면 신입사원들의 얼굴도 알게 되고 서로 얼굴을 익힐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연우만의 장점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제도가 '펀 데이(fun day)'다. 가정의 날을 지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가정의 날 오후 5시 30분이 되면 직원들은 모든 PC를 꺼야 한다. 생산 스케줄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펀 데이는 현재까지 잘 지켜지며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장철에는 직원들에게 절임배추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1인당 5포기, 4인 20포기를 기준으로 계약업체를 통해 전남 해남, 강원도 태백 등지의 신선한 배추를 공급하고 있다. 김장철이 되면 주부사원들의 걱정이 많아지는데, 회사의 절임배추 지원으로 한결 걱정을 덜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연우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섬세함이 돋보이는 복리후생이다.

연우는 이밖에도 멘토링제 운영, 은퇴설계 프로그램, 인재원 운영, 동호회 지원, 임직원 해외여행,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연우의 적극적인 인재경영은 실적으로도 바로 이어지고 있다. 연우는 올해 1분기에 설립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2분기에 매출 632억 원, 영업이익 102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6%, 31.6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13.58%를 기록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들의 자부심도 함께 커가고 있다. 김유나 대리는 "TV 광고에서 연우의 화장품 용기로 제작된 제품을 보거나 백화점, 로드샵 화장품 매장을 방문할 때 참여했던 제품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회사도 직원들의 자긍심을 더 키우고,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경영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우 과장은 "올해부터 고충처리 간담회와 현장 관리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소통 채널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인사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연우 인재경영 전략

직원 만족	인권교육	전 임직원 및 신규 입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시행
	계약직제 폐지	전문 기능직(생산직) 평가 통한 정규직 전환 고용(262명)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만 50세 이상 재직자 대상 은퇴설계
	내부 만족도 조사	분기별 내부 만족도 조사 시행
역량 강화	사내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인적자원개발(HRD) 로드맵 구축
	인재원 개관	2014년 연수원 시설 개관
복리 후생	임직원 해외여행(태국, 중국), 김장철 절임배추 지원, 직장보육시설운영, 기숙사 운영, 동호회 지원, 사내 식당 운영, 포상제도 및 경조사 지원	
기업 문화	가정의 날인 펀 데이(fun day), 선배 직원과 신규 입사자 멘토링 활동, 직원 개선제안 활동, 보건실 운영	

코스닥협회가 선정한 올해 최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 연우의 김정우 관리팀 인사파트 과장, 김미화 후가공팀 반장, 김유나 국내영업팀 대리(오른쪽부터)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글로벌 경기침체에 수익률 하락 당연하다고?



글로벌 유동성은 넘쳐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수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균일하지 않다. 금리를 내려도 물가 상승률은 좀체 오르지 않는다. 주식은 박스권을 멤돌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널을 뛴다.

이 와중에도 한국은행의 연중 기준금리 인하 관측은 여전히 힘을 얻는다. 경기 하방 압력 때문이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와 해외의 상반된 행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두 예단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과 공제회의 고민은 깊다. 적립금 규모는 지속 늘어나는데 돈을 굴릴 곳은 마땅치 않다. 국민연금공단의 적립금은 2013년 427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535조 원으로 2년 반 만에 25.3% 증가했다.

사학연금의 운용자산은 2015년 16조 3490억 원으로 2년 전의 15조680억 원에 비해 8.5% 늘었다.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도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돈은 늘지만 이들 기관의 운용 수익률을 줄었다. 2009년 10.4%였던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15년 4.6%로 6년 만에 5.8%포인트 감소했다. 글로벌 저금리 시대의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수익률 하락은 당연하게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대비 수익률"

사학연금공단 박민호 자금운용단장



저금리 장기화에 투자 트렌드 '중위험·중수익' 이동
해외 부동산 등 3억 달러 투자·美 4성급 호텔 인수
대체투자는 선진국에서 블라인드형 비중 높일 것

"대체투자(AI)와 해외쪽 투자 비중을 늘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수익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3조 원의 사학연금 금융자산 운용자금을 총괄하는 박민호(53·사진) 자금운용단장(CIO)은 향후 비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학연금 같은 연금 자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고객 주체가 평균 20~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특성이 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셈이다.

박 단장은 "10년 전 저위험 저수익 구조의 자산운용 스타일이 최근엔 연평균 4% 내외를 추구하는 중위험 중수익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며 "위험자산을 무턱대고 늘릴 수 없지만,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투자와 해외 쪽 자산을 적절히 분산투자하는 것이 최근 연기금 투자 트렌드"라고 밝혔다.

실제 박 단장이 CIO로 취임한 3년 전 전체 자산에서 13%에 달한 대체, 해외투자 비중은 현재 16%까지 늘어났다.

박 단장 취임 이후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외투자의 비중이 두드러졌으나 올해는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가 활발했다.

사학연금은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4성급 호텔인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The Westin St Francis) 호텔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과 공동으로 인수했다. 총 1억7700만 달러에 달하는 인수대금 중 사학연금은 77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했다. 이 밖에도 총 3억 달러의 해외 투자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PE)에 각각 1억 달러씩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도 사학연금의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행보는 거침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대체투자 자산들 역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섹터별 투자 전략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박 단장은 "전략적인 트렌드는 변하지 않겠지만, 대체투자 측면에서도 우량 투자 건을 잘 발굴하는 게 현재 가장 큰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학연금을 비롯해 대부분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무래도 공통된 이슈가 국내 시장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이기 때문이다. 운용하는 입장에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쪽으로 시각을 넓힐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박 단장은 "결과적으로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의 노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연기금들도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사학연금의 대체투자 향후 전략에 대해 그는 "큰 틀에서 대체투자를 늘리고, 특히 지역적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 갈 것"이라며 "섹터별 균형 분산투자와 함께 그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톱티어 주요 도시 부동산 위주로 진행하던 대체투자 부문을 블라인드형으로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블라인형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운용사들의 평판이나 능력이 절대적이다. 박 단장은 "블라인드형 비중 확대와 더불어 선진국 위주에서 아시아, 이머징마켓 위주로도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학연금은 효율적인 대체투자를 위해 지난해에 해외대체투자팀을 분리, 신설했다. 국내 대체투자와 인프라투자는 신성장투자팀이 맡고, 해외부동산 투자는 해외대체팀이 담당한다.

사학연금 전체 운용인력 35명 가운데, 국내외 대체투자 인력만 11명에 달한다.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운용인력들이 대체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향후 시장 변수에 대해 박 단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11월 미국 대선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은 속도와 폭이 중요한데, 시장 예상대로 12월에만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시장이 이미 가격 반영 등을 해 큰 충격이 없겠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축소돼 그간 오버밸류 된 자산들도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괸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원자재가격 회복 등 이머징마켓이 좋았기 때문에 이 같은 여파로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다는 판단이다.

박 단장은 "올해는 유가 안정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 반등 수혜를 봤다. 그간 선진국과 너무 벌어진 이머징마켓 가격 갭이 정상화하는 추세가 뚜렷했다"며 "국내 증시의 경우 그간 중소형주가 주춤하고 대형주 위주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졌는데 일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인수합병(M&A)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연기금, 공제회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 대해 그는 "결국 대체투자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다"며 "프로젝트 건이든, 블라인드 투자 건이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관련 자산의 가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연기금들이 국가와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만큼 확고한 투자 원칙 등 중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황에 따른 단기적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장기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투자 특성상 적절한 자산배분, 시스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건설부문 분리 투자전문화
안정적 수익 달성 가능한
마스터리스 실물자산 주목

군인공제회 신인수 건설부문 부이사장

투자자 분양 이후 부동산 가치 상승 고려
취임 한 달 만에 시공사 상위 1~5위로 변경
국가·공공기관 추진 안정적 PF사업 참여

군인공제회는 2015년부터 기존에 하나였던 자금운용부서를 금융과 건설부문으로 나눴다. 건설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건설부문은 산하에 사업개발본부와 사업관리본부를 두고 있다. 사업개발본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관리본부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관리하면서 부실사업을 정상화하거나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신인수(56·사진)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부이사장은 2015년 조직이 처음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문의 자금운용을 맡고 있다. 그가 맡고 있는 자금만 2조9000억 원 규모다.

신 부이사장은 4일 서울 도곡동 공제회 본회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공사가 책임을 다할 것이란 신뢰가 있고 담보가 있는 건설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0년대 중반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 일부에서 손실을 봤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꺾인 영향도 있지만 시행사나 조합과 함께 직접투자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신 부이사장은 취임 직후 사업 파트너 기준부터 바꿨다. 그는 "이전에는 건설 시공순위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곳에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상위 1~5위만 시공사로 하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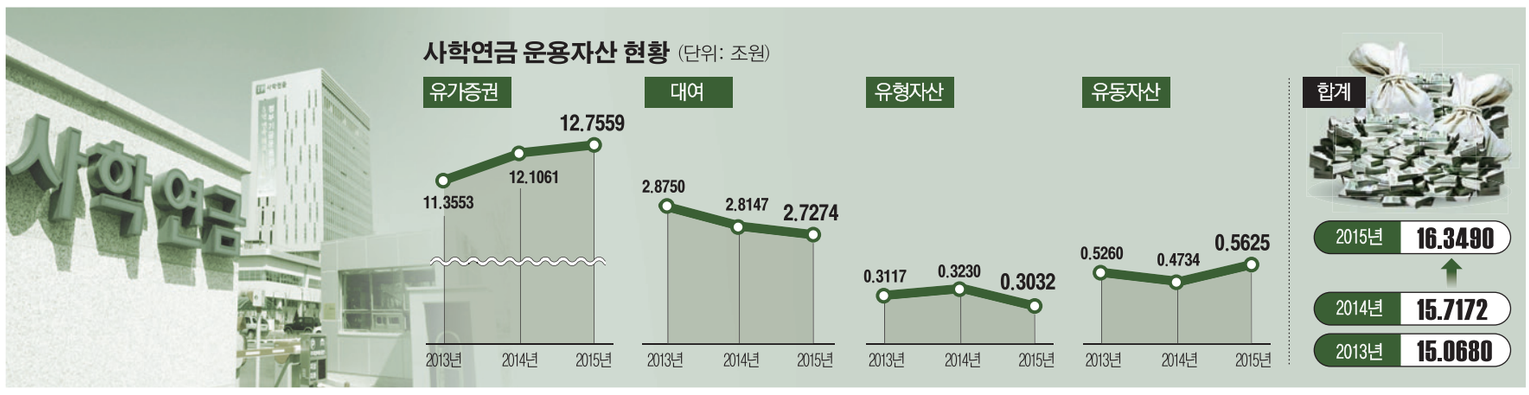
시공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준공 이후 애프터서비스나 건설사의 부도위험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기준 변경이 사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신 부이사장은 "회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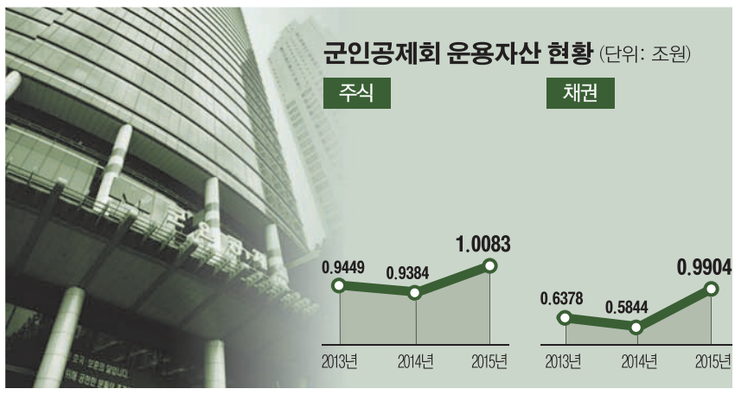
그러면서 "과거 단순 PF나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했지만 지금은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간접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단독 투자보다는 타 기관과의 공동투자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LH공사의 토지를 매입해 주택개발리츠를 시행하고 있는 영종 하늘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 펀드와 리츠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신 부이사장은 "LH는 준공 후 감정평가 대비 86.5~88.5%의 저렴한 수준에 미분양 공동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며 "시공사는 LH의 매입 확약에 따라 최소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분양률에 따른 공사비 조정으로 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 부이사장은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에 주목하는 투자 분야로는 우량 임차인이 마스터리스(master lease·장기 임매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방식)한 실물자산(오피스, 리테일 물류창고 등)을 꼽았다. ↗





국내외 대체투자로 '안전·수익' 두 토끼 잡는다

↘ 이 때문에 채권 비중을 줄일지, 대체투자를 늘리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각 연기금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금리 패러독스로 불리는 현 시기에 연기금과 공제회의 투자 전략과 경제 전망을 듣기 위해 이투데이는 사학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책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저금리로 채권 수익률이 줄자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펀드(PEF) 등 대체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 중에는 마스터리스(master lease·장기 임매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방식) 실물자산(오피스, 리테일 물류창고 등)에 주목하는 곳도 있다.

공격적 투자보다는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도 이들 기관의 공통점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간접투자방식을 활용한다. 기업간 인수합병(M&A)에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것도 돌다리를 수차례 두들려 본 뒤에 결정한다.

이같은 행보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콕 집을 수 없는 만큼 보수적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려는 것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실질부동산 등 대체투자 20%까지 높일 것"

건설공제회 한정수 자금운용실장



↘ 그는 "대체투자 선호로 인한 가격 상승,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오피스 공급 증가에 다른 공실 리스크를 고려하면 실물자산을 통한 수익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량 임차인의 마스터리스가 있는 경우 일시적인 시장 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부이사장은 또 "안정적인 인허가가 가능한 국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같은 안정성이 확보된 PF사업에는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다. PF사업도 과거에 비해 금융 구조화 기법을 활용한 채권 보장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구매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부이사장은 "최근 몇 년간 분양시장 활성화로 미분양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 금융위기 학습효과로 급격한 주택경기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구매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서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만큼 부동산 경기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신 부이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수도권 위주의 우량사업지를 선별 검토할 것"이라며 "분양 경기 하락 우려에 따라 금융구조화를 통해 투자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 건설부문은 최근 5년간 종결한 사업에서 우수한 수익률을 냈다. 이 기관이 2012~2016년 8월 중 종결한 사업은 PF 및 펀드 부문이 13건, 시행이 2건 등 모두 15건이다. 이 중 PF 및 펀드는 화성 반월동 SK아파트(300억 원 투자), 군자신도시 아파트(500억 원), 고양 삼송지구 지식산업센터(405억 원) 등 모두 4204억 원을 투자해 537억 원(수익률 12.8%)의 수익을 거뒀다.

수원 광교신도시(1514억 원), 서울 회현동(3272억 원) 등 2건의 시행사업에서는 총 4786억 원을 투자해 1285억 원(26.8%)의 수익을 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올들어 경기 구리 롯데아울렛·물류센터 두 곳 인수
PEF 인프라·국내외 인수금융 등 투자다변화 시도
순수주식형 탈피, ETF 등 절대수익 방식도 도입

저금리 장기화는 금융기관의 투자 방식을 바꾸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펀드(PEF)와 같은 대체투자 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는 안정적 수익 확보가 중요한 건설근로자공제회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옮긴 한정수(49·사진) 자산운용실 실장은 9월 4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채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연 3%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대체투자 비중은 매년 2~3%씩 늘려 2020년에는 20%까지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 이 기관은 다른 공제회와는 달리 결손 시 정부 보전이 없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중시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5년 운용자산의 73.5%를 채권에 투자했다. 같은 기간 주식 6.3%, 혼합형 2.3%, 대체투자 5.9%에 그칠 정도로 안정적 수익 창출에 무게를 뒀다. 올해 7월 말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산운용 규모는 2조9026억 원이다.

한 실장은 "다른 연기금이나 공제회는 조달 금리가 높아 대체투자에 적극 나서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는 건설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받아서 퇴직할 때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 성격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투자를 늘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개발 쪽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실물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 롯데아울렛을, 한국토지신탁이 설립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서는 경기도 물류센터 두 곳을 각각 인수했다.

대체투자 다변화도 한 실장의 중점 추진 사항이다. 그는 기존 부동산 중심의 대체투자를 PEF와 인프라, 국내외 인수금융으로 넓힐 예정이다. "대체투자는 투자상품별로 위탁운용사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PEF나 벤처캐피털(VC) 등으로 운용 유형을 다변화할 것이다.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형태의 운용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체투자 부문을 넓히면서도 중순위, 중위험 자산에만 투자한다는 것이 한 실장의 방침이다.

인수·합병(M&A) 부문도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 한 실장은 "대부분 대형 M&A가 긍정적으로 성사됐지만 일부 합병법인은 수익성 불확실성이 상당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적합한 투자 기회를 포착할 때 M&A 투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운용 방식도 변화시킨다. 그는 "기존 순수주식형 중심의 액티브(active·종목발굴형) 유형에서 탈피해 ETF(상장지수펀드) 등 패시브(passive·지수연동형) 유형이나 절대수익 추구형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해외투자 부문에서는 기존 코리안페이퍼(KP물) 투자 이외에 해외채권·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운용능력 구축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국민연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제회의 운용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올해 남은 기간 염두에 둬야 할 해외 변수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과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지속 여부를 꼽았다. BOJ는 지난달 본원통화 공급목표에서 장단기 금리 타기팅으로 변화를 꿰하는 등 질적양적완화(QQE)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FOMC는 12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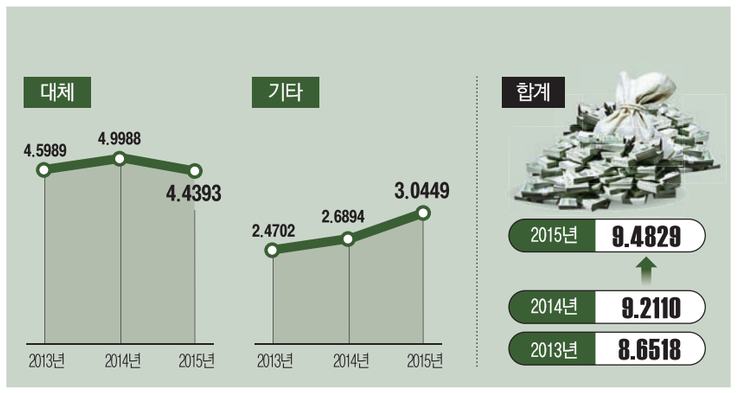
한 실장은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유럽과 일본은 추가 금리인하보다는 재정정책을 활용한 경기 부양책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 이는 글로벌 주식, 채권시장에는 모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ECB와 BOJ가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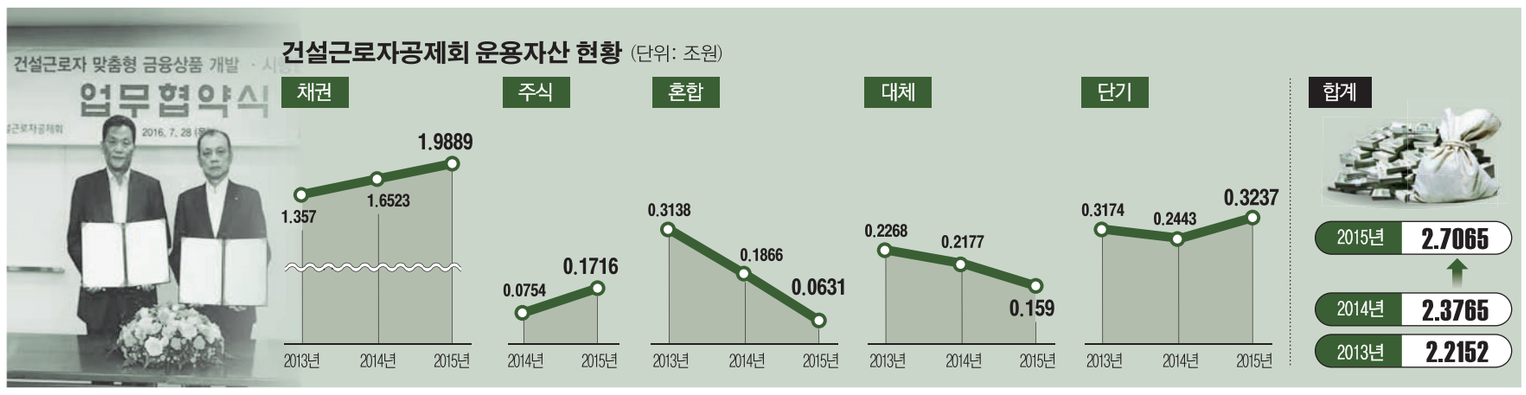
중기적으로는 미국 경기 지표와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져 자산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투자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시계가 밝은 상황은 아니다. 하반기까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실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니 그 책임의 막중함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닫고 있다"며 "건설근로자에게 안정적 운용수익이 보장된 퇴직공제금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투자신탁을 거쳐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입사했다. 이곳에서 그는 주식운용팀장, 주식운용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사진 신태현 기자 holijak@





“마지막 운 적 언제?” 치유받는 면접… 경쟁률 1000대 1

〈마이다스아이티 지난해 하반기 공채〉



2016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 조사 (단위: %)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있는 취업준비생 조사

(단위: %, 1067명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무가 맞으면 기업 규모는 관계 없어서	29.70
대기업에 비해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27.30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18.20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11.10
직장 내 경쟁이 덜 치열하고 근무 분위기가 좋아서	9.20
빠르게 진급할 수 있어서	1.70
기타	2.90
합계	100.00

마이다스아이티는 매년 CEO 강연을 골자로 한 채용설명회를 두 차례 연다. CEO의 강연이 청년 구직자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진제공 마이다스아이티

구직자 몰리는 中企 뭐가 다르길래…

“마지막으로 운 적이 언제예요?”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20대 여성 구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긴장한 탓도 있었지만, 약 50분간 이뤄진 면접관과의 대화가 구직자의 감정을 움직였다.

“면접관들이 따듯하게 이야기를 해주니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내 이야기를 깊게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이입이 됐어요.”

이 여성 구직자는 면접 당시 느꼈던 따듯한 감정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했다. 수십 번 면접에 떨어지며 상처가 났던 마음이 한순간이지만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국내 건축분야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의 면접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연매출 1000억 원 규모의 마이다스아이티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몇 안 되는 회사다. 이 회사의 지난해 하반기 공개채용 경쟁률은 1000대 1. 1만 2470명이 지원해 12명이 채용됐다.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 청년 구직자들이 이같이 몰려드는 비결이 뭘까.



건축SW 기업 ‘마이다스아이티’
면접서 경력 대신 삶에 대해 질문
연 2회 CEO 강연 채용설명회
청년들 응원 구직자 호응도 높아

숙박 스타트업 ‘위드이노베이션’
구직자 원하는 곳 찾아가 면접
편안한 대화로 진면목 파악해

◇1000대 1 경쟁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만든 숫자=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마이다스아이티는 대졸 초임이 4000만 원 이상으로 연봉 측면에서도 동종업계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5성급 호텔에서나 먹을 법한 뷔페 점심, 5년에 한 번씩 리프레시 휴가 제공 등 직원 복지도 잘 돼 있는 회사다. 우수 사원에게는 한 달간 스포츠카도 빌려준다. 하지만 이 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은 마이다스아이티를 설명할 때 풍부한 복지제도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은 회사’라는 것을 먼저 말한다.

올해 신입으로 입사한 최정원(24)씨는 “지원 과정에서부터 사람을 중시하는 회사라는 것이 느껴졌고,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 면접 시 질문 내용들에서도 구직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경력, 스펙 등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물어봐 자존감을 살려줬다”고 말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채용설명회를 연다. 단순히 회사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 최고경영자(CEO)의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마이다스아이티의 CEO가 되기까지의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취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회사는 탈락한 구직자들에게도 각자 다른 내용으로 장문의 위로 메일을 보낸다.

마이다스아이티 김유리 인사담당자는 “CEO의 강연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고, 청년들의 고민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도 곁들여져 청년 구직자들의 호응이 높다”면서 “탈락한 구직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면서 보낸 메일만 최근 30건가량 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면접?… 톡톡 튀는 스타트업 채용= “면접을 여러 번 해봤지만 찾아오는 면접은 처음 접해 봤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이 드는데,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지난달 경력직으로 위드이노베이션에 입사한 성제현 기획팀 차장(37)은 과거 면접 당시를 이렇게 평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 온·오프라인 연계(O2O)서비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성 차장은 나이는 30대 중반이지만, 업무 경력은 5년 남짓한 청년 인력이다. 그는 1차 기술면접을 본 후 2차 인성면접을 ‘찾아가는 면접’으로 진행했다. 위드이노베이션의 찾아가는 면접은 면접관이 구직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방문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는 “찾아가는 면접은 부담 없는 분위기에서 편안한 대화를 통해 지원자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지원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소통으로 이뤄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지원자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 차장은 입사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첫날 자신의 책상 위에 붙어 있던 환영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위해 책상 이름표에 환영 메시지를 붙여놓더군요. 작은 메시지이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어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은 환영 메시지 하나는 그에게 큰 기억으로 남았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찾아가는 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올 들어 청년 인력 100여 명을 채용했다.

◇제조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 노력… 하지만 높은 장애물 여전=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올해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선호 이유로는 ‘직무가 맞으면 기업 규모는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다. 채용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서 능력을 개발하려는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가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중에서도 다양성과 중요성을 찾아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은 전체적 업무능력의 통합적인 습득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눈높이를 바꿨어요.” 올해 철강재 유통·가공 중소기업 신화철강에 입사한 김기범(가명) 씨의 말이다.

김 씨가 입사한 신화철강은 올해 청년 인력 8명을 채용했다. 여성 CEO인 정현숙 대표는 사옥 내 북카페 설치, 체력단련비, 부부동반 해외연수 등 지방 중소기업치고 풍부한 복지제도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창원 지역 내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 다른 지방 중소기업들에 비해 활발하게 청년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채용 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해 청년 구직자들이 회사를 직접 판단하게 하는 개방형 채용방식을 택한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한계는 있다. 충청남도 보은에 위치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업체 우진플라임은 올해 6월까지 130여 명의 청년 인력을 채용했다. 많은 규모의 채용이지만 허수가 있다. 중도 퇴사하는 인원들이 많아 결원 충원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역시 지리적 핸디캡이 컸다.

우진플라임 인사담당자 장정운 차장은 “주말에 인천으로 왕복하는 셔틀버스, 기숙사를 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년 인력들은 지방에서 적응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복리후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이공계 기술전문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서현규(26) 씨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복지에 야간수당도 없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이미지가 크다”며 “취업 준비하면서 우수 중소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대기업을 따라가기에는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페이스북에 공개 구직… 두달 만에 81곳서 연락 와”



‘야놀자’ 강은진 매니저

6개월 전 권고사직 후 구직 포스팅
14곳서 면접… 지난달 ‘야놀자’ 취업
어떤 업무 자신있는지 상세히 보여줘

“저를 보고 주변 지인들이 스타트업계의 ‘이물질’이라고 하더군요. 하하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야놀자 사무실에서 만난 강은진(34) 매니저는 호쾌한 웃음과 함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상에서는 이름이 꽤 알려진 ‘스타’다. 6월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블로그 공개 구직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강 매니저가 올린 포스팅 제목은 ‘콘텐츠 디렉터 혹은 브랜드 마케터로서 새로이 몸담을 곳을 찾습니다’였다.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는지를 블로그를 통해 상세히 보여줬다. 이는 즉각 많은 기업들에 큰 호응을 샀다. 실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강 매니저의 포스팅에는 약 4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리는 것은 물론, 수많은 공유도 이뤄졌다. 단순한 흥미 끌기가 아니라 포스팅 자체에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강 매니저는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왜 스타트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정리를 했다”며 “단순한 구직이 아닌, 어떤 역할로 구직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SNS 공개 구직 이후 약 두 달간 81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해왔어요.” 강 매니저는 자신이 썼던 블로그 포스팅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만 갖고 접근하는 곳도 있었고, 서로가 원하는 업무가 다른 경우도 꽤 많았다. 결국 강 매니저는 14개 기업을 선택해 면접을 봤고 결국 지난달 19일 자신의 원하는 업무가 가능한 숙박 온·오프라인연계(O2O)업체 야놀자를 선택, 브랜드 마케터로서 취업에 성공했다.

이같이 SNS 공개 구직으로 취업에 성공한 강 매니저인 만큼, 취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는 청년들도 꽤 많았다. 강 매니저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어떤 업무에 지원해야 할지조차 방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다”며 “대부분의 신입들은 자신이 어떻게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어 고민하더라”고 언급했다.

강 매니저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일명 ‘취준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넸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것, 생각한 것, 접해온 것을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양보다 질에 집중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도 떨치는 게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구직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색을 더 강조할 수 있는 SNS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 매니저는 설명했다. 청년 구직자들도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단기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곁들였다. 김정유 기자 thec98@

청년은 "갈데 없다" 중기는 "인력 없다" 인식부터 바꿔야



이투데이가 최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주최한 '청년 취업 중소기업이 이끈다' 좌담회에서 청년 구직자들과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취업하고 싶어도 정보 부족 면접 보면서도 불안한 마음"

"업무는 뒷전 연봉·복지만 따져 언론에서도 유망한곳 알려야"

알찬 곳 많은데… 회사는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 구직자는 잘못된 편견 버려야

△산업2부 중기벤처팀 김정유 기자(이하 사회)= 최근 청년 채용 한파가 불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 입장에서 맨몸으로 느끼는 채용 현장은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다.

△권인숙 씨(이하 권)=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는 해외 관련 업무다. 앞서 해외 주재원을 뽑는 면접을 본 적이 있다. 당시 2차 면접자 중 나만 유일하게 국내파였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와 보니 학자금 빚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유학을 가보지 못했다. 만약, 나 역시 사장이라면 주재원으로 직원을 보낼 때 당연히 현지에 다녀온 사람을 뽑을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여유가 없어 해외 연수를 못한 청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든다. 때문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좌절하게 되고 꿈도 꾸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취업자 입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경험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희망재단 조병걸 사무차장(이하 조 차장)=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다. 청년들이 힘들 수 있고, 공감도 가지만 시스템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숙제다. 다만, 해외에 간 사람 이상으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탈락했다는 것은 언어의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현지 문화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공부한 사람과 국내파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노동을 하러 온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험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 국내 채용의 88%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뤄진다. 앞서 얘기했던 구직 현장의 사례들도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일부 나아지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 같다.

△김상혁 씨(이하 김)=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단순 업무에 정시 퇴근이지만, 중소기업에선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월급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나도 이전에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던 경험이 있다. 일부 수출 성과도 나오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에서 하청이 들어오더니, 이후에는 하청업무만 해도 수익이 나니까 계속 의존만 하더라. 더 이상 이곳에서는 꿈을 키울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권= 예를 들어 연애를 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년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을 찾는 것이다. 나는 예체능을 전공했고, 지방대학교를 나왔다. 때문에 초반부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물색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아는 정보가 없으니 이곳에서 내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앞섰다. 지원하고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도 불안하다.

△사회= 청년들이 인식하는 중소기업의 모습이 이렇다.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나름 입장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복지 혜택을 끌어올려도 지리적 여건,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이탈하는 청년 인력들도 꽤 있다. 인식의 차이가 심하다.

△청년희망재단 장의성 사무국장(이하 장 국장)=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취업준비생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한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지원 시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니 나 정도는 받아줘야지'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더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같이 오래 근무할 직원을 찾는다. 낮은 연봉 수준을 알고도 오래 함께 일할 직원을 원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연봉과 복지가 우선이지 자기 업무는 그 다음으로 보는 것 같다고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야기한다.

△조 차장= 알차지만 노출이 잘 안 된 중소기업들도 꽤 많다. 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중 92%가 여성이고, 이직률도 낮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취업생들이나 부모님 세대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사회= 중소기업 채용이 원활히 이뤄져야 전체 고용이 힘을 받는다. 때문에 중소기업과 청년 인력들이 끊임없는 소통으로 인식의 차이를 점차 좁혀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좀 더 개방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어 보이고 정부 정책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권= 맞다. 힘들겠지만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처럼 청년들에게 본인들을 알려야 한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좋은데 왜 몰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숨어 있는 중소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대학교에 찾아가 설명회를 여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중소기업 구직을 피하는 경우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김= 공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좋은 회사를 찾을 수도 없다. 좋은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한참 낮은 인지도 때문에 대기업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만 늘어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적극 나서서 이런 청년들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장 국장= 언론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많이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광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더라. 바뀌어야 한다. 청년희망재단에서도 앞으로 유망하고 좋은 회사들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할 것이다. 청년들도 인식을 조금 바꿔 기업 규모가 아닌, 업무 적합도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구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조 차장= 청년희망재단에서도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청년들을 위해 특강을 많이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리=조성준 기자 tiatio@



청년 구직자 권인숙(31) 씨

예체능(성악) 전공.중소기업 마케팅 또는 해외 취업 준비 중.



청년 구직자 김상혁(28)씨

중소기업 입사 후 퇴사한 경험 있음. 현재 금융권 취업 준비 중.



청년희망재단 장의성 사무국장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장, 한국잡월드 이사장 역임.



청년희망재단 조병걸 사무차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근무,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활동.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 납입하면 정부·기업 각각 600만·300만원 지원"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작 중기 신입사원 핵심인력 양성에 도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철근가공과 유통업을 하고 있는 A기업은 지난달 입사한 직원 5명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켰다. 신입사원들을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 회사가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납입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채용의 부진은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최근 일선 현장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에 중점을 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현금 지급 방식 대신 자산 형성 방식으로 개선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12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 기업이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후 평일 기준 7일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만 명, 2020년까지 9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2년 전 중소기업청이 시작한 '내일채움공제'와도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지난해 4192개 기업, 1만123명의 가입을 거쳐 최근까지 6290개 기업, 1만5566명, 공제기금 650억 원(누적)에 이른다.

하반기 중소기업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선민(27) 씨는 "취업 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고용부와 중기청의 제도 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청년희망재단 구직자와 간담회

청년실업률이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8.0%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까지 올랐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이른바 '장기 실업자'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청년실업률 해소는 결국 국내 고용의 88%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중소기업은 현장에 청년 인력이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갈 만한 중소기업이 없다고 항변한다. 인식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인력 미스매칭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채용과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직 현장에서의 체감이나 활용도는 크지 않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청년희망재단 회의실에서 구직자와 채용 지원 실무자들이 만나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했다. 청년 구직자 권인숙·김상혁 씨와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청년희망재단'의 장의성 사무국장과 조병걸 사무차장은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현실과 인력 미스매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힘내라! 대한민국 I Love KOREA

금융개혁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

빠르게 간편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퀵 휙

간편송금, 휴대폰번호만으로 휙-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없이도 빠르고 안전한 IBK휙서비스

휙- 보내는 간편송금

IBK휙서비스



빠르게 휙 – SPEED
6자리 핀번호만으로 빠르게 송금·출금!
계좌번호 없어도 휴대폰번호로 빠른 송금!

간편하게 휙 – SIMPLE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없어도 송금!
카드나 통장이 없어도 ATM 출금!

안전하게 휙 – SAFE
IBK기업은행만의 핀테크 기술이라 안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해 더 안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2701호(2016.08.31)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IBK기업은행:☎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올해 '브렉시트'로 전 세계에 파문을 몰고 온 영국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세계 주요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한다. 올해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을 했다. 이른바 G2 국가인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두 후보가 1년여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월에 결전을 치르며, 중국은 내년 제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유럽의 2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와 난민 문제 등으로 유럽 전역이 우경화로 들끓는 가운데 내년이 정권 교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연임을 위한 터 닦기에 돌입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테러 공포, 난민 문제 등으로 분출된 세계의 민심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비호감 대 비호감… 누가 돼도 싫다고?

클린턴 vs 트럼프 美대선 혼전

여론조사 우세 클린턴 건강문제에 휘청
정직·청렴성 의구심 증폭 '불신 아이콘'
트럼프 막말에 자녀들 구설수 설상가상
공화당 내부 클린턴 지지 선언 잇따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결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이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앞서가는 것도 잠시 다시 트럼프가 바짝 뒤를 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전과 달리 양당 후보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다. '막말 제조기' 트럼프와 각종 스캔들에 휩싸인 클린턴 중 백악관행 티켓을 거머쥘 후보는 누구일까. 미국은 물론 세계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 **역행하는 미국… 아웃사이더 돌풍** = 클린턴은 대선 공식 출마 전부터 일찌감치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당내 비주류 인사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선 후보 자리를 위협받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 자리에 올랐다. 공화당에서도 쟁쟁한 경선 후보 17명 중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못해 각종 막말로 논란을 몰고 다닌 트럼프가 대선후보 자리까지 꿰차게 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판에서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킨 배경에 미국인의 불안과 불만을 지목하고 있다.

◇ **"도긴개긴" 역대급 비호감 대결** = 그렇다면 현재 누가 더 대선 승리에 더 가깝게 있을까. 현재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으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가 힐러리 지지율을 앞섰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언론은 지지율보다 이들 두 후보에 대한 대중의 비호감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지난 8월 말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거의 막상막하의 비호감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유권자 응답자 가운데 클린턴이 비호감이라는 응답자는 59%, 트럼프가 비호감이라는 응답자는 60%로 사실상 동일했다. 반면 두 후보의 호감도는 상당히 낮았다. 등록 유권자 중 클린턴에 호감을 표한 응답자는 38%, 트럼프에 호감을 표한 이들은 37%에 그쳤다. 1992년 당시 가장 낮은 인기를 기록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비호감도도 53%로 트럼프와 클린턴보다는 낮았다.

◇ **"누가 돼도 답 없다"** = 트럼프는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여성비하, 인종차별 등 끊임없는 막말로 매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자녀까지도 줄줄이 실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클린턴도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면서 젊은층의 지지이탈이 가속화되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이메일 스캔들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부패의혹 등으로 정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9·11 테러' 15주기 추모행사 참석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세로 휘청거린 뒤 자리를 급하게 뜨면서 건강이상설까지 퍼졌다. 문제는 클린턴이 폐렴에 걸린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클린턴의 정직성과 함께 '비밀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 대선을 리스크로 손꼽고 있다. 클린턴이 당선될 것으로 내다봤던 시장은 최근 클린턴의 건강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의 지지율이 위축되자 요동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日 아베·러 푸틴 장기집권 노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재선된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까지가 임기다. 그러나 벌써 자민당 내부에서는 '연임, 6년'으로 제한한 총재 임기를 연장해 오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아베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당규를 3연임 허용으로 고쳐 아베 총리 임기를 2021년 8월까지 3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가장 큰 논리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유지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민당의 숙원인 헌법 개정도 여유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8월 28조1000억 엔(약 301조 원)으로, 역대 세 번째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경제 대책을 세운 것도 3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또 아베는 8월 초 개각과 함께 진행된 자민당 인사에서 2인자인

日자민당, 당규 고쳐 3연임 추진
지지도 굳건… 푸틴 네번째 도전
둘 모두 경제회복 안되면 물거품

간사장 자리에 3연임을 주장하는 니카이 도시히로를 앉혔다.

다만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장기집권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일본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일본은행(BOJ) 목표인 2%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행보에 접어들면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를 유발해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 위태롭게 된다.

푸틴은 지난 2000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3기 연임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잠시 대통령, 총리직을 바꾼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수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졌지만 푸틴은 아직 마땅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의 지지도 높아 오는 2018년 대선에 네 번째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일본 총리와 마찬가지로 푸틴도 경제회복이 장기집권을 좌우할 핵심 열쇠다. 러시아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6%로, 전 분기의 -1.2%에서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유럽 '우파' 득세 중도좌파 어디로

이민자 문제와 이슬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 경기 침체, 유럽연합(EU)에 대한 환멸 등이 커지면서 유럽에서는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대선과 총선을 각각 앞둔 유럽의 양대 강국 프랑스와 독일에선 극우파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에서는 통합 반대, 이민자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민족전선(NF)의 마린 르펜 대표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최종 결선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르코지는 2012년 대선에서 재선에 나섰다가 중도 좌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과 붙어서 패했다.

사르코지는 대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올랑드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자 2014년 복귀해 중도 우파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현 공화당) 대표에 당선됐다.

'反이민 정서' 프랑스 내년 대선
르펜·사르코지 결선 격돌 전망
獨 내년 총선 메르켈 4연임 관심

NF의 르펜도 만만한 후보가 아니다. 수년간 프랑스 정치 비주류를 맴돌던 NF는 최근 테러와 난민 문제 등에 따른 프랑스 내 반(反)유럽, 반이민 감정과 맞물려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르펜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프랑스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NF는 외국인과 무슬림 배척으로 유명하며, EU 반대파로서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때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한 유일한 프랑스 정당이었다.

르펜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탄력을 받고,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보고 싶다고 공언해왔다.

내년 총선을 치르는 독일에선 '난민 엄마'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앞날이 불안하기만 하다. 독일 정계에선 메르켈이 내년 총선에도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의 선거대표로 나와 승리를 거머쥐고 연방 연립정부의 총리를 다시 맡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속하는 난민 위기와 이에 맞물린 지역선거 패배를 계기로, 2005년부터 3기 연임 중인 메르켈의 4기 연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내년 中 19차 당대회… 시진핑 장기집권 길 가나

원칙 지킬까, 집권 연장할까… 내년 가을 그의 속내가 드러난다

라이벌 리커창 총리 계파 공청단 쇠락
'오른팔' 왕치산 유임 여부 지켜봐야
AFP통신 "임기 끝나도 총서기직 유지"



중국 공산당이 내년 가을 개최할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야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11월 당 총서기에 취임하고 나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주도하면서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1인 지도체제를 확립했으며 심지어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10년 임기라는 불문율을 지키고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지 아니면 15년 또는 20년 장기집권을 시도할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내년 당대회다. 중국은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없지만 5년마다 치러지는 당대회를 통해 엘리트 계층에서의 권력 이동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가 될 인사들이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5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오르는 방식이다. 당 총서기는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더불어 중국 최고 지도자가 가진 3가지 주요 직책 중 하나다. 시 주석도 지난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에 올랐으며 2012년 열린 18차 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등극했다.

그런 가운데 AFP통신은 중국 지도부들이 베이다이허에서 비밀회의를 열었던 지난 8월 초 시 주석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총서기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시 주석의 오른팔이자 부패 운동을 책임지는 왕치산 당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상무위원 연임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원칙에 따라 상무위원이 67세이면 유임하고 68세는 퇴임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따르자면 내년 당대회에서는 7명의 상무위원 중 현재 63세인 시진핑과 61세인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은퇴해야 한다. 그러나 왕치산에 이르러 이런 원칙이 깨지면 시진핑도 권력을 계속 쥐고 있을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 경제개혁 등 집권연장을 정당화할 이유도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이미 19차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올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시진핑과 한때 주석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리커창 현 총리의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중앙정계에서 권력다툼을 하는 대신 지방에서 뛰라고 공청단을 압박한 셈이다.

올여름 지방정부 인사에서는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 시절 함께 일했던 이른바 '저장방' 인맥이 대거 부상했다.

내년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기존의 불문율과 원칙 등을 깨고 장기집권 시도를 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에 새로운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과연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전인지의 스윙



1 어드레스 2 테이크백 3 백스윙 4 톱스윙 5 다운스윙 6 임팩트 7 플로스루 8 피니시

꽃피는 전인지, 무결점 '교과서 스윙'

생애 2번 LPGA 우승 모두 '메이저 퀸'…에비앙 최저타 신기록
수학경시대회 대상 받은 '수학영재'답게 코스 전략·전술 뛰어나
고 1때 태극마크…웃는 모습 귀엽고 호기심 많아 '플라잉 덤보'

"전인지의 21언더파는 올해 브리티시오픈의 헨리크 스텐손, 지난해 PGA 챔피언십 제이슨 데이가 세운 남자 메이저 최소타 기록 20언더파를 뛰어넘는 기록이다"(영국 BBC)

""에비앙에서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그 맨 앞에는 신기록을 세운 전인지가 있었다"(AFP통신)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강점이 없는 것이 강점'이다. 꼭 집어서 한 가지 강점을 꼽자면 지혜로운 경기를 한다는 것이다. 수학 영재답게 코스매니지먼트, 즉 코스에 대한 전략, 전술이 뛰어난 지략가다. 샷이 잘 안 돼도 미소를 짓는다. 나이에 비해 자신을 다스리는 멘탈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스윙을 보면 안정감이 돋보인다. 교과서적인 정통 스윙을 구사하며 멋진 스윙을 만들어낸다.

전인지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4일간 드라이브 평균 거리 239야드, 페어웨이 안착률 72.86%, 그린적중률 80.56%, 평균퍼팅수 27.75개, 샌드세이브 33.33%를 기록하며 4라운드 합계는 21언더파 263타(63-66-65-69)의 대기록을 수립했다. 전인지는 LPGA투어 생애 첫 우승을 지난해 US여자오픈에서 이룬 데 이어 두 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리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과 두 번째 우승을 모두 메이저대회로 장식한 것은 1998년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와 전인지 2명뿐이다. 1992년 벳시 킹(미국)이 LPGA 챔피언십에서 세운 267타를 갱신한 전인지는 청야니(대만) 등 4명이 갖고 있던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인 19언더파를 갈아 치웠다. 전인지는 제이슨 데이(호주)와 헨릭 스텐손(스웨덴)이 세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인 20언더파도 깼다.

그의 골프는 재미가 있다. 국내외에서 첫 우승이 메이저대회다. 한국에서는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했고, 미국에서는 US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모두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유일한 선수다.

지난해 국내에서 드라이브 평균거리 245.2야드로 10위, 페어웨이 적중률 78.55%로 20위, 그린적중률 77.6%로 4위, 평균 퍼팅수 30.17타로 10위, 평균타수 70.56타로 1위를 기록하며 총상금 9억3760만원을 획득해 1인자 자리에 올랐다. LPGA 루키시즌의 전인지는 드라이브 평균거리 255.39%(66위), 페어웨이 안착률 74.26%(30위), 그린적중률 72.04%(18위), 평균 퍼팅수 29.02타(4위), 샌드세이브 41.79%(94위), 평균타수 69.52타(2위)를 기록하며 상금 140만5054달러를 벌어들여 상금랭킹 4위에 올라 있다.

전인지는 태권도 선수 출신인 아버지 전종신(57) 씨를 닮아서인지 운동을 잘한다. 태권도와 육상을 했다. 그리고 수재형이며 호기심이 많다. 수학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으니까. 엄마는 전북 군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 감각이 남다른 데다 '세리 키즈' 열풍이 불 때 아버지와 친구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했다. 골프를 시키려고 아버지는 충남 서산에서 제주도로 이사했다. 다시 전남 보성 득량중으로 전학한 그는 명문인 함평골프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미 중3 때 국가 상비군, 고교 1년 때 태극마크를 달았다. 애칭은 '플라잉 덤보'. 사실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팔랑귀'였으나 웃는 모습이 귀엽고 호기심이 많아 '플라잉 덤보'라고 부르게 됐다.

175cm의 이기적인 몸매를 가진 그는 대표시절 만들어진 기본기가 탄탄하다. 샷에 군더더기가 없다. 어드레스 때 볼 뒤쪽에 있는 머리와 손의 위치가 매우 인상적이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고, 체중은 5 대 5로 적당히 배분돼 있다. 백스윙과 톱에서 단단히 고정된 축과 하체를 중심으로 몸통 회전이 돋보인다. 머리와 하체는 견고하게 움직임이 없고, 어깨는 잘 돌아 거의 120도 이상 회전하고 있다. 상체회전으로 만들어진 코일링이 파워를 축적하고 있다. 다운스윙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도 팔과 클럽의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빠른 어깨 회전으로 최대한 원심력을 이용해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낸다. 이때 체중 이동도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임팩트 후 고정된 양손의 모양과 클럽 페이스가 정확한 폴로스루를 증명해 준다. 피니시는 절제된 회전으로 균형 잡힌 동작이 샷의 정확성을 가져온다.

글/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사진/JNA 한석규 포토

골프 TIP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골프는 티샷부터 퍼팅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야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윙에서는 '피니시'만 잘해도 몰라보게 샷이 변한다.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 전인지(22·하이트진로)의 스윙을 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다. 폴로스루에서 이어지는 피니시 동작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는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늘 일정한 피니시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왼쪽다리를 마치 벽처럼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는 것. 몸은 목표 방향을 향하면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완벽한 피니시를 연출이라도 하는 것 같다. 양손은 그립을 견고하게 쥐고 있고, 클럽 샤프트는 등을 가로지르며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스윙 후 5초 정도 그대로 멈춰라
전인지처럼 완벽하게 피니시하면
비거리 늘어나고 방향성 좋아져

이렇게 피니시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 비거리가 늘어나고 방향성이 좋아진다. 그러나 보기 플레이어들은 이런 피니시 동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피니시는 대충하고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날아가는 볼을 바라본다. 여기에 스윙을 하고 바로 티를 찾느라 피니시를 하지 않는다. 좋은 피니시를 하기 위한 방법은 전인지처럼 피니시를 한 뒤에 5초 정도 머물러 있어 본다. 마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한 것처럼. 피니시만 완벽하게 해도 골프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김영구의 여성골프건강

가을골퍼 '피부미인' 라운드 전·9홀 후 선크림 필수

본격적인 골프시즌을 맞아 필드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는 계절이다. 여성골퍼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피부다. 가을 햇살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5시간 동안 필드를 거니는 골프는 기미를 비롯해 주근깨,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은 물론이고 피부톤도 칙칙하게 변하기 일쑤다. 샷을 즐기면서 피부까지 제대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잡티와 흉터 없이 매끈한 피부, 밝은 안색 등 피부 미인의 조건인 '무결점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 색소 침착을 막아야 한다. 잡티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며 생긴다.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누구에게나 생긴다.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쉽게 없애기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을 햇볕이 약해졌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우리의 피부를 위협한다는 점을 기억할 일이다.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줘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바를 때는 최소한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골프를 할 때는 9홀을 돌고 나서 다시 한 번 발라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사하고 맑은 안색'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분 섭취다. 물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생기 있는 얼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하루 2리터 정도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라운드 중간 중간에 수시로 물을 마신다.

레이저를 이용한 화이트닝도 광채 나는 안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젠틀맥스 레이저는 피부 탄력과 색소성 질환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 화이트닝 시술이다. 피부 표면뿐 아니라 진피까지 깊숙이 작용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증가시켜 피부 탄력이 증가되고 피부색도 밝고 맑아진다. 기존에 생긴 잡티들을 대부분 1~2회 치료만으로도 개선시킬 수 있다.

좋은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밤 10시~새벽 2시로 이 시간에는 가급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습관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심한 피부 고민은 목적과 상태에 따라 전문적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연세스타피부과 원장

김수현의 여성골프레슨

임팩트 때 왼손등 땅 향해 눌러 쳐야 비거리 늘어

정확한 임팩트만으로 거리가 늘어난다.

파워가 약한 여성골퍼들이 관심 있고 제일 원하는 것이 아마 비거리일 것이다. 볼을 멀리 보내는 것만이 잘 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거리에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거리가 나야지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더 생기고 코스 공략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거리를 늘려주는 올바른 임팩트 자세(왼쪽)와 거리가 줄어드는 좋지 않은 임팩트 자세.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거리는 내지만 아이언은 번호가 다른데도 거리는 그게 그만이 경우가 적지 않다. 거리를 늘리기 위해 체중이동, 헤드스피드 늘리기 등의 노력을 많이 해보았을 터. 하지만 거리를 늘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거리가 늘지 않았다면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자세히 살펴본다. 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클럽의 헤드가 열려 맞아선 안 된다. 하지만 대부분 거리가 나지 않는 골퍼들의 임팩트 자세를 보면 손목이 풀리거나 열려 있다.

아이언 임팩트는 헤드가 내려가면서 볼이 맞는 다운블로 샷이다. 볼을 보다 강하게 때리려면 손등으로 다운스윙 하는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줘야 한다. 왼 손등으로 볼을 눌러 치는 느낌이 들어야 볼을 깊은 각도로 유지시킬 수 있다.

손 날로 임팩트가 이뤄진다면 볼은 높게 뜨고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리는 나지 않는 스윙이 된다. 또한 손이 일찍 풀려서 볼을 퍼 올리는 동작으로 볼을 치고 있다면 특히 더 거리 손실이 많다. 이럴 경우 볼도 높게 뜨고 방향도 똑바로 가기 때문에 이유를 모른 채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 손목이 풀려서 맞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왼쪽 다리와 어깨가 버텨주는 상태에서 손등으로 볼치는 자세를 만들며 연습하면 점차 임팩트가 강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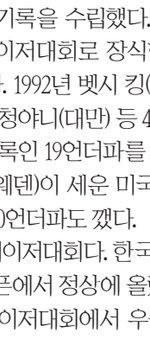
왼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만들어 준다. 임팩트 때 클럽헤드가 양 손보다 먼저 나간다면 일찍 풀리는 임팩트가 되는 것이다. 또한 왼쪽 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다면 열려 있는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동작을 만들어 보며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이때 체중도 왼쪽으로 이동 시켜줘야 한다. 체중을 왼쪽으로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선 임팩트 직후 오른발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 오른쪽 발바닥이 땅에 다 붙어 있으면 그만큼 체중 이동이 되지 않고, 반대로 남아 있게 되어 퍼 올리는 스윙이 된다.

의식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에 가깝게 이동하도록 한다. 무릎을 최대한 가깝게 붙이려고 하다보면 오른쪽 발도 옆으로 뉘어지며 떨어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도 돼 매끄러운 스윙을 할 수 있다.

네이버스포츠 1분 골프레슨 교습가
김수현 펀골프아카데미 원장

여성 위한 '핑 랩소디 드라이버'
개개인 체형·스윙 맞춤형 피팅



장타 드라이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핑골프(www.pinggolf.co.kr)에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성능을 결합한 여성용 신제품 랩소디 드라이버가 인기를 끌고 있다.

G드라이버의 핵심기술인 터뷸레이터 탑재로 공기 저항을 줄여 슬로 스윙스피드를 가진 여성골퍼의 헤드스피드와 볼 속도를 높여 비거리를 늘려준다. 5가지 로프트 조정기능으로 탄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무게 또한 한국 여성 골퍼들에게 최적화되어 가볍게 제작됐다. 개개인의 스윙에 맞게 피팅이 가능하여 여성골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핑 피팅센터 및 전국 핑 피팅센터 지정점에서 여성골퍼의 체형과 스윙에 맞게 피팅 받을 수 있으며 전국 골프전문숍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모델에 비해 약 15g 이상 가벼워진 전체 중량과 스피드를 높여주는 VTF 공법은 트램폴린 효과로 볼 스피드를 높여 폭발적인 비거리를 낸다. 핑 여성그립보다 8g이나 더 가벼워진 랩소디 전용 5L 레이디 그립은 부드럽고 견고하며 여성골퍼의 손 사이즈에 맞게 피팅이 가능하다. 핑

드라이버의 최대 장점인 관용성 또한 랩소디 드라이버의 장점이다. 최적화된 무게중심 설계로 스핀량은 줄여주고 볼의 비행 궤도 및 낙하 각도를 완만하게 하여 볼의 런을 최대로 만들어 준다. 관성모멘트가 최대화되어 더 큰 관용성과 정확성을 제공하며 페어웨이 적중률을 높여 더 똑바로 멀리 보낼 수 있다. 힐 쪽에 더해진 무게는 헤드 로테이션을 빠르게 하여 슬로 스윙 스피드의 여성골퍼도 강하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박성현의 스윙



1 어드레스 2 테이크백 3 백스윙 4 톱스윙 5 다운스윙 6 임팩트 7 폴로스루 8 피니시

장타여왕 박성현, 비결은 '몸통스윙'

장타·그린 적중률·상금부문 1위…올 시즌 7승 '한국그린의 대세'로
일정한 백스윙·최대 105마일 스윙 스피드로 비거리 300야드 넘어
태권도 공인 3단 어머니 닮아 파워·유연성 남달라…정확성도 월등

"박성현은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지녔다. 멀리 치면서도 정확하게 치더라.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경쟁력 있는 선수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중국의 펑산산이 한 말이다.

한국의 에이스 박성현(23·23)은 이렇게 '남다르다'. 신세대 기대주답게 열성팬들을 몰고 다닌다. 171cm, 60kg. 긴 팔과 다리를 갖고 있는데 '통뼈'다. 특히 유연성이 뛰어나다. 장타력이 돋보인다. 핀을 바로 보고 쏘는 아이언샷도 정확성을 지녔다. 태권도 공인 3단인 엄마를 닮아 파워와 유연성이 남다르다. 그는 "장타력은 골반에서 나온다"고 했다. 골반 턴이 잘돼 임팩트 순간에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는 것이다. 고2 때 국가대표에 발탁됐지만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탈락한 아픔을 갖고 있다. 2011년 프로 데뷔 후 맹장수술과 교통사고가 겹쳐 정규 투어 입성이 늦어졌다. 2013년 2부 투어 상금왕에 오르면서 이듬해 1부 투어 시드를 따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 시즌 7승을 거두며 '한국그린의 대세'로 급부상했다.

그의 장타력은 놀랍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리디아 고(19·캘러웨이)도 그의 장타력에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가장 많이 나간 것은 325야드나 됐다. 국내 장타 부문 1위에 올라 있는 박성현은 프로 데뷔 때 입스 현상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다. 드라이버가 자신감이 없어 들쑥날쑥했던 것이다. 방향성이 부정확해지면서 거리도 많이 손해를 봤다. 그러다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스윙을 보완, 완벽한 스윙으로 변하면서 경기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의 장타 비결은 2가지. 하나는 몸통 스윙이고, 다른 하나는 백스윙 때 항상 일정한 손 위치를 꼽았다. 그의 스윙 스피드가 장타에 한몫한다. 평균 97~99마일이다. 최대 105마일의 스윙 스피드로 평균 270야드 이상 볼을 날린다. 지난 6월 열린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는 뒷바람이 살짝 불긴 했지만 310야드를 보내기도 했다. 최경주의 스윙 스피드가 106마일인 점을 감안하면 박성현의 스윙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짐작할 수 있다.

박성현은 몸통 스윙을 한다. KLPGA 투어 데뷔 첫해인 지난해에 드라이버 입스는 몸통 스윙으로 교정하면서 안정감을 되찾았다. 또 백스윙을 팔로 시작하지 않는다. 몸통으로 움직이기에 견고하고 일정한 백스윙이 가능하다. 이는 클럽 헤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된다. 몸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다운스윙과 임팩트가 파워풀하게 이뤄진다. 다운스윙은 히프턴부터 한다. 이미 톱 스윙 때 왼쪽 하체의 이동이 이뤄지기 시작한다. 백스윙 때 꼬아진 히프가 다른 선수보다 힘 있게 풀리면서 폭발적인 파워가 형성되는 것이다. 근력이 부족하면 체중 이동을 급하게 하면서 힘을 모을 수 없다. 박성현은 강한 허리를 이용해 버틴다. 다운스윙 때 손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강점이다. 임팩트 때 양발을 모두 지면에 붙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체중 이동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거리와 방향성을 모두 좋게 한다.

박성현은 올 시즌 드라이브 평균거리 264.94야드(1위), 페어웨이 안착률 70.25%(128위), 그린적중률 80.26%(1위), 평균 퍼팅수 29.82타(6위), 평균타수 69.62타(1위)를 기록하며 상금 12억1353만 원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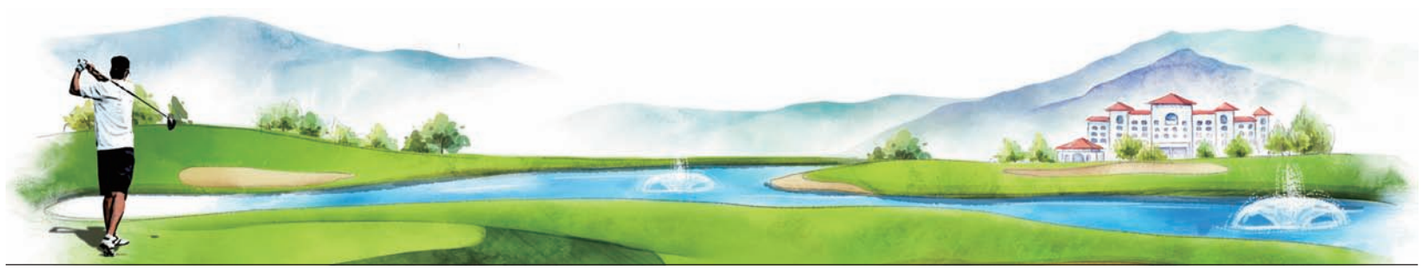
글/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사진/JNA 한석규 포토

골프 TIP

올 시즌 7승을 올리고, 상금 12억 원을 돌파한 박성현(23·넵스). 그의 드라이버 샷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다. 한화금융클래식에서 미국의 에이스 렉시 톰슨과 장타 대결을 벌인 박성현은 280야드 이상 시원하게 때렸다. 박성현처럼 엄청난 장타는 아니더라도 거리를 늘리길 바라는 아마추어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박성현의 폴로스루를 잘 보자. 길게 시원하게 목표 방향으로 헤드를 잘 던진다. 이것만 잘해도 거리가 늘어난다. 그런데 단타자(短打者) 아마추어는 이것을 잘 못한다. 임팩트 이후 길게 가져가야 하는 폴로스루를 대개 끊는다. 오른팔을 펴지 못하고, 왼쪽 팔을 잡아채 앞으로 더 나가야 할 헤드가 왼쪽으로 올라간다.

박성현처럼 드라이버 장타내려면
임팩트 순간 왼쪽다리 잡아주고
목표 방향으로 클럽 던지듯 쳐야

멋진 폴로스루를 못하는 것은 하체가 견고하지 못해서다. 하체가 안정돼야 몸의 오른쪽을 잘 휘둘러 샷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클럽을 집어 던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오른팔은 곧게 뻗어 정확하게 목표 방향을 가리키는 자세가 돼야 한다. 임팩트 순간에 왼쪽 다리를 벽처럼 탄탄하게 잡아주고 오른팔을 곧게 펴야 완벽한 폴로스루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보다 20야드 이상은 늘어나고 방향성도 좋아질 것이다.



혼마 '비즐 525 레이디스 클럽' 여성골퍼들 입소문 타며 인기



이보미와 김하늘이 사용해 잘 알려진 혼마골프(대표이사 이토 야스키)가 스코어를 줄이고자 하는 주말골퍼를 위한 비즐(Be ZEAL)525의 레이디스 클럽이 여성골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비즐은 팀 혼마를 포함한 스코어 향상을 원하는 열정있는 골퍼인 혼마니아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투어월드 브랜드의 개발력을 내세워 탄생한 새 브랜드이다.

그 비즐에서, 1타라도 줄이고 싶고 1야드라도 멀리 날리고 싶은 골프에 대한 열정과 향상심이 넘치는 여성골퍼를 위하여 보다 쉽고, 보다 멀리 나가는 비즐 525 레이디스가 탄생된 것.

비즐이란 '열정(ZEAL)을 품어라'라는 의미로 브랜드 콘셉트는 스코어 향상을 목표로 하는 주말골퍼를 위한 클럽이다. 투어월드를 사용하며 세계 프로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팀 혼마의 까다로운 니즈에 대응해왔던 혼마골프의 개발력을 여성골퍼에게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샤프트는 비즐525와 같이 여성클럽의 헤드에 잘 맞는 전용 샤프트로, 헤드와 샤프트의 매칭을 중시한 토털 고차원 설계로 제작됐다. 드라이버, 페어웨이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모두가 포착성이 좋으며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다. 때문에, 여성골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최대의 비거리와 스코어 향상을 할 수 있는 클럽이다. 이로써 혼마골프는 비즐 E-05 레이디스 모델로 모든 여성 타깃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클럽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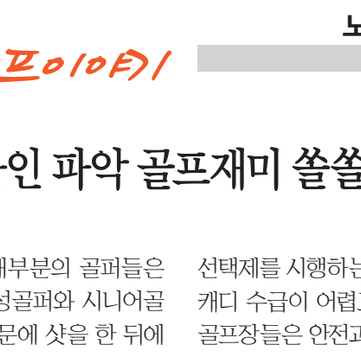
안성찬의 골프이야기 — 노캐디제와 워킹골프

거리 측정·라인 파악 골프재미 쏠쏠…건강은 덤

전동카트를 도입한 후 대부분의 골퍼들은 걷기를 싫어한다. 특히 여성골퍼와 시니어골퍼들은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샷을 한 뒤에 카트를 타려고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일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걸으면서 라운드를 해야 할 것 같다. 캐디가 자연 감소되는데다 '김영란법'으로 골프장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수동카드나 자동카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걷는 골프'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사실 전동카트를 운행하기 전까지는 모두 걸으면서 플레이했다. 국내 골프장들은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걷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걸었다. 캐디가 백을 메던 때는 물론 수동카트가 도입됐을 때도 여전히 골퍼들은 걷는다는 것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심한 험난한 코스를 잘도 걸어 다녔다.



이 때문에 골프는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수 있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실제로 골프를 하고 나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유는 걸었기 때문이다. 군산컨트리클럽 등 일부 골프장들이 '노캐디제'와 '셀프라운드'를 도입하면서 '워킹골프족'이 늘어나고 있다. 워킹족 골프모임도 생겼다.

전 세계의 75%가 노캐디제로 골프장을 운영한다. 일본은 80% 이상, 유럽과 미국의 90%가 넘는다. 인건비가 비교적 싼 동남아시아 중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만 캐디를 주로 쓰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캐디가 거의 없다. 이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캐디 강국'이다. 국내 500여 개 골프장 중 노캐디와 캐디 선택제를 시행하는 곳은 50여 곳에 불과하다. 캐디 수급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골프장들은 안전과 골프장 관리 때문에 쉽게 캐디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팀당 8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기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접대골프가 아닌 운동이 목적이라면 '1인용 카트'가 전동카트의 대체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워킹골프는 여러모로 유익하다. 걸으니 건강에 좋고, 비용도 절약되며, 무엇보다 캐디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동반자끼리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다. 카트를 끌고 페어웨이와 그린 주변에 다가갈 수 있어 진행도 빠르다. 무엇보다 전동카트 때와 달리 클럽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거리계산이나 그린의 라인을 봐야 하므로 골프에 대한 인식이나 기량도 함께 올라간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라인을 스스로 파악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골프의 재미도 쏠쏠하다.

1인용 카트를 사용하면 1인당 5000원~1만 원. 전동카트와 캐디를 쓰지 않으면 한 팀에 16만~18만 원이나 절약된다. 식음비와 회식비용도 빠진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1인용 카트는 케이제이골프에서 수입하는 영국의 스튜어트 전동골프트롤리와 파워캐디가 있고, 캐디카트 코리아가 수입하는 독일의 전동풀카트 이모션캐디가 있다.

무엇보다 잔디를 밟으며 5km 이상 걷는 '워킹골프'는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부족해 생기는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암의 후유증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약(妙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골프대기자 golfahn58@

"전인지·김하늘 모자와 우산 받아가세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6~10일 여주 블루헤런CC서 열려

국내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

루키 전인지(23·하이트진로) 출전이 확정된 가운데 올해 대회는 연습 라운드가 갤러리에게 공개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는 이 대회는 단일 기업(하이트진로·회장 박문덕)이 스폰서 중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다 단일 코스(경기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만 15년째 개최되고 있다.

10월 6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가을 골프 축제의 성격으로 열린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는 '팬스데이'로 정하고 연습일을 개방해 골프팬들이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코스 곳곳을 사진 촬영하고 좋아하는 선수들의 스윙 사진과 동영상도 마음껏 찍으면서 소통하는 열린 축제의 공간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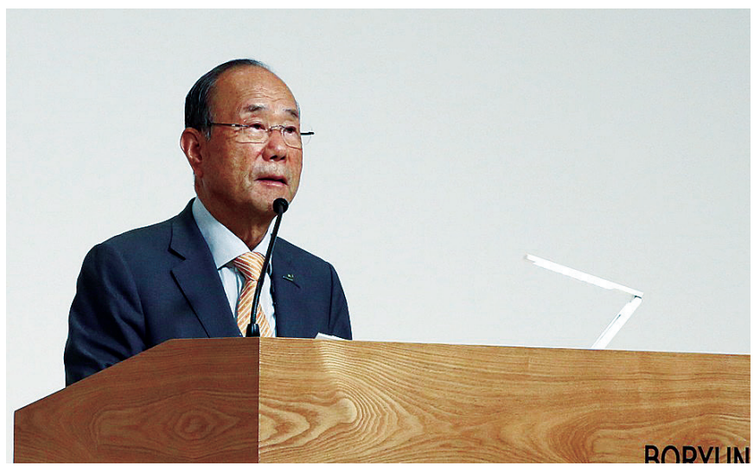


올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3, 4라운드가 펼쳐지는 주말(8, 9일) 이틀간은 갤러리가 챔피언의 탄생과 함께한다는 블루데이로 치러진다. 푸른색 옷을 입고 골프장을 찾은 갤러리에게는 주요 선수(김하늘, 전인지, 전미정, 박성현, 고진영)들의 응원 구호가 새겨진 응원 머플러, 갤러리백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무료 입장이 가능하지만 유료 티켓을 구매하면 하이트진로 소속 선수인 전인지, 김하늘의 사인이 들어간 모자와 우산이 제공된다. 1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창업 59주년 맞은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 "도전적 사고로 창업 60년 준비할 것"

과거와 현재 잇는 60주년 눈앞
'100년·글로벌 보령' 출발점으로
장기근속자·우수사원 표창도



보령제약그룹이 10월 1일 창업 59주년 기념식을 종로구 본사 중보홀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창립일을 맞은 보령제약(창립 53주년), BR네트콤(창립 20주년), 보령중보재단(설립 8주년)의 창립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보령제약그룹은 김승호〈사진〉 회장이 1957년 10월 1일 종로 5가에서 보령약국을 창업한 것을 시작으로, 6년 뒤인 1963년 보령제약을 설립했으며 현재 보령메디앙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 보령수앤수, 보령A&D메디칼, 킴즈컴, 비알네트콤 등 8개 가족사로 이뤄져 있다.

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내년 보령 창업 60년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100년 보령, 글로벌 보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도전적인 사고로 창업 60년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와 우수사원, 공로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우선 장기근속자 표창에는 보령제약 김충석 선임기사, 안부걸 수석기사, 장병섭 선임연구원 등 3명이 30년 근속 표창, 보령중보재단 김성원 전무, 보령메디앙스 김규태 부장 등 20명이 20년 근속 표창, 보령바이오파마 김태연 상무 등 47명이 10년 근속 표창을 각각 받았다.

또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으로 BR리더상은 그룹전략기획실 이영 이사, 보령바이오파마 김대욱 부장, 보령메디앙스 원성영 부장 등 6명, 보령제약 이상윤 과장 외 36명이 뉴프론티어상, 보령제약 제조본부 PKG팀 곽보은 기능사 외 5명이 일반공로상을 받았다.

보령제약은 자체 개발한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세계 41개국에 진출시키며 국산 신약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세계고혈압학회의 메인 스폰서를 맡았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으로 세계 규모 학술대회 심포지엄을 연 것은 최초이며, 이는 국산 신약의 글로벌 마케팅이 한 단계 도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KT&G가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KT&G장학재단에 200억 원을 출연한다.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서 KT&G장학재단 주최로 열린 '상상장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G

KT&G, 장학사업 확대 위해 200억 출연

사회배려계층 자녀 지원 등 강화

KT&G가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자한다. KT&G는 150억 원 상당의 자기주식과 50억 원의 현금 등, 총 200억 원을 KT&G장학재단에 출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출연금을 포함해 KT&G가 이 재단에 출연한 누적 금액은 총 937억 원에 달한다.

KT&G장학재단은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 전개를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주력 사업은 사회배려계층 자녀들의 장학금과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는 '상상 장학사업'이다.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토털 케어(Total-Care)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체능 특기자를 지원하는 '예체능 장학사업'과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상상 리스타트(Restart) 사업'을 새롭게 추진, 장학사업을 한층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KT&G장학재단은 이번에 출연 받은 주식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한 KT&G 사회공헌실장은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 이념 중 하나인 '함께하는 기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



GS25는 경기도 포천의 한 군 부대를 깜짝 방문해 400인분의 간식을 전달하는 'GS25 황금마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GS25

"땡큐 솔저스" GS25, 400인분 간식 군부대 전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군 부대를 깜짝 방문, 400인분의 간식을 전달하는 'GS25 황금마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깜짝 방문은 국방부가 진행하는 '땡큐 솔져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국방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장병 가족들의 사연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군대 보낸 막둥이 동생을 걱정하며 동생이 복무하고 있는 군 부대에 간식을 전달하고 싶다는 누나의 사연을 선정했다.

GS25는 샌드위치, 음료, 스낵 등 400인분의 간식을 싣고 사연의 주인공이 있는 포천의 군부대를 깜짝 방문해 국토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예상치 못했던 가족의 방문에 군인 동생은 눈물을 자아냈으며, 뜻밖의 방문과 가족의 감동적인 만남에 부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는 후문이다.

GS25는 이번에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외에도 지난 6월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목함지뢰 부상 장병 시구, 시타 행사에서 GS25 연간 이용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사장〉

거래소 떠나는 최경수 "지주사 전환 미완 아쉬워"

체제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제도 개선으로 작년 190개사 상장

차기 이사장에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최경수〈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래소의 성공적인 지주회사 개편 마무리를 당부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거래소의 체제 개편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사장으로서 임기 동안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떠남에 대해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성공적으로 체제 개편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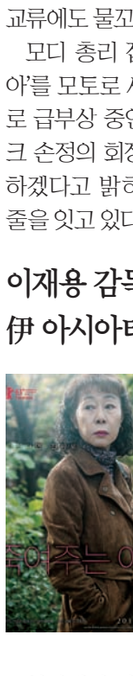
최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성과로 상장제도 개선과 상장유치 전담조직 신설, 가격제한폭 확대, 거래시간 연장, 시장친화적 제도·인프라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작년 한 해 190개사가 상장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를 미완의 숙제로 남기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30일) 서울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스타트업콘' 내달 11~12일 개최
라시미 반샬 인도 전문가 강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타트업콘(Startup:CON 2016)'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도 스타트업과 기업가정신 전문가인 라시미 반샬〈사진〉 블루디굿북 최고경영자(CEO)가 특별강연에 나선다. 라시미는 인도의 유명 작가이자, 현지 청년 창업 전문가다. 그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펩시의 인드라 누이 등 다국적 기업을 움직이는 인도 특유의 기업가정신을 국내 창업가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 라시미는 강연 이후 인도에 소개할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스타트업 교류에도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스타트업 인디아'를 모토로 세계 3위 스타트업 대국으로 급부상 중인 인도는 올 초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1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외투자 유치가 줄을 잇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이재용 감독 '죽여주는 여자'
伊 아시아티카영화제 작품상



이재용 감독, 윤여전 주연의 영화 '죽여주는 여자'가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폐막한 제17회 아시아티카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영화제의 장편영화 경쟁부문에 출품된 '죽여주는 여자'(영문제목 Bacchus Lady)는 "금기시된 주제를 용감하게 다룬 영화"라는 평가 속에 심사위원이 선정한 최고의 작품상을 탔다.

노인들의 성매매를 소재로 우리 사회가 좀처럼 보려 하지 않은 노인의 성(性)과 죽음을 정면으로 다룬 이 작품에는 윤여정, 전무송, 윤계상 등이 출연한다.

아시아티카 영화제는 로마에서 열리는 가장 오래된 아시아 영화제로 매년 90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이란, 터키, 이스라엘, 몽골 등 아시아 전역에서 출품된 영화 40여 편이 관객과 만났다. 시상식에는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의 이수명 홍보관이 작품상을 대리 수상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여인홍 aT 사장 오늘 취임



신임 여인홍〈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여 사장은 취임식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경제 위축 등에 따른 농어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년에 출범 50년을 맞는 aT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사장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했다.

김덕헌 기자 dhkim0715@

시인 허수경 '너 없이 걸었다' 제 6회 전숙희문학상



시인 허수경〈사진〉 씨가 제6회 전숙희문학상을 수상한다.

파라다이스그룹이 후원하는 한국현대문학관 전숙희추모위원회는 올해 전숙희문학상 수상작에 시인 허수경 씨의 수필 '너 없이 걸었다'를 최종 선정했다.

추모위원회는 "이번 작품은 독일의 명시를 구심점으로 인간 내면의 상처를 보듬어 내는 작가의 따뜻한 감성과 문장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수경 시인 역시 "수필집의 제목에서 '너 없이'란 언제나 그리워했던 모국어였다"며 "독일 뮌스터에서 20여 년간 생활하며 느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이 수필집에 담겨 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시상식은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한국현대문학관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필가 전숙희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평전 '벽강 전숙희' 출판기념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경 기자 s914@

'잘있거라 부산항' 원로가수 백야성 별세



원로가수 백야성(본명 문석준) 씨가 2일 급성 신부전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 씨는 뇌경색으로 1년 반에 걸쳐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전날 갑작스러운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1남 2녀가 있다.

1934년생 9월 서울생인 백 씨는 1958년 공군 복무 중 오아시스레코드 전속가수 모집을 통해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958년 미성의 창법으로 부른 '홍콩아 잘있거라', '마도로스 부기'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1960년대 초 발표했던 '잘있거라 부산항'(1961년), '항구의 0번지'(1962년), '마도로스 도돔바'(1962년) 등이 그의 대표적인 히트곡이다.

고인은 전성기였던 1960년대 왜색가요, 왜색창법 등 이른바 왜색 시비에 휘말려 모든 노래가 금지되기도 했다. 20여 년이 지난 1986년, 자신의 노래들이 해금된 뒤 KBS '가요무대'를 통해 복귀했다. 그는 서민의 애환을 그린 '한 달의 봉급은 삼천삼백 원', '센티멘탈 서울' , '왈순아지매' 등 궁핍했던 시기에 어려운 우리 이웃을 대변하는 노래를 많이 발표해 서민의 정서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인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박성동

◆**외교부** ◇**국장** △정책기획관 마상윤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유정현 △유럽국장 임수석 △국제기구국장 이장근 ◇**심의관(급)**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김은영 △국제기구국 협력관 임정택 △유럽국 심의관 정기홍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서두현 ◇**부이사관 승진**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 파견 정소운 △운영지원과장 오대석 △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장 김창현 ◇**서기관 승진** △국무조정실 파견 김기혁 △감사담당관실 김상권 △대변인실 이효정 △기획조정실 이성재 △통일정책실 황선혜 홍성옥 △정세분석국 나중출 △교류협력국 윤정숙 △공동체기반조성국 강준석 홍양희

◆**보건복지부** ◇**국장급 신규 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이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파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김성근

◆**조달청** ◇**과장급 신규 임용(개방형 직위)**△정보관리과장 곽희섭

◆**경찰청** ◇**총경급 전보**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구재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곽병우 △서울 강서경찰서장 박성주 △서울 방배경찰서장 고진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장 엄성규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 윤동춘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대기) 이원희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장 천범녕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대기) 현춘희 △충북 음성경찰서장 이광숙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정보통계담당관 김찬회 △국유림관리과장 염종호

◆**방위사업청** ◇**과장급 임용** △지출심사팀장 함수영

◆**한라그룹** ◇**부사장 승진** △만도 최병락 △한라홀딩스(마이스터) 김인태 △정도경영실 김만영 ◇**전무 승진** △한라홀딩스 이현정 △한라 이성복 이상철 이민재 △만도 강봉수 심상윤 조기행 김용걸 강치원 △한라택폴 강철 ◇상무 승진 △한라 김민기 △만도 이상철 안철우 유호영 백창렬 김현준 이성규 김성일 △한라스택폴 백보현 △한라인재개발원 오승근 ◇**상무보 승진** △한라 홍장호 김원식 김선준 길종선 황석길 10 △만도 전명환 김재혁 오금순 정병후 홍대건 유병호 유기현 최재영

◆**KBS** ◇**본사** △방송본부 영상제작국 총감독 박혁준 △미래사업본부 디지털서비스국 디지털서비스기획부장 윤선원 △미래사업본부 인프라투자국 제작시설부장 최무경 ◇**지역** △창원방송총국 기술국장 문정석 △대전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표만석 △대전방송총국 기술국장 최정규 △청주방송총국 기술국장 류종열

◆**전북일보** △전략기획국장 정대섭 △편집국장 김준호

◆**TV조선** △편집에디터 김홍진 △사회부장 이진동 △전국부장 권혁범 △시사제작부장 정한 △편집2부장(직대) 배태호 △기획취재부장(직대) 안석호

부음

▲**김호선**(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씨 모친상, **정민걸**(공주대 교수)·**변동수**(전 홍익대 교수)씨 장모상, **최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씨 시모상 =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5시, 02-3410-6906

▲**김현승**(몽고식품 대표)씨 장모상 = 3일,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33-741-1991

▲**박일출**(전 여수·나주시장)씨 별세, **박종문**(동신대 교무처 학사지원팀장)·**종무**(LG화학 나주공장 실험팀 근무)씨 부친상, **정길준**(국회사무처 시설과장)·**안동준**(이지더원 건설 상무)씨 장인상, **조수일**(광주 풍암중 사서교사)씨 시부상 = 3일,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62-670-0054

▲**김태규**(코리아타임스 경제부 IT&금융팀장)씨 장인상 = 3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70-7606-4188

▲**최병길**(전 인천대 부총장)씨 모친상 = 3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32-340-7300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5화 비오는 날은 동쪽으로 가야 한다 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창문 유리를 소리 없이 적시는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린다.

하느님이 울고 있는 걸까?

도시남은 엉뚱한 상상인 줄 알면서도 허리를 숙여서 하늘을 봤다. 잿빛으로 낮게 엎드려 있는 하늘이 보인다. 건너편 50층짜리 빌딩은 아예 옥상을 하늘에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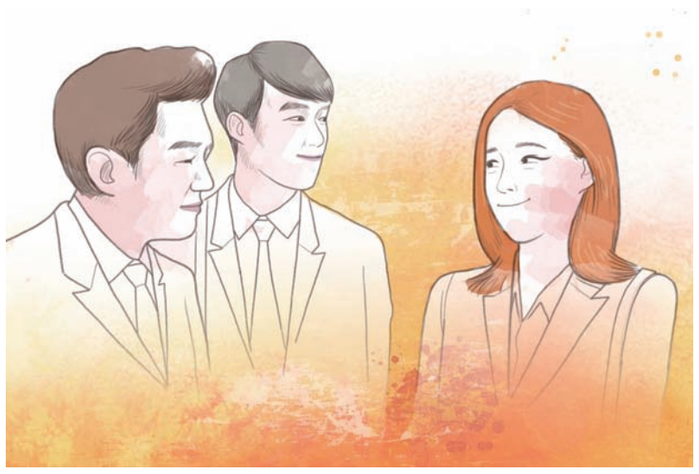
비가 내리는 날은 마음이 따뜻한 친구가 그립다. 작은 고깃집 연탄 화덕을 가운데 두고 앉아서 돼지갈비 굽는 냄새를 향수 삼아 정다운 말들을 주고받고 싶다. 화덕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천장에 구름처럼 떠 있고 친구의 얼굴에 노을이 지면 고향이 달려올 것이다.

"알지? 그때, 강가에서 있었던 일."

얼굴에 빨갛게 노을이 진 목젖이 보이도록 웃어 제낄 것이다.

"너, 아직도 그 생각 하냐?"

그날 푸른 자전거를 타고 강둑을 달려가던 때가 어제 일처럼 떠오를 것이다. 미루나무 숲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바라보던 단발머리. 그 여학생의 하얀 치아에 박살 나는 햇살이 눈이 부셔서 얼굴을 돌리면 어디선가 날아온 찔레꽃 향기가 코를 찌르던 날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다.



세월이 가기는 가는구나….

도시남은 소리 없이 웃으며 의자에 바로 앉았다. 벽시계가 퇴근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잠시 추억 속을 더듬던 시간들이 한숨을 밀어낸다. 가슴이 들썩거릴 정도로 길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친다.

"약속 있어?"

업무부의 고 차장이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고 싱긋이 웃으며 서 있다.

"비 오잖아."

"비가 오니까 묻는 말이잖아."

"이런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스톱, 딱 거기까지만."

고 차장이 검지를 펴 보이며 도시남의 말을 막았다.

"뭐 좋은 일 있어?"

"아침에 태평양약품 거 샀잖아. 그거 상한가 쳤어. 잽싸게 팔아 치웠지."

고 차장이 히죽 웃으며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오! 그럼 한잔 사야겠네."

고 차장은 1년 전 퇴직금을 정산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도시남이 손가락으로 술 마시는 흉내를 내보이며 일어섰다.

"나보라 씨? 오늘은 데이트 약속 없어?"

고 차장과 도시남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업무부 고객지원팀 직원 나보라가 서 있다. 고 차장이 옆으로 가서 은근하게 물었다.

"저, 앞으로 남자친구 안 키우기로 했어요. 근데 두 분이 한잔하시려?"

나보라는 핸드백을 고쳐 메며 도시남에게 까닥 고개를 숙여 보인다.

"고 차장이 오늘 거하게 한턱 쏜다는데 생각 있으면 따라붙어."

도시남이 나보라를 중심으로 고 차장 반대편에 섰다. 우산을 만지작거리며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어머? 복권 됐어요?"

나보라가 고 차장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내가 알기로는 복권은 토요일 추첨하잖아."

"그럼 돈 주웠어요?"

"돈 주워서 술 마시다 걸리면 점유이탈물 무단취득죄로 걸린다는 거 몰라?"

"주식으로 200만 원 벌었대. 그러니까 부담 없이 따라붙어도 괜찮아."

"어머! 정말이에요?"

"싹!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오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단타라고 하는 거야."

고 차장이 생각만 해도 신이 난다는 얼굴로 복싱하는 흉내를 냈다.

"그럼 저도 같이 갈래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나보라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토끼처럼 뛰어들며 말했다.

구청 옆 가로 공원에서 몇몇이 우산을 들고 서 있다. 도시남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색소폰 선율에 고개를 돌렸다. 가로 공원에서 레인코트를 입고 가죽 모자를 쓴 중년이 색소폰을 불고 있다.

도시남은 걸음을 멈췄다. 뒤에서 따라오던 나보라가 우산을 접으며 도시남 옆에 붙었다.

"연주하는 곡 제목 아세요?"

"가방을 든 여인 주제곡."

나보라가 속삭이는 말에 옆에 서 있던 고 차장이 대신 대답했다.

"옛날 영환데, 어떤 여자가 가방하고 함께 버려진…그런 영화랴."

고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나보라에게 다시 말했다.

"차장님은 영화 안 보셨네요?"

"영화는 안 봤지만 저 음악은 알고 있지. 근데 가방을 든 여인을 3자로 줄이면 뭔 줄 알어?"

"가방녀?"

"빽든년."

고 차장은 웃지도 않고 짤막하게 말했다. 도시남은 고 차장이 아는 척하는 말에 끼어들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실비가 내리는 날 바바리코트를 입고 거리에서 파우스토 파페티(Fausto Papetti)의 색소폰 연주곡을 부는지 알 수가 없다. 가슴에 색소폰의 선율이 추억의 엽서로 한장씩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형이 입영 영장을 받은 날은 토요일이다. 방문을 열어 보니까 형이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천천히 돌아가는 LP판에서 색소폰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왔냐?"

인기척에 일어나 앉는 형의 눈에 얼핏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다.

충성, 짜낼 것인가 우러나게 할 것인가

김성회의 인문경영



CEO리더십연구소장

사랑과 권력의 공통점은? 첫째,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 둘째, 자꾸 확인받고 싶다는 것. 셋째, 공동운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Show me your loyalty(love)!' 충성에 대한 요구와 갈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리더의 본능이다. 동서고금 리더들이 충신을 간 볼 때 물어보는 일관된 질문의 요지는 하나였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위기 시에도 같이할 것인지 묻는 것이었다. "내가 위기에 처하더라도(네가 불편, 불리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등 돌리지 않고 나와 함께할 것인가?"

중국 제나라의 진성자란 인물도 신하인 치이자피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치이자피의 대답이 걸작이다. "임금이 죽어도 신하는 죽지 않고, 임금이 도망가도 신하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섭섭해하는 진성자에게 치이자피는 반전의 부연설명을 한다.

예로부터 충성엔 두 가지 유형 있어
피를 토하며 간언하는 사육신型과
늘 심기경호하느라 애쓰는 내시型

조직 충성과 상사 충성이 따로 노는가
충성이 냉소 대상인가 열정 요소인가
스스로가 어떤 리더인가 자문해봐야

임금이 죽거나 도망가기 전에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죽거나 도망가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동생동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예방 아니겠는가. 자신은 위기가 닥치기 전 미리 직언을 해 막고자 할 것이고, 그 직언을 받아들이면 같이 죽을 일도, 도망갈 일도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뒤집어 보면 직언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운명을 같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장작단을 지고 불길에 같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길에 뛰어들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충성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불가(不可·아니되옵니다)"를 외치며 피를 토해 간언하는 사육신 스타일이다. 또 하나는 "불가불가(不可不可·아니될 리가 없사옵니다)"라고 콧소리를 내며 늘 심기경호를 하느라 애쓰는 내시 유형이다. 리더가 충성에 집착할수록 '불가파'보다 '불가불가파'가 발호하고, 우스꽝스러운 과당 심복경쟁이 벌어진다. 이벤트를 잘한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말은 충성에도 적용된다. 가시적 맹세와 과시적 이벤트의 충성일수록 허장성세이기 쉽다.

이 때문에 옛사람들은 진품 충성과 짝퉁 충성을 구분하고자 했다. 명령을 따르되 임금을 이롭게 하는 것은 순(順)이지만, 명령을 무조건 딸랑이로 좇아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은 유(諛), 즉 아첨이라고 봐 구별했다. 물론 거스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명령을 거슬러 임금을 이롭게 하는 것은 충(忠)이지만, 걸핏하면 엇박자로 명령을 거슬러 임금을 해롭게 하는 것을 난(亂)이라고 보아 경계했다. '사사건건 딴지부터 걸고 넘어지는 불가파도 병폐지만, 딸랑이로 따르는 무조건 충성파는 더 위험하다. 반대파는 무시하거나 내치면 그만이지만, 무조건 충성서약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조직을 망치기 때문이다.

윗사람을 잘 모셔 일을 돕다는 뜻의 보필(輔弼)의 자원을 살피면 충성의 진정한 의미가 한결 명확해진다. 보(輔)는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수레 바퀴를 튼튼히 하려고 바퀴에 묶어 보완하는 덧방나무란 뜻이다. 도울 필(弼)은 뒤틀린 활이나 쇠뇌를 바로잡는 도구다.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에서 '돕다'란 의미가 나왔다. 즉 잘하는 것을 보강해 더 잘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의 진언과 금지의 간언을 통해 리더를 돕는 것이 진정한 보필이다. 한비자가 오죽하면 "직언을 하지 않는 자에게 페널티를 주라"고 말했겠는가. 진정한 충(忠)은 글자 그대로 마음(心)에 기준(中)을 갖는 일이지, 중심, 조직의 기준이 흔들린 채 상사의 기분에만 맞추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군림의 리더 놀이 아닌 책임의 리더 노릇

공자는 '논어'에서 군주가 나라를 망치게 할 말은 "나는 군주 된 즐거움이 딴 것은 없고 내가 말을 하면 아무도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책임의 리더 노릇'은 하지 않고, '군림의 리더 놀이'만 하려고 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죽비소리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모두들 벌벌 기며 찍소리도 못 하길 바라는 리더 놀이 유형일수록 배신 트라우마가 강하고, 가시적 충성서약을 요구한다. 충성의 역설은 가까이하려 할수록 멀어지고, 잡으려 할수록 도망간다는 점이다.



진정한 충(忠)은 글자 그대로 마음(心)에 기준(中)을 갖는 일이지, 조직의 기준을 흐트린 채 상사의 기분에만 맞추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비자는 "직언을 하지 않는 자에게 페널티를 주라"고까지 말했다.

정치평론가 제이콥 와이즈버그는 "부하들의 충성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은 나쁘다. 그런 대통령들은 고립될 뿐 아니라 피해망상에 젖어 조폭과 같은 패거리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결국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내 편이 아니면 입도 열기 싫고, 눈길도 주기 싫고, 늘 등 뒤의 배신에 긴장하는 것은 리더의 도덕적, 심리적 불안의 반증이다. 충성은 눌러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절로 우러나게 하는 것이다. 군림의 리더 놀이가 아닌 책임의 리더 노릇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 몇 가지를 명심하자.

무리한 충성보다 합리적 충성을 요구하라

군림형 상사는 무리를 하는 것을 충성서약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책임형 상사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합리를 진정한 충성으로 여긴다. 충성은 무리를 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협객 예양은 자신이 모시던 군주 지백에게 충성하고자 스스로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코를 잘라 외모를 흉하게 만들고는 조양자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했다. 과연 이것이 충성인가? 한비자는 "군주의 명예를 위해 몸을 상하게 하고, 군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는 명성은 있지만 지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백해무익했다고 비판한다. 예양의 교훈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몸을 상하며 하는 무리한 충성에 높은 점수를 주지 말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진정한 충성이다.

기분보다 기준을 맞추게 하라

책임형 리더가 충성 여부를 알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다. 조직의 기초가 되는 제도와 법을 충실히 지키는가. 상사에게 하는 충성과 조직에 하는 충성이 따로 놀며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를 분명히 하라.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을 조폭의 무조건적 복종과 착각하는 순간, 책임은 군림으로 변질된다. 현명한 리더는 충성을 구걸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모 기업의 K 대표는 "내가 혹시 기준을 어긴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나에게 지적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하들의 책임이다. 그것을 잘해주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연말에 이에 따라 인사를 한다. 제도와 원칙의 준수 앞에서는 개인적 적대감은 뒤로 미루라.

좋은 친구보다 위대한 리더가 되어라

좋은 친구는 위대한 리더가 되기 힘들다. 적대감 관리 못지않게 힘든 게 친밀감이다. 오죽하면 의리나 우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겠는가. "자리에 오르더니 안면몰수하네. 그 사람 변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리더들은 상심한다. 이는 책임 리더가 겪어야 할 숙명이자 업보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황제가 된 후, 맨발로 함께 농사 짓고 얼굴에 진흙을 묻힌 채 장난을 치던 친구들이 그리웠다. 그리하여 친구들에게 벼슬을 주기도 했다. 한 번은 친구들을 어전 모임에 초대했는데, 대신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자, 가차없이 처단했다. 체면 손상을 떠나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었다. 공자 역시 동네의 오랜 친구 원양이 가르침을 어기자 지팡이로 무릎을 치며 엄혹하게 야단을 쳤다. 가치와 원칙이 우정과 인연에 앞선다. '비정한 냉혹'으로 좋은 친구가 되길 포기할 때, 책임형 리더가 될 수 있다.

당신은 군림형 리더 놀이를 하는가, 책임형 리더 노릇을 하는가? 이에 대한 판별 질문은 간단하다. 조직 충성과 상사 충성이 따로 노는가? 충성은 일을 하는 데 촉진 요소인가? 아님 오히려 일의 지체 요소인가? 충성은 냉소의 대상인가, 열정의 요소인가? 개인적 적대감뿐 아니라 친밀감 모두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책과 사람

PART1. 책에서, 그리고 책 읽기에서 놓여나기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PART2. 전영애 서울대 명예교수의 여백서원(如白書院)
PART3. 마지막까지 남는 책은 무엇일까 한기호 출판평론가
PART4. 중고 책 거래 6가지 지침
PART5. 쌓여가는 마음의 양식 소화하기
PART6. 알고 활용하면 쏠쏠한 온라인 서점
PART7. 이태주 한성대 교수의 서재, 책 말고 다른 물건(?)도 많다
PART8. 나만의 책, 무엇을 어떻게 담을까?
PART9. 동년기자들의 책 이야기 백외섭·김영섭·박혜경 동년기자
PART10. 초고가 희귀본 품귀 속 거래·전시회 활발 남진우 뉴욕주재기자

브라보가 만난 사람



'인생 2막'에 펼친 한글 패션 디자인 '제1장' 한글 디자인 패션브랜드 창시자 이건만 대표



'空사상' 심취 치과의사, 불교학자가 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김성철 교수



코디 최, 아무도 모른다? 세상 밖은 안다! 미술가·문화이론가 코디 최

10월의 맛

황금빛 가을, 통밀로 통(通)하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입에 당겨도 몸을 생각하면 조금은 꺼려지곤 한다.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중식을 먹고 난 뒤 찾아오는 '더부룩함'. '밀가루 면'이 바로 그 주범이다. 그렇다면 '면'을 바꿔보는 것 어떨까? '싱가'의 고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CEO 칼럼

민경선 ㈜커뮤즈파트너스 대표이사

분배의 오리진



필자의 회사는 '브랜드 인큐베이팅(Brand Incubating)'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 크고 작은 많은 중소기업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제품의 특징에 브랜드라는 포장을 입히고, 이를 판매 가능한 범주로 끌어올리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 중소기업과 판매 이익을 공유한다. 분배율이 사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 누가 성공에 '기원(Origin)'했는지, 누가 더 자신을 '인정(Risk)'했는지에 따라 정해지곤 한다. 혹자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더 아쉬운 입장에 있는지, 또 누가 더 협업하고 싶어 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경험상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됨을 이제서야 알게 된다.

분배에 대한 가치 기준을 논할 때, 흔히 우리는 '성공의 오리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점검해본다. 잘 만든 것이 오리진이 될 것인지, 잘 파는 것이 오리진이 될 것인지,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는데 많이 팔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큰 것인지 등이다. 특히 많이 팔기 힘든 제품을 죽을 힘을 다해 판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면, 분배율을 과점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등의 무엇이 성공의 오리진이 될지는 사실 양자 간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분배하는 입장에는 사전(before)과 사후(after) 상황에 따른 자신의 주관성과 뜻모를 자기 합리화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누군가와 작은 의미로 동업(同業), 거창한 의미로 상생하려다 보면, 문제는 인정(출자)과 분배에서 벌어진다. 성공한 이후 '욕심이 과하다'거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 제 밥그릇을 챙기는 식'으로 비친다는 것은 보는 이나 비춰지는 사람 모두에게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분배의 문제는 처음 계약 과정에서 발단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도 결과에 승복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사(혹은 유통사)와의 계약서라는 것이 단지 문서상 대등한 관계일 뿐 힘의 위계(Hierarchy) 자체가 수평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형상으로 계약의 모양새가 순탄하게 보일 뿐, 서로 언제든 자신의 몫에 대한 분배의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상생을 운운하는 것이 못 미더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언제 어떤 위험이나 달콤한 열매도 서로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의 믿음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든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글로 작성한 계약서보다는 동업과 상생의 미래 가치가 사안이 발생할 때 판단할 기준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제 필자의 회사에서는 성공이 무엇에 기인했는지를 애써 따지지 않는다. 서로가 자신의 능력치를 100% 쏟아부었는지, 성공의 열매에 대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재분배의 몫을 남겨두었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첫 성공의 역할이 된다.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망진단서를 보았는가?

주변에 적지 않은 죽음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하지만 항목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다. 사인이 명백한 죽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백남기 씨의 죽음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논란 때문이다.

첫눈에 바로 의문이 생겼다. 당장에 '사망의 종류'부터 문제였다. '병사(病死)'와 '외인사(外因死)' 그리고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의사가 과연 이것을 완벽히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를테면 병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사일 수도 있다. 옥시크린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사고를 당한 경우도 그렇다. 백남기 씨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시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다.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또 그 내용을 잘 안다 하더라도 의학적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병사와 외인사를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의사가 법의학자는 아니다. 또 법의학자라도 그렇다. 증거를 수집할 권한도, 분석할 시간도 없다. 그런 의사에게 이를 판단해 기재하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 행정편의상, 또 통계 목적으로 의사에게 이를 기재하게 하는데, 이는 사실상 의사의 판단 역량과 직무 범위를 넘는 일이다.

의사에게는 의학적 소견만을 쓰게 하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사망의 원인'을 쓰게 돼 있는 부분은 옳다. (가), (나), (다), (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에는 직접 사인을 기재하게 돼 있고, (나)에는 (가)의 원인을, (다)에는 (나)의 원인을, 그리고 (라)에는 (다)의 원인을 쓰게 돼 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좁게, 또 넓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 (다), (라) 항목을 기재함에 있어서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 적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백 번 타당한 일이다.

이번의 사망진단서 문제는 이 두 항목, 즉 '사망의 종류'와 '사망의 원인' 모두에서 발생했다. 우선 '사망의 원인'의 (가), 즉 '직접 사인' 항목에 '심폐정지'로 적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심폐정지'는 '죽음의 현상'이지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토톨로지(tautology)', 즉 '동어 반복'이다. 죽음을 '심장과 폐가 멈춘 상태'로 보는 경우, '심폐정지'라 쓰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죽음'이라고 쓰는 것이 된다. 그래서 통계청도 대한의협도 되도록 이렇게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협이 밝혔듯이 이를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 없다. 첫째, 죽음을 '심폐정지' 이상의 것으로 보는 경우 '심폐정지'를 그 죽음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로 많은 의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적고 있다. 그리고 셋째, 더 큰 의학적 원인은 (나) 이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에도 (나)에는 '급성신부전', 그리고 (다)에는 뇌출혈을 의미하는 '급성경막하출혈'로 적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망의 종류'이다.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쓰러진 명백한 외인사이다. 오랜 병상생활에 병이 더 중해지거나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았다. 하지만 이 또한 병원이나 의사만 나무랄 수는 없다. 애초에 사망진단서의 이 항목 자체가 의사의 판단 역량과 직무범위를 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병원도 의사도 아니다. 부검까지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 보겠다는 경찰이 문제이고, 행정적 편의주의가 다 사라지지 않은 사망진단서가 문제다.

이래저래 정부가 문제다. 정부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야 할 병원까지 그 제물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묻고 싶다.

오늘의 인물 10월 4일
찰턴 헤스턴

정치적 신념이 확고했던 '십계' '벤허'의 명배우

찰턴 헤스턴(1923.10.4~2008.4.5)은 정말 배우 같지 않은 배우이다. 조각 같은 외모와 선한 이미지는 배우로서의 끼를 찾기 어렵게 한다. 그 때문일까. 그가 주연을 맡아 세계적으로 히트한 '십계', '벤허'가 다 종교영화다.

실제로 세실 B. 드밀 감독이 '십계'의 모세 역으로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미켈란젤로의 모세 조각상과 신기할 정도로 닮았기 때문이란다. 그렇다고 그가 이런 역할을 설렁설렁했을 리 없다. 그랬다면 대박이 날 일도 없었을 테니….

그는 실제 배역과 자신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에 깊이 빠져든다고 한다.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그였기에 그러한 몰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는 배우 생활 틈틈이 문화와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다.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찾아 분석했다. 그랬기에 그는 어떤 역할도 자신 있게 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특이한 이력도 있다. 바로 전미 총기협회장이다. 이 이력에서 그가 극렬 보수주의자일 것이라는 사실을 금세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그는 2000년 대선 당시 앨 고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자 그를 '고압적인 정부 갱단'이라고 매도하며 낙선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극렬 우익으로 몰기에는 그가 한때 걸었던 길이 너무도 상반된다. 그는 마틴 루터 킹 등과 함께 인종차별 철폐에 앞장섰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전미 총기협회를 이끌며 극렬 우파라는 비판을 들었던 것을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하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정치적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 그가 단순히 배우로서만 기억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대환 편집위원 daehoan3000@

온라인 토닥토닥

'기부천사' 션, 아들 생일 맞아 또 선행 "최고의 선물이네"



힙합그룹 지누션의 션이 아들 하랑의 생일을 맞아 기부 선행을 펼쳤다. 션은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랑이의 아홉 번째 생일. 매일 1만 원씩 모은 365만 원으로 장애를 가진 한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션은 아들 하랑의 첫돌에 잔치 비용 2000만 원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이 두 명과 청력이 손실된 아이 한 명의 수술을 도운 바 있다. 이번 생일에는 하랑이 1년간 모은 365만 원으로 올해 4월 개원한 어린이재활병원을 통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션은 하랑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재활치료 문턱이 더욱 낮아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해 감동을 더했다.

네티즌은 "최고의 선물이다. 아이에게 뜻깊은 생일이 될 것 같다", "아빠를 닮아 따뜻한 아이가 되길 바란다", "이런 교육 방법, 정말 배우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카드로 보는 세상



"책은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다. 책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현명한 상담자이자,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이다." 유명 학자의 명언입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 당신 곁엔 어떤 책이 놓여 있나요? 삶의 나침반이 필요한 당신께, 혹은 지식과 감성의 향기에 빠져들고 싶은 당신께 권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GZyBPo



지원개요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등

'16년 지원규모 : 280억원

지원분야		지원비율	제품당 지원한도
고부가가치인증 (KTR)	의료기기, 방폭, 군사장비, 건축자재 등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 원 이상인 제품인증	50%~70%	50백만원
일반규격인증 (KTL)	고부가가치인증으로 분류되는 인증 이외의 규격인증		30백만원

* 고부가가치인증과 일반규격인증은 2개 제품까지 지원

신청기간
- '16년 10월 1일 ~ 30일 (한달간, 금년도 **마지막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신청후 관련서류를 관할 중소기업청에 제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고부가가치 또는 일반규격, 중국 인증)

기타 참고사항
- 2016년에 한하여 이미 진행 중 이거나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원
- 창업초기기업('13 ~ '16년 설립기업)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

문의 및 확인

관리기관	고부가가치인증 및 중국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전화 : 02-2164-0172~8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규격인증센터 전화 : 02-860-1312~3

홈페이지 facebook

중소기업청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데스크 칼럼

산업은행의 '아킬레스건'



이 진 우
기업금융부장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구조조정의 소위 '원톱'은 예금보험공사였다. 외환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정부는 예금자 보호 명목으로 예보를 통해 은행과 기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당시 예보의 한 팀장은 '갑 중의 갑'으로 불렸다. 자금을 집행하고 부실기업을 관리하는 그의 말과 판단은 굴지의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대혼란 속에서 곧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예보 역시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예보를 통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혈세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예보의 구실은 이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축소됐다. 요즘 예보를 구조조정 기관으로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2000년대 중후반 예보의 바통을 이어받은 곳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었다. 금감원은 1997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전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권을 바탕으로 채권은행을 움직였다. 은행들이 제각각 논리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금감원이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했는데, 이 바탕엔 '검사권'이 있었다. 검사는 곧 제재와 징계를 의미한다. 은행이 금감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금감원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서 힘을 잃어갔다.

금융당국은 2011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무려 7곳의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 각종 투서가 난무했다. 결국,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금융당국 간부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일부 금감원 팀장은 구속되기도 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한 간부는 기업에 특혜 대출을 종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금도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즈음, 기업구조조정의 '헤게모니'를 이어받은 곳이 바로 산업은행이다. 사실 산업은행은 줄곧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 자금력을 가진 산은은 주요한 '도구'였다. 그런데 산은 역시 최근 질타를 받고 있다.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도 여러 비난을 받고 있다. 채권단 시각을 고집하다 보니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류대란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에 있어 아킬레스건은 개인 비리로 보인다. 예보, 금감원 등 한때 기업 구조조정의 원톱으로 불렸던 기관들이 정책적 잘못보다는 개인 비리에 무너졌다는 전례에서다.

한때 '왕회장'으로 불리며 막강한 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전 산은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산은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보나, 관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감독기관이 산은을 제치고 다시 기업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산은 직원들의 비리를 시스템적으로 막으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럴 때는 금감원을 활용하는 게 한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산은의 건전성만 점검하고 있다. 검사 범위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선 계속해서 산은과 투자은행(자문사), 회계법인 간 '검은 공생'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문사와 회계법인 선정 과정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 비리가 터지면 산은은 아무리 정책적으로 성공해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woo@

객석

전 인 수
KB국민은행 목동예술인센터지점 부지점장



곰소에서

길가에 드러누운 망초마다
하얀 꽃을 입에 물고 있는 동네.

버스가 멈춰서자 채송화 같은 아이들 한 떼가 내린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에 놀라
소리없이 증발하던 곰소의 오후가 깨어나고
파란 대문집 앞에 서 있던 우체통이 기지개를 켠다.

편지 봉투만한 염전을 하나씩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를 마시던 햇살도 잠들고
수평선에 머물던 어둠이 밀려오면
출렁이던 곰소를 봉투에 담던 이웃들이
염전에서 돌아온다.

장화 사이 새어든 바다를 벗어두고
툭툭 불거진 정강이 힘줄로 버텨 서서
툽툽한 막걸리 잔에 소금기 절인 하루를
마시고 나면
가겟방 누렁이는 긴 혀를 내두르며 잠이 든다.

뼈 마디 속 숨어 살던 저린 숨소리에 잠을 뒤척이는 사이
둘째 등록금을 챙겨야 하는 장씨네 염전에서
핸드폰 사달라고 보채는 손자를 둔 이장네 염전에서
풍으로 드러누운 모친을 병원에 모셔둔 서씨네 염전에서
봉투에 담겨졌던 사연들이 밤잠 못 이루고 증발해 가고
가끔은 꿈 속에서
먼 여행에서 돌아온 갈매기가
끼룩끼룩 털어놓는 모험담을 듣기도 한다.

곰소 사람들의 절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썩지 않고 덧나지 않게 상처를 아물며
결정(結晶)되어 가는 곰소의 바다.

출렁이던 꿈들이 하얀 소금으로 피어나면
사람들은 내소사 큰스님 같은 웃음으로
꽃을 피운다.

기자수첩

최 두 선 자본시장부/sun@



'개미' 울리는 허위정보 이젠 그만

"국내 증시에서 '개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보 창구가 너무 없습니다. 국내외 상황과 맞물려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식토론방 등에 허위 정보가 많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 개인투자자는 온라인 및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종목들의 정보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허위 정보로 인한 '장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제기된 '정치 테마주'의 위험성은 수없이 제기됐지만, 근거 없는 정보의 출처가 비단 정치 테마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 광진실업은 지난달 26일 장중 24%까지 주가가 치솟으며 전 거래일 대비 6.95% 오른 4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해 신공항 추가 확대 소식과 함께 김해에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기자 확인 결과, 광진실업은 부산에만 공장부지가 있고, 김해에는 부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지난 8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의 부품주가 급등할 때에도 허위 정보 종목이 만연했다. 일례로 갤노트7의 영향으로 주가 상승을 경험한 S&K폴리텍은 확인 결과, 갤노트7에 들어가는 부품은 없고 충격 흡수용 시트가 갤럭시 그랜드 등 중저가 모델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향후 갤노트7에 납품할 계획도 없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몸집 불리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경제 발전을 위한 근간으로 삼으려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며 "하지만, 증시를 둘러싼 허위 정보들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한 경각심 제고와 공시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정치경제부 차장

본전도 못 찾은 새누리의 보이콧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국정감사가 4일 정상화에 들어섰다. 그동안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파행으로 진행했던 일정도 연장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집권당이 민생을 팽개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정권에 대한 의혹 눈 돌리기?,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 보수결집 효과?,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모를 일이다.

결과적으로도 그렇다. 이번에 보이콧을 풀면서 새누리당의 손에 쥐어진 건 하나도 없다. 보이콧 해제 조건으로 내세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는 '사과'로 수위를 낮추고도 받아내지 못했다. 여론의 비판은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향했고, 보이콧과 동시에 단식에 돌입했던 이정현 대표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누가 봐도 새누리당의 백기투항이다.

여당이 이 지경이 된 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서다. 정 의장의 '맨입' 발언은 의장으로서 부적절했음에 분명하다. 의장이 야당의 입장을 대변한 셈으로, 이 대표가 해임안과 함께 단식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다. 그렇다한들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국회법 제20조 2항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이 보이콧 배경으로 삼은 건 더욱 무리수였다. 야당 단독으로 장관 해임안을 가결한 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과 같은 격이다. 그런데 억지로 불법 행위라고 몰아가려다 보니 일이 꼬이고 말았다.

여당의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초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때도 정 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문제 삼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적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당시는 정부가 추석연휴 이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추경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시기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호들갑을 떨었던 만큼 추경 편성이 급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정 의장이 개회사에서 했던 발언은 "고위 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 한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소통 부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아슬아슬한 발언이라고는 해도 추경안 처리를 거부할 만큼 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무리 여소야대라지만, 집권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막강하다. 그런 점에서 의사 일정 거부는 신중했어야 했다. 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넘치는 정치권이다. 툭하면 보이콧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더 이상 여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zerg@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5 국제팀 (02)799-2643
산업1부 (02)799-2663 산업2부 (02)799-2664 사회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1부 (02)799-2641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48
뉴미디어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사진영상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반은 웃고 반은 울고… 엇갈린 반기문 테마株

베스트&워스트
9월 26~30일

9월 마지막 주(9월26~30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0.44포인트(0.51%) 내린 2043.63으로 장을 마감했다. 29일 2060선까지 치솟으며 종가기준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의혹 등이 부각되며 지수는 결국 2040 선에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7.38포인트(-1.07%) 내린 681.21에 마감했다. 기관이 104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끈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95억 원, 278억 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제한했다.

'한솔PNS' '한농화성' 별 호재없이 각 30·25% 올라
'삼양식품' 전주 이어 상승세…최근 한달새 1.5배 뛰어
'유니켐' 상장유지 기사회생 불구 지지부진…하락 1위

◇ 고려산업 등 정치테마주 '극성'… "투자자 주의 필요" = 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정치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뚜렷한 이유 없이 테마주로 엮이며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려산업은 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주간 무려 37.65%에 이르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고려산업의 이 같은 주가 급등세에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고려산업 측은 "현저한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 중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산업 측은 이처럼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고려산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루머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솔PNS와 한농화성 등도 지난 한 주간 주가가 각각 30.29%, 24.94%씩 올랐다. 이들 종목들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도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이들 종목 역시 시장에서 반기문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테마주를 살펴봤을 때 실제 해당 정치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실적 등 기업 펀더멘털에 기반 없는 투자에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양식품이 지난주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올해 초부터 지난 달 초까지만 해도 2만5000원대에 머물렀던 삼양식품의 주가는 불과 2주 만에 4만 원대를 돌파했다. 현재(9월 30일 기준) 삼양식품의 주가는 4만5100원이다.

◇ 호재 뒤 악재 공시 '한미약품', 주가 급락 = 제약주 열풍을 이끌어 왔던 한미약품이 이번에는 찬물을 끼얹었다. '늑장공시' 사태로 제약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코스피 지수까지 끌어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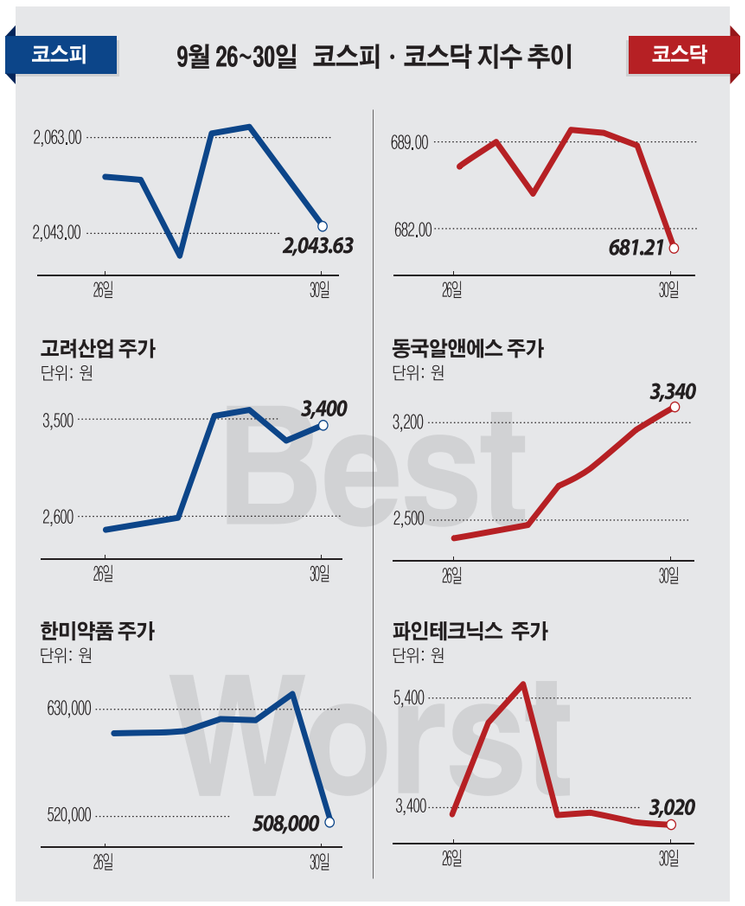
지난주 한미약품과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각각 16.17%, 16.18%씩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작년 7월 한미약품에서 항암신약인 '올무니팁' 기술을 총 8000억 원 규모로 사갔던 베링거인겔하임이 해당 기술을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미약품이 이번 공시와 관련해 고의로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거래정지 상태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이행해 왔던 유니켐은 '기사회생'에 성공했지만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거래가 재개된 첫 날(9월 29일)부터 약세를 보인 유니켐은 지난 2거래일간 16.63% 하락했다.

팬오션은 유상증자 발행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팬오션은 보통주 8만833주를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30일 시가총액	종가(원) 9월 23일	종가(원) 9월 30일	주가등락률(%)
고려산업	84.79	2.470	3.400	37.65
신화실업	38.57	24.100	31.750	31.74
한솔PNS	46.72	1.750	2.280	30.29
한농화성	83.03	4.250	5.310	24.94
코스모신소재	90.08	4.855	6.010	23.79
남성	83.11	1.890	2.295	21.43
이스타코	96.85	1.880	2.260	20.21
삼화전자	31.55	1.870	2.210	18.18
삼양식품	339.74	38.350	45.100	17.60
신성솔라에너지	287.00	2.450	2.855	16.53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30일 시가총액	종가(원) 9월 23일	종가(원) 9월 30일	주가등락률(%)
티플랙스	56.51	1.875	2.975	58.67
동국알앤에스	61.46	2.395	3.340	39.46
신원종합개발	81.15	5.820	8.060	38.49
와이비엠넷	99.34	4.495	6.090	35.48
에스티오	47.15	4.245	5.630	32.63
제룡전기	107.62	5.150	6.700	30.10
디에이테크	71.01	9.280	11.750	26.62
푸드웰	63.52	6.340	7.940	25.24
인텍플러스	46.45	4.005	5.000	24.84
비엠티	54.26	5.380	6.660	23.79

코스피 하락 10종목

흥아해운	197.21	2.145	1.920	-10.49
한라홀딩스	730.26	75.600	67.600	-10.58
팬오션	2.052.13	4.320	3.855	-10.76
신성이엔지	86.80	5.060	4.485	-11.36
아이카이스트랩	89.41	6.730	5.750	-14.56
티에이치엔	55.53	3.650	3.085	-15.48
태평양물산	133.70	3.995	3.365	-15.77
한미약품	5.301.04	606.000	508.000	-16.17
한미사이언스	6.645.10	136.000	114.000	-16.18
유니켐	103.49	2.435	2.030	-16.63

코스닥 하락 10종목

코이즈	55.50	6.850	5.600	-18.25
에스아이티글로벌	87.34	2.120	1.730	-18.40
버추얼텍	44.53	3.265	2.660	-18.53
이원컴포텍	38.09	3.770	3.040	-19.36
로코조이	63.17	4.525	3.620	-20.00
한프	144.42	6.761	5.400	-20.13
에스아이리소스	84.32	2.115	1.685	-20.33
코리아에스이	46.02	3.175	2.435	-23.31
소프트맥스	68.52	13.550	10.250	-24.35
파인테크닉스	101.13	4.185	3.020	-27.84

※자료 : 에프앤가이드

'티플랙스' '와이비엠넷' 30%대↑…'파인테크닉스' 27%↓
'로코조이' 유증 납입규모 감소 소식에 20%나 떨어져
'코리아에스이' '피앤씨테크' 등 지진테마주 약세 전환

◇ 동국알앤에스·와이비엠넷 등 급등… 반기문 관련株로 꼽혀 = 지난주 코스닥 종목 중 가장 상승폭이 컸던 업체는 티플랙스였다. 티플랙스는 지난달 23일 1875원이었던 주가가 2975원으로 한 주 사이에 58.67% 급등했다.

티플랙스는 스테인리스 봉강 절삭가공 및 후판 전문업체로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봉강을 조달받아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 전방산업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후판사업에도 진출해 석유화학, LNG, 담수화설비 등에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티플랙스의 강세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황이다. 답변시한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같은 기간 동국알앤에스는 39.46% 상승했다. 동국알앤에스는 동국산업의 계열회사로 고온에서 연화되기 어려운 비금속 세라믹재료인 제강용 내화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경우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사돈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반기문 테마주로 꼽히고 있다.

와이비엠넷도 반 총장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난 한 주간 35.48% 상승했다. 와이비엠넷은 온라인교육, 컨텐츠제공업, 데이터베이스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민선식 YBM 사장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하버드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신원종합개발(38.49%), 에스티오(32.63%), 제룡전기(30.10%), 디에이테크놀로지(26.62%), 푸드웰(25.24%), 인텍플러스(24.84%), 비엠티(23.79%) 등이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 정치테마株의 몰락… 파인테크닉스 등 급락 =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다. 파인테크닉스의 주가는 지난 한 주간 27.84% 떨어졌다.

파인테크닉스는 최근까지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되며 강세를 보여왔다. 반 총장과 친척으로 알려졌던 반기로 씨가 대표로 있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파인테크닉스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파인테크닉스뿐만 아니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부산주공, 에쓰씨엔지니어링 등도 반기문 테마주로 꼽히며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반 대표가 반 총장과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지진 테마주은 지난주 약세를 보였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코리아에스이로 주가는 전주 대비 23.31% 하락했다. 피앤씨테크와 삼영엠텍 등도 코리아에스이보다 낙폭은 적었으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바일 게임업체 로코조이는 유상증자 납입금액 규모 감소 소식에 약세를 보였다. 한 주간 주가가 20.0% 떨어졌다. 로코조이는 당초 운영자금 140억여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납입일과 납입 금액이 바뀌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결국 로코조이는 지난달 23일 애초에 계획했던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5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서게 됐고 투자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 종목 외에도 소프트맥스(-24.35%), 에스아이리소스(-20.33%), 이원컴포텍(-19.36%), 버추얼텍(-18.53%), 에스아이티글로벌(-18.40%), 코이즈(-18.25%) 등이 하락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개화산역세권구역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공고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고 제2016-101호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강서구고시 제2016-49호(2016.06.2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제2016-호로 사업시행변경 고시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24조, 자치규약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신청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인가일 : 2016년 6월 29일)
나. 사업규모 : 지하3층/지상16층, 아파트 5개동, 298세대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주민자치센터
다.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실사용 대지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 수	용 도
8,970.00	46.1362	61,844.7202	447.8818	지하3층, 지상16층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기타 상세내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6-49호와 같음.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칭 :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방화동 538-5호 외 104필지, 9,678.11㎡
라. 사업시행자 성명 : 주식회사 씨엔코리아트 대표 김종승
마. 사업시행자 주소 : 강서구 양천로10길 34(방화동) 2층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6년 10월 4일 (화) ~ 11월 3일 (목) 30일간, 오전9시~오후5시까지
나.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34(방화동) 2층 ☎ (02)6401-8565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공동주택(173세대) 및 업무시설(221호실), 판매시설(연면적 : 6,667.31㎡)

구분	TYPE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동주택	49A2	14	49.7750	18.5720	68.3470	4.1740	104.0092	15.5753
	49B	2	49.7391	19.1989	68.9380	4.1709	104.5743	15.6434
	49C	5	49.6062	19.7593	69.3655	4.1598	104.9067	15.6016
	59A	33	59.7592	22.2731	82.0323	5.0112	124.8478	18.7948
	59B	16	59.9313	22.8851	82.8164	5.0256	125.7551	18.8489
	59C	12	59.9205	22.6959	82.6164	5.0247	125.5474	18.8456
	72A	40	72.9272	26.3725	99.2997	6.1153	151.5495	22.9363
	72B	12	72.8607	25.7746	98.6353	6.1098	150.8375	22.9154
	84	39	84.9184	30.9804	115.8988	7.1210	176.7400	26.7076
	소계	173	-	-	-	-	-	-
오피스텔		143호	※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분양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시설		계 4,691.92㎡	※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분양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분양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역은 인 · 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분양신청자격 :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법령 및 자치규약에 따라 분양 자격이 주어진 자
6.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분양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상기 분양신청 기간 내에 우편 등으로 발송(단,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에 대한 권리신고 방법 : 상기 분양신청기간 내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및 지참하여 분양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자치규약 제27조 및 29조에 의거하여 현금청산 대상이 됨
9. 분양신청 안내문 : 개별 등기 발송
10.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서면 통지예정

2016년 10월 4일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대표 김 종 승** [직인생략]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략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샛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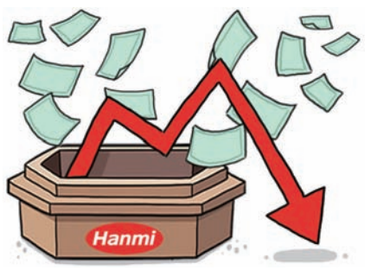
'이투데이 |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1, Yeouidaebang-ro 62-gil, Dongjak-gu, Seoul, Korea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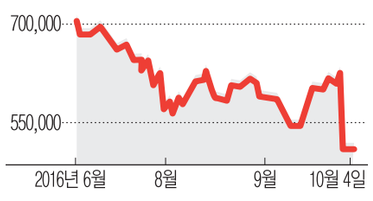
Market news

한미약품 사태에… 제약·바이오株 찬바람 부나

기술수출·임상 무산 잇단 공시…30일 하루 시총 1조 날려
제약·바이오株 일제히 하락…코스피 6%·코스닥 2%대 뚝



한미약품 주가 추이
(단위: 원)



한미약품 주가가 호재 공시 이후 악재 공시로 1시간 만에 상승세에서 폭락으로 돌아섰다.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만 1조 원 가까이 빠졌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주식시장에서 전일 대비 18.06% 하락한 5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가다. 한미약품은 올 첫 거래일인 1월 4일 72만3000원을 기록했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자체 개발한 표적 항암신약(HM95573)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1조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해 장 초반 급등했다.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8000만 달러(879억 원)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한 데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8억3000만 달러(9120억 원)를 순차적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는 9억1000만 달러(1조 원)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장 초반 65만 4000원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장 시작 후 불과 30분도 안 돼 베링거인겔하임의 올무티닙 임상 무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내성표적 폐암 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반환받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미약품 시가총액은 전날 6조4697억 원에서 5조301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빠졌다. 시가총액 순위도 46위에서 50위로 하락했다.

호재성 공시에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던 증권사들도 당황했다. 증권사들은 '한미약품의 8번째 홈런', '다섯 번째 대규모 L/O, 국내 1상에서 놀라운 성과', '기다리던 또 한 번의 쾌거', '한국의 제넨텍, 원조에게 인정받다', '신약개발의 클래스가 다르다' 등 제목으로 한미약품 성과를 조명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악재공시로 이들 리포트는 머쓱해졌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이지용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기술 수출에 있어 계약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임상의 순로조운 진행이다. 약물 개발의 리스크가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알려준 뉴스"라면서 "제약, 바이오 투자 심리 냉각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제약·바이오 시장의 투자 심리 냉각은 현실화됐다. 한미약품 이슈에 이날 제약, 바이오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 제약주는 전일 대비 2.53% , 코스피 의약품주는 6.75% 떨어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SP 주간동향

'비츠로테크, 방사광가속기 부품공급' 보도당일 상한가

9월 마지막 주 본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탁프리미엄에서는 종목돋보기 5건, 공시돋보기 6건, M&A 1건 등 11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기사는 '비츠로테크, 방사광가속기 핵심부품 공급… 5조4000억 시장 진출 기반 다져'이었다. 기사 게재 당일 주가는 29.86%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은 24.85%를 기록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핵심 장비를 비츠로테크가 가속관과 에너지배가장치를 개발해 공급했다. 바이오신약 개발 시 단백질 생산에 필수적인 방사광가속기를 세계 3번째로 구축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3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비해 1억 배 밝은 빛을 사용해 1000배 빠른 속도로 살아 있는 세포와 단백질 등 초미세 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다. 5조4000억 원 규모의 세계 가속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츠로테크는 가속관을 개발해 전체 가속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8개의 가속관을 국산품으로 대체했다. 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배가장치도 부품을 제작했다.

SP동향 종목돋보기 기사 리스트 (종가기준)

기사명	당일 주가 등락률	주간 주가 등락률
비츠로테크, 방사광가속기 핵심부품 공급…**5조4000억** 시장 진출 기반 다져	29.86%	24.85%
SKC솔믹스, 세라믹 역량 집중… 유상증자 계획	-0.18%	3.34%
국일제지 자회사, 덴티랩그룹과 **1000억**대 혈당측정기 공급계약	2.13%	-0.91%
아시아나항공, 유증 대금 부채 상환에 투입…금호타이어 인수전 지원설 '일축'	3.05%	1.58%

비츠로테크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가속기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가속기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개발된 핵심기술을 고주파 발생장치 등 다른 분야에 응용해 나갈 계획이다.

SKC솔믹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파인세라믹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사에 주간 상승률 3.34%를 기록했다.

이번 유증 대금으로 SKC솔믹스는 반도체 부품 소재인 세라믹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솔믹스는 지난 8월 웅진에너지에 태양광 사업부를 매각한 뒤 세라믹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SKC솔믹스의 세라믹 소재 제품은 안정된 수율을 확보하기 힘들어 경쟁사가 많지 않고 이익률이 높다. 지난 2012년 이후 5% 미만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던 세라믹 사업부문은 수율이 안정화되며 올해 1분기 19%의 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주요 고객사의 증설로 세라믹 소재 사용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로의 신규 납품이 예정돼 있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국일제지는 자회사인 바이오센서 기업 필로시스가 멕시코에 1000억 원대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에 당일 2% 이상 주가가 올랐다. 송영록 기자 syr@

금융당국, '늑장공시' 조사 착수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내역 중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공조
한미약품 경영진 연루 여부도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9월 30일 한미약품 주식의 매매내역 분석을 신속 심리하기로 했다. 신속 심리는 통상 1~2달이 걸리는 매매내역 분석을 1~2주로 단축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미약품 주식을 거래한 계좌의 원장을 증권사로부터 받은 뒤 이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한미약품 주식 매매 계좌의 소유주가 분석되는 대로 금융당국에 해당 자료를 건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서 해당 자료를 받기 전에도 한미약품과 관련,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현재 이번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악재성 공시가 지난달 30일 9시 29분에 나온 상황이기에 장 개장 이후 29분 동안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나 부당 이득 취득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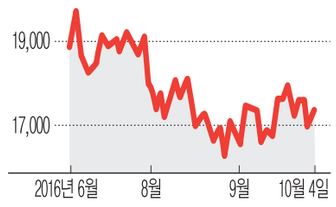
한미약품 임원이나 경영진의 해당 사안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재성 계약과 계약 취소, 이들 정보 공시 등 일련의 과정은 회사 고위층 개입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신속한 현장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는 빠른 증거 확보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태 때도 금융당국은 최 회장이 주식을 판 6일 뒤에 이 회사 본사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거래소의 심리 자료를 받기 전에도 현장 조사는 나갈 수 있다"며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자가 특정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재혁·정다운 기자 freshphase@

웹젠 주가 추이
(단위: 원)



뿔난 웹젠 소액주주들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웹젠의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액주주들이 연대해 회사 측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웹젠은 4일 공시를 통해 구하서 외 19명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하서 외 19명은 주주명부를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하라고 요청했다.

웹젠은 게임 '전민기적'과 '뮤오리진' 등 신작 발표와 중국 게임업체와의 제휴 등으로 지난해 4월 주가가 4만5000원대까지 치솟으며 승승장구한 바 있다. 실적 역시 지난해 매출 242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0% 성장했다. 영업이익 또한 747억 원으로 전년 142억 원 대비 약 425% 급성장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다. 약 1년 만에 1만 원대로 추락한 웹젠 주가는 최근에도 공매도 등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신작 부재, 지배구조 변경 속에 회사를 대표하던 김병관 전 의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젠이 자체 개발하던 신작 2종을 취소하면서 악재를 더했다. 지난 3월 첫 공개돼 눈길을 끌었던 'C9 모바일'과 3년간 만든 온라인 게임 '라이트폴 온라인'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회사 측은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웹젠은 이사회를 열어 주가 안정 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51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소액주주 측은 "투명한 경영과 주주친화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마지막이자 최대권리인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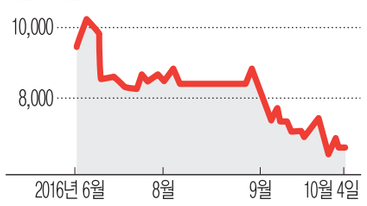
현재 소액주주 측은 임시주총에 필요한 약 54만 주 중에 실질주주증명이 된 15만 주가량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시종 기자 ssj@

종목돋보기

볕드는 웅진에너지… 유증 청약률 90% 넘었다

총 92.72%…601억 자금 조달
지주회사 웅진 100억대 참여
기관 오너가 신주인수권 매수
태양광 사업확대 성장 가능성

웅진에너지 주가 추이
(단위: 원)



웅진에너지의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는 적자에 더해 오너가(家)의 유증 불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번 유증의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주주 청약률이 90%를 넘으며 유증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4일 웅진에너지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진행된 64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 결과 총 청약 수량은 1094만655주로 집계됐다. 총 청약 금액은 601억7360만 원이며 청약률은 92.72%다.

실권주는 85만9345주(청약 금액 47억 2639만 원)로 실권율은 7.28%에 불과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7월 잉곳 및 웨이퍼 생산능력 확대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번 유증을 계획했다. 그러나 웅진에너지가 태양광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를 이어온 데다 윤석금 웅진 회장의 두 아들인 윤형덕 웅진에버스카이 대표와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가 이번 유증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유증 성공은 주춤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주사인 웅진이 100억 원대 청약을 참여한 데 이어 태양광 업황의 회복세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이 유증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주주들 사이에서도 유증 청약 분위기가 조성됐다. 앞서 웅진은 지난달 기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자사 신주인수권 일부를 매각했으며 윤 회장의 두 아들 역시 각각 신주인수권 7만5298주를 주당 700원에 매도했다.

이번 기관 투자자의 웅진에너지 투자는 태양광 사업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8월 30억 원 규모의 SKC솔믹스의 태양광 사업을 인수하는 등 외형 확대에 나선 동시에 잉곳 중심의 태양광 사업을 웨이퍼 중심으로 전환하며 내실도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웅진에너지의 체질 개선에 수주 소식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22일 대만 빅선에너지와 약 100억 원 규모의 웨이퍼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26일에는 독일 태양광 기업 솔라월드에 231억 원 규모의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영식, 삼일회계 구원투수로

안경태 前회장 검찰 조사
13년만에 김 대표 체제로
감사정체·인력이탈 등 과제



올해 한진해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국내 1위 회계법인 삼일PwC가 13년 만에 대표이사 체제를 바꾼다.

삼일PwC 파트너(임원)들은 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총회를 열고 김영식(59·사진) 부회장을 새 총괄대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아온 안경태(62) 회장은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다. 이들의 이·취임식은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김 부회장이 새 수장으로 뽑힌 것은 삼일PwC가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전 회장은 최은영(54)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판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회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곳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같은 사태로 조직의 사기를 추스르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젊은 피보다는 38년간 삼일PwC에 몸담은 김 부회장이 새 총괄대표로 추대를 받은 것이다.

김 부회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 정체된 감사 보수, 젊은 회계사들의 이탈 등 회계업계 본연의 숙제도 풀어야 한다.

그가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삼일PwC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비TK(대구·경북) 출신이 이끌게 됐다. 김 부회장은 1978년 삼일PwC에 입사했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민대에서는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삼일PwC에서는 2008년에 부문 대표, 2014년에 부회장에 선임됐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KOREA Sale FESTA
2016 쇼핑관광축제

SAMSUNG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
축제는 혜택으로 기억된다

모두에게 사랑 받는 삼성전자 제품을
더욱 특별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오직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만

노트북 9 metal
패밀리 허브
갤럭시 S6 edge+
UHD TV
지펠아삭 M9000

삼성전자 S' 골드러시
코리아 세일 페스타
[2016년 9월 29일~2016년 10월 31일]

[특별기획전] UHD TV, 패밀리 허브, 지펠아삭 M9000, 애드워시, 노트북 9 메탈, 갤럭시 S6 엣지+ 등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문화체험전] SUHD TV로 즐기는 명화감상전 |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인생샷 찍는 법
[고객행복전] 매장 방문객 5만명에게 파리바게뜨 토스트 교환권 증정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해당 모델 구매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장에 따라 보유모델 및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혜택의 경우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 대상 및 일부 매장에 한합니다.
*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에 문의 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혜택 상품 등 사은품의 경우 환불 및 타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